

#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2023-03

수시연구

A Study of Complexation  
for Cultural ODA Projects

이성우  
윤지연  
최규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A Study of Complexation for Cultural ODA Projects

이성우·윤지연·최규빈





## 연구 책임

---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 연구

---

윤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 참여

---

이영유 국립외교원 연구원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한국 문화 ODA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의 ODA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 ODA 사업 확대를 위해 문화 ODA 사업 복합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문화 ODA 복합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 ODA 문제점

첫째,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소액 다건의 사업 형태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문화 분야 ODA 규모(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사업 기준)는 185.4억 원으로 국내 전체 ODA 예산 대비 0.44% 수준이다. 그간 문화 분야 ODA 예산의 절댓값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ODA 사업 대비 비중은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2023년 기간 동안 진행한 ODA 사업은 23건이다. 예산은 양자가 22년에 117.2억 원, 다자가 3.4억 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양자가 134.9억 원, 다자가 3.5억 원으로 타 기관의 한 개 사업 예산 규모도 안 되는 돈으로 20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둘째, 인력 양성 또는 인력 파견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소액 다건의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된 원인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청 연수 중심의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코이카도 봉사단 파견 중심으로 문화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사업이 매우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 문화 ODA 사업 수행 기관 간의 교류나 연계 사업 구상이 없다. 최근 국내 ODA 사업은 연계 사업의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2년 예비 검토제」 및 「범부처 EDCF 사업 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유·무상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33건 62개 사업), 무상 간 연계의 경우에도 재외 공관과 시행 기관을 통한 신규 연계 사업을 발굴 및 검토하고, 주관 기관-시행 기관 간 1:1 협의회 및 분과 협의회, 무상 원조 관계 기관 협의회를 통해 연계·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98건 228개 사업). 무상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 ODA 사업 간 무상 간 연계뿐 아니라 타 부처의 유상 사업과의 연계 및 분야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 내 ODA 사업도 총괄 기능이 없이 개별 과 단위에서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문화과, 국제관광과, 국제체육과가 각각 ODA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문화과는 문화 ODA, 국제관광과는 관광 ODA, 국제체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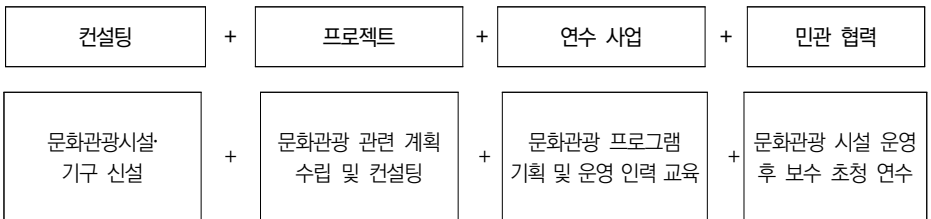
는 체육 ODA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조정 기능이나 기획 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다.

### 문화 ODA 복합화

문화 ODA 복합화는 범분야 이슈로서 문화 ODA 사업을 일반 분야 ODA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세부 사업을 사업 목적에 맞게 모듈형으로 조합하여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ODA는 ODA의 일반 분야가 아니라 범분야 이슈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분야로서 ODA 일반 분야와 연계된 사업을 구상하여 어떤 아이টে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놓고 구체적인 사업화를 고민하여야 한다. ODA 사업 유형은 크게는 ① 프로젝트, ② 개발 컨설팅, ③ 프로그램, ④ 연수 사업, ⑤ 장학 지원, ⑥ 봉사단 파견, ⑦ 기타 기술 협력(현지·국내 워크숍 등), ⑧ 민관 협력(NGO, 기업 등을 통한 협력)으로 구분한다. 이 ODA 사업 유형들을 필요에 따라 연계하여 패키지형의 연계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복합 문화 ODA 사업 연계 예시



건설	예시)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그램 내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림수산	예시) 농업 ODA 수행 마을에 전통문화유산 보호 및 관광상품 개발 컨설팅제공
기술환경에너지	예시) ICT 교육역량 강화 사업 내 문화기술 관련 연수 추가 운영
보건의료	예시) 건립 병원 내 문화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인력 연수
교육	예시)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내 문화기획 및 관광개발 관련 기술연수프로그램 운영
공공행정	예시) 문화 및 관광 정책 기구 설립 및 컨설팅 사업

문화 ODA 사업의 확대와 전체 ODA 사업에 대한 문화 분야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ODA 사업은 그 주제별로 다양한

사업 분류가 가능하다. 주목적에 따라 건설, 농림수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개별 ODA 사업들이 매우 다양하게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분야 프로그램 및 인력 운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45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1,840개 사업을 추진(4조 2,289억 원)하고 있다. 코이카 이외에도 매우 많은 기관들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간 협약에 따라 다양한 연계 사업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코이카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ODA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 협의하여 연계형 사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LH 공사는 베트남에서 한-베 '도시 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 ODA를 연계하여 베트남 지방 도시의 도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계사업은 S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타 분야 국별 협력 사업 중 보건, 교육 및 성평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있다. KOICA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탄 체육, 보건 및 가치 교육을 통한 청소년 개발 지원 사업'은 연계사업으로서, 열악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선 차원의 센터를 건축하고, 청소년 수요에 근거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 교육, 청소년 개발·정책 등 체육·보건·교육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다.

일반적인 ODA 사업은 빈곤 해소, 질병 감소, 환경 개선, 복지 증대 등이다. 복합 문화 ODA 사업은 패키지 사업들의 연속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전반적인 ODA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 향유 및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원국 및 수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자립 강화 측면에서 복합 문화 ODA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시설 및 센터, 기구 등의 건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유·무상 형태로 지원하고, 문화 및 관광 정책과 법제 연구, 정비를 갖추기 위해 정책·기술 자문을 병행하여 무상 지원을 행한다. 또한 문화관광센터와 같은 복합 ODA 시설을 건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관리 교육을 역량 강화 측면에서 무상원조로 실시한다. 시설 개보수 외에도 시설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체 발전, 삶의 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b>제2장 한국 ODA 현황과 복합화</b> .....	<b>9</b>
제1절 한국 ODA 현황	11
1. 한국 ODA 정책 현황	11
2. 문화 분야 ODA 현황과 문제점	27
제2절 문화 ODA 복합화 필요성	54
1. 범분야 ODA로서 문화 ODA	54
2. 문화 ODA 복합화 정의	57
제3절 소결	61
<b>제3장 해외 ODA 정책 및 사업 현황</b> .....	<b>63</b>
제1절 해외 ODA 정책 현황	65
1. 최근 ODA 영향 요인	65
2. 해외 ODA 정책 현황	72
제2절 해외 ODA 사업 현황	86
1. 주요 ODA 사업 현황	86
2. 문화 ODA 사업 현황	88
제3절 소결	95

<b>제4장 ODA 복합화 방안 .....</b>	<b>97</b>
제1절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향	99
1. 복합 문화 ODA 사업 구성 원칙	99
2. 복합 문화 ODA 구상	102
제2절 복합 문화 ODA 후속 및 시범 사업	113
1. 후속 사업	113
2. 시범 사업	119
제3절 소결	129
 <b>제5장 결론 .....</b>	 <b>131</b>
제1절 연구 요약	133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136
 <b>참고 문헌 /</b>	 <b>137</b>
 <b>ABSTRACT /</b>	 <b>141</b>

---

# 표 목차

〈표 2-1〉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평가	11
〈표 2-2〉 한국 ODA 규모 및 비중	16
〈표 2-3〉 주요 기관별 ODA 사업 규모	19
〈표 2-4〉 사업 유형별 ODA 규모(2021년~2023년)	23
〈표 2-5〉 윤석열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26
〈표 2-6〉 한국 문화 분야 ODA 규모(2015년~2022년)	29
〈표 2-7〉 문화체육관광부 ODA 총예산	29
〈표 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2021년~2023년)	32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ODA 유형별 예산	33
〈표 2-10〉 국가별 KPSC 사업 수요 조사 현황(3개년)	35
〈표 2-11〉 KPSC 정책·기술 자문 사업의 주제 및 내용	37
〈표 2-12〉 KPSC 인프라 구축 사업의 주제 및 내용	37
〈표 2-13〉 KPSC 역량 강화 사업의 주제 및 내용	38
〈표 2-14〉 문화재청 ODA 총예산	39
〈표 2-15〉 문화재청 ODA 유형별 예산	40
〈표 2-16〉 2023 문화재청 추진 사업 유형별 목록	40
〈표 2-17〉 문화재청 문화 ODA 사업(2021년~2023년)	43
〈표 2-18〉 KOICA ODA 총예산	45
〈표 2-19〉 2022 KOICA 추진 사업 유형별 목록	45
〈표 2-20〉 KOICA 문화 ODA 사업(2021년~2023년)	48
〈표 2-2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 목록	50
〈표 2-22〉 KSP 사업의 유형 및 협력 방식	51
〈표 2-2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	52
〈표 2-24〉 일반 분야 ODA 사업 분류	55
〈표 2-25〉 범분야·다분야 ODA 사업 분류	55
〈표 2-26〉 복합 문화 ODA 사업 연계 예시	58
〈표 2-27〉 범분야 문화 ODA 연계 사업 구상 예시	58

〈표 3-1〉 새로운 원조시스템을 위한 행동 방안	73
〈표 3-2〉 디지털 격차	75
〈표 3-3〉 HDP 빅서스에 관한 DAC 권고	83
〈표 3-4〉 DAC 권고안 이행 개요	84
〈표 3-5〉 주요 공여국 문화 ODA 규모 (2012~2021)	89
〈표 4-1〉 윤석열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99
〈표 4-2〉 연계사업 구상 예시	107
〈표 4-3〉 LH 공사 한-베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 개요	107
〈표 4-4〉 유형·주제별 연계 문화 ODA 사업(안)	111
〈표 4-5〉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114
〈표 4-6〉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별 문항	115
〈표 4-7〉 젠더마커 3점 척도 시스템	116
〈표 4-8〉 세부 프로그램 운영 기관(예시)	119
〈표 4-9〉 예체능계열 국내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1년 기준)	128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7
[그림 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13
[그림 2-2] 우즈베키스탄 박물관 역량강화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43
[그림 3-1] 글로벌 HDI 추세, 1990-2021	67
[그림 3-2] GDP 대비 미·중 R&D 지출 총액	69
[그림 3-3] DAC ODA 추이, 1960-2022	72
[그림 3-4] HDP 빅서스 개념	80
[그림 4-1] KPSC 사업 비전	110
[그림 4-2] 베트남 팡지성 위치	121
[그림 4-3] Hien Luong깃대	123
[그림 4-4] 베트남 DMZ 주요 유적	124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 가. ODA 예산의 지속 증가

한국은 2010년부터 ODA 공여국으로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ODA 정책 기반 마련과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하였다. 현재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다.

ODA 예산 규모는 2010년 1.3조 원에서 2020년 3.4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ODA 예산은 4조 5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2024년에는 총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5개 기관에서 1,898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OECD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2018년, DAC 동료 검토).

### 나. 한국 문화적 영향력 성장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문화 소비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한국의 전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국 포틀랜드커뮤니케이션에서 집계하는 <소프트파워 30>에서 한국은 30개국 중 19위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각 국가들이 인류의 공공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좋은나라지수(Good Country Index)의 문화 영향력 분야에서는 조사 대상국 169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 스페인 12위, 영국 23위, 이탈리아 25위, 일본 49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순위로 집계되었다.<sup>1)</sup>

한국의 문화 산업의 전 세계적인 확산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54억 6,826만 달러였고,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54억 9,592만 달러로 약 0.5% 증가하였다.<sup>2)</sup>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산업은 영화(51.8%)였으며 그다음으로 만화(27.9%), 음악(26.2%), 광고(26.1%) 등의 순으로 높았다.

#### 다. 문화 분야 소규모 ODA

공적 개발 원조가 빈곤 해소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문화 ODA 분야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공적 개발 원조 분야에서의 문화 분야 원조는 매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문화 분야 공적 개발 원조 규모는 2022년 기준 전체 ODA 예산 대비 0.42%인 156억 원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문화 ODA 사업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강하여 역량 강화, 문화예술 교육, 연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광외교 역량 강화, 지속 가능 관광발전지원상 사업, 개도국 문화 지원 역량 강화, 문화예술 교육 ODA, 개발도상국 관광 지도자 벤치마킹 사업 연구, 해외 예술계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 문화관광 분야 관련 이슈로 국제협력단 파견 사업이 대부분이고, 일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구축, 유적 및 사원 보존 사업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ODA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속에서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가 역량에 걸맞은 문화 분야 ODA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나 문화체육관광부의 ODA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확대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 복합 ODA 및 유무상 또는 민간 연계 ODA 사업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재정 대비 0.47%인 163.7억 원 수준이다. 총 ODA 규모 대비 문체부 문화 ODA 비율은 2015년 0.5%, 2016년 0.54%, 2017년 0.44%, 2018년 0.39%, 2019년 0.42%, 2020년 0.42% 수준이다.

1) 출처: <https://index.goodcountry.org/>

2) 한국콘텐츠진흥원(2022),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 7.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문화 ODA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의 ODA 현황을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 ODA 사업 확대를 위해 문화 ODA 사업 복합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문화 ODA 복합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시공간적 범위

과제의 주요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21년~2023년까지로 하여 진행한다. 2023년 4월 11일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문화 ODA 확대, 범분야 복합 ODA 추진 등의 문화 ODA 과제가 포함되었다.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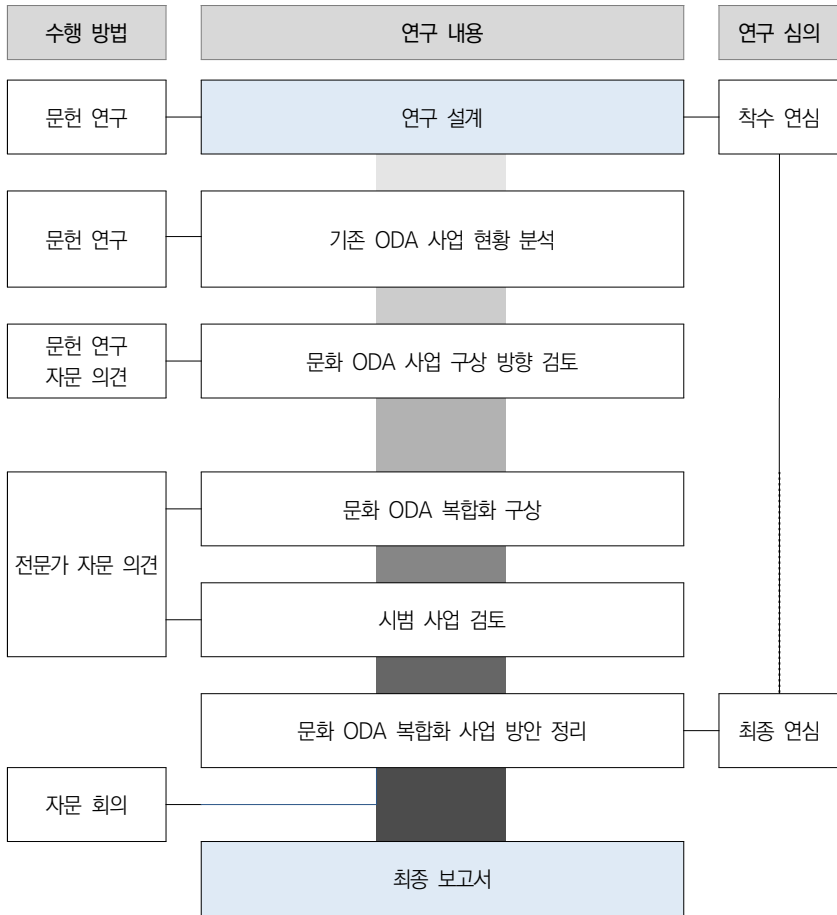
#### 나. 내용적 범위

내용적 범위는 일반적인 ODA 사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 ODA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 복합화 구상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한다.

### 2. 연구 방법

주요 ODA 데이터와 정책 자료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ODA 정책 동향과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한다. 문화 ODA 복합화 구상과 관련 사업 구상은 전문가 자문 의견을 거쳐 정리한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제2장

## 한국 ODA 현황과 복합화



# 제1절 한국 ODA 현황

## 1. 한국 ODA 정책 현황

### 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코로나 19 이후 경제, 보건 위기로 확산된 빈곤 인구의 증가와 세계적 양극화가 심각해졌으며, 기후변화 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 외 지속적인 분쟁과 갈등 속에서 취약국, 최저개발국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디지털화가 중점적으로 주목받으며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선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였다. 한국 ODA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에 부합하는 ODA를 추진하며 개발협력 규모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 및 전략적 ODA를 통한 글로벌 위기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21년 발표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글로벌 가치실현과 수원국과 공여국 간 상생 국익 실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개발의제 5P<sup>3)</sup>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와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1〉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평가

평가	내용
긍정 성과	• ODA 자원 확대 노력 강화(ODA 연평균 증가율 7.3%, 10년간 연평균 증가율(11.9%) 세계 1위)
	• 분야별 양·자 및 유·무상 비율 목표 수준 유지(양·다자 비율 목표치 75:25 달성, 유·무상 비율 목표치 40:60 근접),
	• 아시아 중심 지원 및 아프리카 비중 확대 목표 달성(아시아(47~52%), 아프리카(25~27%), 중남미(9~12%) 순으로 아시아 중점 기조 유지)

3) 5P: People(사람), Peace(평화), Prosperity(번영), Planet(지구), Partnership(파트너십)

평가	내용
	• 최저개발국 지원 비중 유지 및 최저개발국 지원 시 무상원조 위주 지원 목표 달성[최저개발국 대상 지원 비중은 2016~2019년 평균 36.1%로 1차 기본계획 기간(2011~2015) 평균 36.7% 수준 유지, 최저개발국 대상 무상원조 비율 56~59%로 유상원조 비율(41~44%) 상회]
	• 인도적 지원 강화[인도적 지원 실적(약정, 기준 백만 달러) 2015년 44.2 → 2017년 88.2 → 115.8]
	• 한국형 콘텐츠 지원[발전 경험 활용 정책자문·컨설팅 사업(KSP, DEEP 등) 등이 개발협력 성공 사례]
	• 코로나19 위기 대응(「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 수립, 120여 개국 인도적 지원 및 13개국 긴급차관 등 5.7억 달러 지원)
	• 통합적 ODA 기반 구축(「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2000. 11. 27.)으로 분절적 ODA 추진체계 혁신)
	• 국제협력 강화[다자원조 규모(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2015년 447 → 2017년 586 → 2019년 629, 한-미, 한-호주 개발협력 MOU 체결, 중남미경제통합은행(CABEI)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 가입]
보완 사항	• ODA/GNI 비율 및 비구속성 비율 목표치 미달성[2019년 ODA/GNI 비율 0.15%, 목표(0.18%) 미달성, DAC 회원국 평균(0.3%) 고려 향후 ODA 규모 지속 확대 필요, 비구속성 비율 2019년 49:87로 목표치 유상 55%, 무상 95% 대비 저조]
	• ODA 종합전략 수립 및 기획 부족, 전략과 사업 간의 연계 부족(신남방·신북방 ODA 연계, 민간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부족)
	• ODA 사업 경쟁력 부족 및 성과 관리 결여(ICT, 과학기술, 공공행정 등 국제경쟁력 모델 다양화 및 패키지 사업 기획·지원 필요)
	• 공동-민간-연구기관 등 범국가적 협력 생태계 조성 미흡(시민사회 등 민간과의 협력은 강화되었으나 다주체 간 통합 협력체계 구축 필요)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2021. 1. 20.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적 ODA, 상생하는 ODA, 혁신적 ODA, 함께하는 ODA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전략 목표에는 3가지 중점과제가 설정되어 총 12가지 중점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제3차 종합기본계획에서 <전략 1. 포용적 ODA>는 글로벌 보건위협 대응 강화, 취약 분야 인도적 지원 확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중점과제를 제시한다. 코로나 19 등으로 보건 ODA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민사회, 기업과 협업하여 보건 ODA 규모를 확대하고, 역량을 집중하며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림 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출처: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p. 8.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후변화, 글로벌 감염병 확산으로 확대된 세계적 식량위기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이 가능토록 지원을 추진하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기본권 강화(원격교육 수요 대응, 개도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고등 교육 및 직업기술 교육훈련 강화 등) 지원을 제시한다.

〈전략 2. 상생하는 ODA〉는 경제·사회 발전기반을 조성, 녹색 전환 선도,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를 중점과제로 제시한다. 경제·사회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해 개도국의 공항, 철도, 항만 등 경제 인프라 수요 증대에 적극 대응하여 지원을 확대하며, 개도국 사회 인프라 지원을 위해 ‘개도국의 법·제도 개선사업 및 행정시스템 구축 사업(2021년, 2,196억 원)’과 같이 법·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광융합교육센터 건립, 관련 정책 자문 등 개도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제

발전을 위해 수원국 문화콘텐츠를 토대로 현지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과제인 녹색 전환 선도를 위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ODA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전략 3. 혁신적 ODA〉에서는 수원국 혁신역량 강화,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개발협력 재원 다양화를 중점과제로, 수원국 혁신역량 강화 과제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혁신 지원을 위해 맞춤형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 연구역량 인프라 강화, 국내 R&D 성과를 접목한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내 디지털 소외 지역 및 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격차의 완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구축 지원 사업, 우리 ICT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 공공행정 ODA 및 행정정보 디지털화, 전자조달·무역 시스템 구축 등 국가별 맞춤형 디지털 정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중점과제에서는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의 혁신적 사업 모델을 활용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개발하며, 정부-시민사회-기업 활동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으로 사업지원 방식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과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기술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등의 개발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개발협력 재원 다양화 중점과제에서는 정부예산 중심 개발협력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의 강화와 공공부문의 개발금융 기능 활성화 등 개발협력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전략 4. 함께하는 ODA〉는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국제협력 고도화, 개발협력 외연 확대를 중점과제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업을 확대하고 공고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며,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도국 내 ODA 사업과 시민사회 사업 간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제협력 고도화 중점과제에서는 WHO, UNICEF, WFP(세계식량계획), UNDP(유엔개발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등 UN 중점협력기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 사업 및 양자 사업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주요 공여국인 DAC 회원국과의 협력 또한 확대하여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공동 지원하는 등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점과제 개발협력 외연 확대에서는 민간기업 및 재단과의 협력, 공공기관·대학 등과의 협업,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ODA 경쟁력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022년 발표된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서는 공적 재원의 확대와 다자개발 회의 논의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여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 국제협력의 고도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 그린, 보건 및 의료 등 비교우위 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위상을 정립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다.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서는 패키지화·사업의 대형화·브랜드화를 강조하고 있다.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부-민간, 양·다자, 유·무상 원조를 결합하여 사업 연계 효과를 최대화하고 분절성 극복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패키지화 사업은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제반 인프라 개선의 유상 사업과 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지원, 전문인력양성 무상 사업,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기술 노하우 공유, NGO 협력 캠페인 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765개 사업 가운데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1,155개(65%)를 차지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춘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국의 수요와 지속가능성, 차별성 등을 검토하여 ‘한국형 ODA 브랜드화’를 추진, 개도국 수요와 요건에 맞는 지원을 추진한다.

ODA 지원 지역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지원 기조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15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제2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거쳐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도 유지하고 있다. 한국 ODA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에는 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친근성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으며, 아세안(ASEAN)을 위시한 지역협의체를 통한 협력도 강조되고 있다. 1차 및 2차 종합기본계획이 아시아 관련 자원배분 방향 설정 외에 구체적 지원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에 반해, 3차 종합기본계획은 ‘지역별 전략 수립’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 지역 차원의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중점협력국 대상 성과 제고를 위해 세부 전략 수립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sup>4)</sup> 또한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서 제시한 아세안, 아프리카 등 인도-태평양 경제프

4) 권을 외(2021)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레임워크 가입 등 대외전략이 구체화되면 지역별, 분야별(교육, 농업 등) ODA 전략 수립 시 대외정책과 사업의 정합성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 나. 한국 ODA 규모 및 주요 사업

### 1) 한국 ODA 규모

한국 ODA 2023년 확정액 규모는 약 4조 7,771억 원으로, 2022년 3조 9,383억 원 대비 약 8,388억 원(21.3%) 증가하였다. 양자 간 원조는 2023년 3조 6,739억 원으로 76.9%를 차지하며 유상원조는 40.3%(1조 5,030억 원), 무상원조는 59.1%(2조 1,709억 원) 비율 수준이다. 이러한 비율은 국제동향, 대외정책 등을 반영하여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참여 주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2022년 44개 기관에서 2023년에는 1개 기관이 증가한 4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도 2022년 1,756개에서 2023년에는 84개 사업이 증가한 1,84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2-2〉 한국 ODA 규모 및 비중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ODA(십억 원)	2,635.9	3,048.2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양자 간 원조 비중(%)	2,130.0 (80.7)	2,387.7 (78.3)	2,493.8 (77.9)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유상원조 비중(%)	954.5 (44.8)	1,058.1 (44.3)	1,141.2 (45.8)	1,184.9 (42.7)	1,258.2 (43.0)	1,230.5 (39.5)	1,503.0 (40.9)
무상원조 비중(%)	1,175.5 (55.2)	1,329.6 (55.7)	1,352.6 (54.2)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다자간 원조 비중(%)	505.9 (19.3)	660.5 (21.7)	706.5 (22.1)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자료: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양자 협력의 경우 총 92개국을 대상으로 지자체 12개 기관을 포함한 45개 기관이 1,76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유상협력 분야의 경우, 42개국을 대상으로 22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ODA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아시아(59.2%), 아프리카(24.8%), 중남미(8.2%) 등 핵심 협력국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상협력 분야는 90개국을 대상으로 45개 기관에서 1,538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24.1%)를 중점으로 지원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15.6%), 중동·CIS(6.8%) 순으로 지원 비중을 보인다. 종합적으로, 중점협력국 27개국을 대상으로 유상원조 84.5%, 무상원조 71.0%를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 지원 동향은 2022년에는 보건(13.2%) 분야에 4,250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은 규모를 보였고 이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보건 ODA 역량이 집중하면서 규모를 확대하였다.<sup>5)</sup> 백신 지원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 인프라 개선 등 유·무상원조를 추진하였고, 백신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접종 관련 잔여 백신 예약 애플리케이션, 최소 잔여형 주사기와 같은 기술을 접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개도국에 신속 대응을 하였다. 2023년에는 교통(13.1%) 분야가 4,816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12.9%) 분야가 4,773억 원, 인도적 지원(11.0%)이 4,036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도적 지원 분야가 전년(9.8%)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유상협력의 경우 보건 위생 분야, 수원국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교통 및 ICT, 에너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개발도상국 회복력에 중점을 두고 인도적 지원, 교육, 농림수산 분야의 비중이 증가했다.

## 2) 주요 기관별 ODA 사업 규모 및 주요 사업

기관별 2023년도 ODA 사업은 지자체 12개를 포함한 총 45개 기관이 4조 2,289억 원 규모로 1,8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는 ODA 관계기관들의 참여를 증진하고 각 기관 간 사업 공유, 협조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행정시스템, 열린 정부 및 디지털 정부 등 정보공유·교육연수를 운영한다.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 총 1조 7,910억 원 규모로 프로젝트 유형 사업이 80.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42개국 대상 2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디지털·보건 분야에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과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5) 보건·의료 ODA 규모는 2020년 2,773억 원에서 2021년 4,0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4,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음.

두고, 중점협력국 등 지역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 유형 가운데 개발 컨설팅으로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추진하여 ‘메콩강위원회 빅데이터·AI 기반의 홍수 및 가뭄관리 개선 방안’, ‘가나 아크라 중심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지원’, ‘라오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스터플랜 수립’, ‘르완다 E-모빌리티를 통한 국제감축실적 활용 역량강화’ 사업 등 협력국이 긴급하게 요청한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으로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로 ‘KSP-GGGI 필리핀 생분해 기술 기반 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 사업 등 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 기후대응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사업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포함한 외교부는 2023년 총 1조 7,619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DA 사업 추진 방향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ODA 규모 확대 및 SDGs 이행 강화, 대외 정책과 정합성 추진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여, 개도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발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봉사단, 인재양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프로젝트(39.6%), 프로그램(21.5%), 봉사단과견(5.7%), 민관협력(4.0%), 연수사업(1.6%), 개발컨설팅(0.8%) 등 다양한 유형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사회, 민간기업, 국제기구 등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 가운데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2020~2025/1,050만 달러)’과 같은 유형의 사업은 센터구축과 재난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인력의 역량강화를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페루 국가문화유산 통합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5~2323/800만 달러)’과 같이 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역량강화 사업도 프로젝트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도 ODA 규모가 1,100억 원, 5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센터 역량강화지원사업(2차)’, ‘인도네시아 K-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밀레니얼 농업인소득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식량·농업·축산업 관련 기술 등 K-농업을 해외에 전파하여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 기업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 1,049억 원 규모, 9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점협력국

대상 사업의 비중이 14.1%로 다소 적으나, 이는 교육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Global Korea Scholarship)이 157개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고등교육,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한국이 축적해 온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추진 방향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강점 분야인 ICT 교육을 통한 ICT 기술운용 노하우, 원격 교육, 첨단 교실 구축 등을 통해 개도국 교육정보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06억 원 규모로, 72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프로젝트가 80.2%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연수사업(13.9%), 기타 기술협력(2.8%) 순으로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온실가스 감축용 태양광 충전 e-vehicle 시스템 구축’ 사업,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산업기술혁신센터 조성 지원’ 사업 등 그린 ODA와 디지털 ODA를 추진 방향으로 기후대응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지원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63억 원 규모로 4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이 글로벌 대두된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분야 ODA 예산이 2022년 대비 증가하였다. ‘베트남 소외계층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지원사업’, ‘캄보디아 서북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주요 만성질환 관리 강화사업’ 등 보건산업,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IT 기술전수, 원격의료 등 ODA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부에서는 개도국 보건부, 관련 기관과 보건의료인력 역량 및 전문성 개발 지원, 업무협약, 상호협력 및 포괄적 지원 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표 2-3〉 주요 기관별 ODA 사업 규모

구분	시행부처 (기관)	2023(단위: 억 원)				주요 사업명
		양자	다자	합계	사업수	
1	국무조정실	111.4	-	111.4	16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등
	기획재정부(본부)	862.4	2,018.1	2,880.5	9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
2	수출입은행	15,030.0	-	15,030.0	228	나이로비 지능형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사업 등
3	외교부(본부)	4,108.8	2,892.7	7,001.5	66	국제기구분담금 및 인도적 지원 등
	한국국제협력단	10,617.6	-	10,617.6	759	국별협력사업, 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 등
4	농림축산식품부	929.1	171.5	1,100.6	54	국제농업협력사업(ODA) 등
5	교육부	1,049.5	-	1,049.5	99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등
	교육청	23.5	-	23.5		교육부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매칭사업
6	산업통상자원부	690.1	16.3	706.4	72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ODA) 등

구분	시행부처 (기관)	2023(단위: 억 원)				주요 사업명
		양자	다자	합계	사업수	
7	보건복지부	524.3	139.0	663.3	46	라오스 보건의로 체계 강화를 통한 성생식모자보건서비스 질 제고 사업 등
8	농촌진흥청	330.8	3.3	334.2	32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KOPIA, 다자간 협의체 등)
9	환경부	265.4	42.8	308.2	31	수자원 폐기물 대기 등 국제개발협력 지원(ODA) 등
10	국토교통부	299.2	1.3	300.5	25	지능형 교통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등
11	해양수산부	287.3	-	287.3	31	연안국과의 협력(ODA) 등
12	인사혁신처	248.5	-	248.5	1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운영
13	산림청	192.9	2.7	195.6	26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ODA) 등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9.1	10.4	179.5	39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등
15	고용노동부	99.7	78.3	177.9	16	개도국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SQ-Net) 등
16	행정안전부	156.2	-	156.2	42	디지털 정부 협력센터 운영 등
17	질병관리청	62.1	80.4	142.5	6	국제백신연구소 분담금 등
18	문화체육관광부	134.9	3.5	138.4	20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ODA 등
19	관세청	80.5	30.0	110.5	14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등
20	여성가족부	38.5	52.9	91.4	5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 연수 등
21	식품의약품안전처	59.6	-	59.6	10	서태평양지역 개도국 바이오의약품 평가 및 허가 기술 지원 등
22	기상청	50.2	6.4	56.5	12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사업 등
23	중소벤처기업부	55.5	-	55.5	5	라오스 비엔티안 테크노파크(LVTP) 조성 및 IT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24	법무부 -	50.7	-	50.7	6	국제형사협력 지원 등
25	문화재청	47.0	-	47.0	11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 등
26	그 외 기관*	164.8	0.2	164.8	70	
	합계	36,739.6	5,549.8	42,289.3	1,840	

\* 그 외 기관: 자원액 규모 순서별로 통계청, 특허청, 경찰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12개), 기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3) ODA 사업 유형별 분류

ODA 사업 유형은 크게는 ① 프로젝트, ② 개발컨설팅, ③ 프로그램, ④ 연수사업, ⑤ 장학지원, ⑥ 봉사단파견, ⑦ 기타 기술협력(현지·국내 워크숍 등), ⑧ 민관협력(NGO, 기업 등을 통한 협력)으로 구분한다. 2019년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을 통칭하여 국별 협력사업이라고 하며, 협력 대상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 복지향상 기여를 위해 물적 협

력수단과 인적 협력수단을 패키지로 하여 다년간(약 2~5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① 프로젝트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건축, 시설물, 기자재 등 하드웨어 부문의 물적 협력수단과 이와 관련된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소프트웨어 부문의 인적 협력수단을 결합한 사업이다. 프로젝트성 무상원조의 경우 평균 사업 규모가 약 100만 달러, 사업계획 수립부터 프로젝트 1건당 규모가 최소 20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기자재 및 물자지원은 원조의 효과성을 저해하므로 지양하며, 예로 시설지원과 기자재지원 역량강화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한다.

② 개발컨설팅 사업은 소프트웨어 및 제도구축 지원에 특화되어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기술협력 중심 사업이다. 주로 수원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자문 등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③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개발계획 또는 특정 분야의(예: 일반 예산, 섹터별 예산, 국제수지 재정지원 등) 개발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유형이다. 프로그램 중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학계, 사회경제 조직,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사회연대경제 등 6가지 주제에 따라 진입형, 성장형,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등 3가지 플랫폼을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협력사업을 지원하는 현지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은 신규 및 중소형 파트너들과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파트너의 조직 및 사업 역량의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에 우리 시민사회의 기여를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모 사업으로, 고등교육, 교육,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주제로 공모를 한다. 참여 대상자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이며, 대학 및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은 민간주도 풀뿌리 개발협력사업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 지역사회 중심의 선순환적 사회적자본 창출, △ 현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 확산, △ 지역사회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은 CSO와 KOICA 간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과 장기 사업 기간을 제공하는 정부-시민사회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이다.<sup>6)</sup> 문화와 관련된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사업은 '스리랑카 네곰보 지역 관광 분야 직업기술교육을

통한 여성 자립지원 사업'이며, 주로 교육 역량강화 사업, 장애청년 경제자립 지원 강화 사업, 지역 농촌여성 생계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있다.

④ 연수사업은 개도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대표 인적자원개발(HRD) 사업이다. 사업 발굴 후 수원국 및 국내 정부 부처의 사업 시작 2년 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계획 수립, 사업 및 예산 심의, 연수기관 공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연수생은 수원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선발하며, 연수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간 관리자급은 최소 2주 이상, 고위급은 탄력적으로 연수 기간을 정한다.

⑤ 장학지원 사업은 수원국 대상 유학생의 학위 과정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관련 소속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는 유형이다.

⑥ 봉사단 파견은 소정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인력을 협력국 수요를 바탕으로 파견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게 하며 직종별 전문 봉사를 진행한다. 봉사단은 일반 봉사단,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중심의 팀제 프로젝트형인 프로젝트 봉사단, 특성화고 및 마이스티고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참여하는 드림 봉사단, KOICA와 UN 봉사단 파견 기관인 UNV 공동 프로그램인 KOICA-UNV 봉사단, NGO 현지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NGO 봉사단, 대학생 팀제 봉사단으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및 CIS 지역으로 파견되어 교육 및 특화 봉사를 수행하는 청년중기 봉사단 등이 있다. 2011년부터 각 부처·기관별 해외 봉사단 사업을 KOICA World Friends Korea(WFK)로 통합 운영하여, 정부 봉사단의 이미지 단일화 및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개별 부처·기관의 독자적인 해외 봉사단 파견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태이다.

⑦ 기타 기술협력(현지·국내 워크숍 등)은 개발 컨설팅, 장학지원, 봉사단 파견 이외의 기술협력으로 순수 기타 기술협력만 인정되며, 타 사업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으로 분류된다.

⑧ 민관협력은 국내·외 NGO에 대한 지원으로, 국내외 시민 사업, 학계, 기업 등 민간 부문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과 협력사업은 제외하며, 단순한 물자지원 및 봉사단 파견, 방한 초청 연수는 지양하고 있다.

6) 한국국제협력단 시민사회협력사업 참조([https://www.koica.go.kr/koica\\_kr/966/subview.do](https://www.koica.go.kr/koica_kr/966/subview.do))

유형별 지원 규모는, 프로젝트가 2021년에는 유·무상 총합계가 2조 174억 원(70%)으로 집계되었고, 2022년에는 2조 1387억 원(66.4%), 2023년에는 2조 4704억 원((67.2%)으로 가장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2021년,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프로그램(14.4%)이 5,274억 원으로 규모가 증가하였다. 2023년의 타 유형은 연수사업(4.3%) 1,589억 원, 봉사단파견(4.9%) 1,059억 원, 민관협력(2.4%) 873억 원, 개발건설팀(2.3%) 854억 원 등의 순서로 지원하고 있다.

〈표 2-4〉 사업 유형별 ODA 규모(2021년~2023년)

(단위: 억 원, %)

구분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수사업 (장학지원 포함)	봉사단 파견	민관협력	개발 컨설팅	행정비용	기타 기술협력	기타	
2021	유상	12,182 (96.8)	400 (3.2)	-	-	-	-	-	-	
	무상	7,992 (49.2)	332 (2.0)	1,385 (8.5)	921 (5.7)	794 (4.9)	986 (6.1)	392 (2.4)	505 (3.1)	2,931 (18.1)
	총계	20,174 (70.0)	732 (2.5)	1,385 (4.8)	921 (3.2)	794 (2.8)	986 (3.4)	392 (1.4)	505 (1.8)	2,931 (10.2)
2022	유상	12,734 (95.5)	600 (4.5)	-	-	-	-	-	-	
	무상	8,653 (45.9)	590 (3.1)	1,572 (8.3)	1,184 (6.3)	811 (4.3)	934 (5.0)	420 (2.2)	215 (1.1)	4,486 (23.8)
	총계	21,387 (66.4)	1,190 (3.7)	1,572 (4.9)	1,184 (3.7)	811 (2.5)	934 (2.9)	420 (1.3)	215 (0.7)	4,486 (13.9)
2023	유상	14,001 (93.2)	1,029 (6.8)	-	-	-	-	-	-	
	무상	10,703 (49.3)	4,245 (19.6)	1,589 (7.3)	1,059 (4.9)	873 (4.0)	854 (3.9)	452 (2.1)	72 (0.3)	1,862 (8.6)
	총계	24,704 (67.2)	5,274 (14.4)	1,589 (4.3)	1,059 (2.9)	873 (2.4)	854 (2.3)	452 (1.2)	72 (0.2)	1,862 (5.1)

자료: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2023. 2. 9.)

#### 4) 코로나 19 대응 지원 전략 프로그램<sup>7)</sup>

‘Save Lives, Safe Livelihoods’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 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이다. G20 정

7) 한국국제협력단 ABC 프로그램 참조([https://www.koica.go.kr/koica\\_kr/8146/subview.do](https://www.koica.go.kr/koica_kr/8146/subview.do))



상회의 코로나 19 공동선언문 이행과 한국의 경험·기술과 개도국 수요를 연계한 상생의 개발협력, 감염병 위기 대응 범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개발협력 전문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Response (2020~2021) 기간에는 키트 지원, 감염병 예방교육 및 역량강화, 온라인 기반 세계시민연대 강화, 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이 주를 이루었다면, Resilience(2022~2024) 기간인 현재는 취약계층 포괄적 복원력 강화로 보건, 경제, 사회 회복을 지원하고, 개도국 거버넌스 및 정책 역량 강화, 다분야 합동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감염병 대응 글로벌 플랫폼 활성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 5) ODA 중점협력국의 조정

기존 제2기 중점협력국 운용기간(2016~2020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24개국에서 원조 실적이 저조하고 협력 전망이 낮은 2개국을 제외, 협력 잠재력을 고려한 5개국을 추가한 27개국으로 조정되었다. 3기 중점협력국은 아시아 12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으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도가 포함되었으며, 아프리카 지역(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에서는 모잠비크가 제외되고 이집트가 추가되었다.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는 기존 2개국에 2개국이 추가되었으며,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는 제2기 중점협력국과 동일하게 4개국이 재선정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5개 추가국인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대륙별 선택과 집중 ODA를 추진하여 전략적으로 대륙별 거점국가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제외된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 2개국도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정책자문,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시됨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상 ODA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 6)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공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개발협력, 인적자원 개발·교류, 문화·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이 합

의하는 사업 지원이다. 1989년에 한-아세안 간 대화 체제가 구성되고, 1990년 연간 100만 달러 규모로 출범하였다. 한-아세안 협력이 격상됨에 따라 기금의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1년에는 176.33억 원, 2022년 180.96억 원, 2023년에는 261.69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약 12,400만 달러를 공여하였으며, 약 423건 사업을 지원하였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21-2025)는 △ 공중 보건, △ 교육 및 훈련, △ 문화 및 관광, △ 경제적 회복력, △ 환경, 안전 및 평화라는 5가지 우선순위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외 프레임워크의 목적에 부합하며 한-아세안 협력에 유의미한 경우 다른 부문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도 아세안과 한국이 제안할 수 있다.

공중 보건의 경우,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방역 지원, 의료 역량 협력 강화, 지역 공중보건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미래 공중 보건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집중한다. 교육 및 훈련의 경우, 포괄적인 양질의 교육을 촉진하며,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과 같은 분야에서 고등 교육 및 평생 학습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인간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아세안 교육 교류를 확대하여 원격 학습 시스템 개선 및 혁신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 문화 및 관광은 양방향 문화교류 확대, 문화 및 창조 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 및 스포츠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 강화와 가상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회복력을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 전자 정부 및 전자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며, 중소기업 및 인프라 개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환경, 안전 및 평화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발자국 감축을 위한 협력 강화 해양, 생물다양성,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 확대, 재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며 나아가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한-아세안 인적 및 문화 교류 증진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아세안 프론티어 포럼: 한-아세안 청년공동체 이니셔티브’,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한-아세안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모빌리티 프로그램’, ‘아세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디지털유산 콘텐츠 개발’ 등이 있다.

## 다. 윤석열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과제

윤석열 정부는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세계 10위권 경제위상에 걸맞은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력을 추진하도록 강조하였다.<sup>8)</sup>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으로 전략적 ODA 추진,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추진, 선순환 ODA 조성, 추진방식 선진화를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5〉 윤석열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기본 방향	내용
전략적 ODA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10 경제위상에 걸맞은 세계 10위권 ODA 국가 도약</li> <l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권, 평화 등 보편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협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 그린, 보건·의료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가치 높은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ODA 정책·사업 추진, 대외전략과 ODA 간 시너지 효과 제고, ODA를 정상외교 의제로 외교 성과 창출 등 ODA와 대외전략 간 연계 강화</li> </ul>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민간, 양자-다자, 유상-무상 간 원조 연계를 강화한 패키지 사업을 통한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 사업 규모 대형화를 통한 원조 성과 배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국 수요 및 여건 고려, 한국의 발전 경험 활용,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인 임팩트를 주는 지원을 통해 ‘한국형 ODA 브랜드’ 정립</li> </ul>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추진과정에서 민간 역할 확대, 민간 효율성 적극 활용, 전문가 및 기업 역량 강화 지원, 불합리한 규제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와의 협력 공고화, ODA 홍보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국민 인식 제고</li> </ul>
추진방식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디지털 플랫폼 통합 및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 성과관리 및 평가 실효성 강화, ODA 현장성·전문성 강화 및 기관 역량 제고를 통한 ODA 품질 향상</li> </ul>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2. 6. 29.

한국 정부는 2023년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으로 1. 인도주의 가치 실현, 2. 개도국 혁신과 개발 지원, 3. 지구촌 공존과 상호 번영, 4. 파트너십 고도화, 5. 이행기반 공고화를 설정하였다.<sup>9)</sup> 이를 위해 2023년 ODA 확정액 규모를 4조 7,771억 원으로 하여 총 45개 기관 1,84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ODA 규모로는 2022년 3조 9,383억 원 대비 8,388억 원(21.3%)이 증가한 것이고, 참여기관으로는 2022년 44개 기관 대비 1곳이 증가했고 사업 수는 2022년 1,756 대비 84개가 증가하였다.<sup>10)</sup>

8) 관계부처 협동(2023),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2023. 2. 9., p. 9.

9) 관계부처 협동(2023),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2023. 2. 9.

2024년도 ODA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650억 원을 증액하여 글로벌 현안 대응과 재난 분쟁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 국제기구 기여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식량·보건 등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을 3배로 증액하여 우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주도하고, 분쟁과 재난·재해 등 긴급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수원국이 요구하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대형 패키지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수원국의 실질적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인도·태평양 전략과 부산 이니셔티브 등 대외전략과 연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상생의 국익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넷째, ODA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여 국가로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수원국의 실질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수원국 국민들의 공감대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ODA 규모가 대폭 확보되는 만큼 사업 집행 상황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 2. 문화 분야 ODA 현황과 문제점

### 가. 국내 문화 ODA 현황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분야 ODA는 <전략 2. 상생하는 ODA>에 명시되어 있다. 경제·사회 발전기반 조성 가운데 개도국 사회인프라 지원을 위한 ‘개도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위해 수원국 문화콘텐츠를 토대로 현지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추진’이 포함되었다. 그 예로는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광종합교육센터 건립, 관련 정책 자문의 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전략 3. 혁신적 ODA>의 새로운 ODA 콘텐츠를 위해 개발 수원국과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기술 및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등 개발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0) 관계부처 협동(2023),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확정액 기준] 2023. 2. 9., p. 10.

문화정책 기본방향을 담고 있는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문화매력국가’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 추진전략은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원 분야를 콘텐츠, 체육 등으로 확대하고 국제사회 문화, 사회적 빈곤 해소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재외 한국문화원을 신설하고 문화 관련 해외거점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코리아센터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에 세종학당 신규 지정 및 메타버스 세종학당 신규 운영과 같이 세계시민과 연대하는 K-컬처의 확대를 계획에 담았다. 이러한 문화정책 방향은 지원 분야의 확대뿐만 아니라, 연계·협력 가능한 거점 기관의 확대로 문화 ODA 확대 및 다양화에 기반이 된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 격차 감소를 위해 수립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에도 문화 ODA의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ODA 대상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세계적 양극화를 회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차원에서 K-콘텐츠, K-관광 등을 브랜드화하여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화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일치하며, 사업을 확대·발굴하여 한국형 문화 ODA 모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ODA 규모는 중 무상원조는 2022년 58.6%에서 2023년 기준 63.5%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문화 분야 ODA 사업의 확대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 분야 ODA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에서도 문화, 체육, 관광 분야 ODA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한 컨설팅 및 지식 공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에 문화 분야 ODA는 교육 및 연수사업이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고 대부분이 무상 프로젝트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ODA 사업은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연수사업 위주이다. 문화재청의 사업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개발·구축 등 프로젝트 위주이며, 코이카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및 연수사업·기자재 지원 등 복합적 사업을 다수 수행한다.

〈표 2-6〉 한국 문화 분야 ODA 규모(2015년~2022년)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ODA (유·무상)	23,782	24,394	26,359	30,482	32,003	34,270	33,611	36,550	42,289
문체부 ODA (무상)	119	131	116	119.7	135.2	143.6	78.7	120.6	138.4
전체 대비 문체부 ODA 비율	0.5%	0.54%	0.44%	0.39%	0.42%	0.42%	0.23%	0.32%	0.33%
문화재청 ODA (무상)	24.4	23	31.3	31.3	22.9	20.1	27.1	36.0	47.0
전체 대비 문화재청 ODA 비율	0.1%	0.1%	0.11%	0.1%	0.07%	0.05%	0.08%	0.09%	0.11%
문화 ODA	143.4	154	147.3	151	158.1	163.7	105.8	156.6	185.4
전체 대비 문화 ODA 비율	0.60%	0.64%	0.55%	0.49%	0.49%	0.47%	0.31%	0.41%	0.44%

자료: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 나. 주요 기관별 문화 ODA 사업 현황

###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 현황

####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ODA 사업의 수는 2023년 기준 20개이며, 예산은 양자간 134.9억, 다자간 협력사업 3.5억으로 총 138.4억 원 규모이다.

〈표 2-7〉 문화체육관광부 ODA 총예산

(단위: 억 원)

ODA 시행 기관	2022			2023		
	양자	다자	합계	양자	다자	합계
문화체육관광부	117.2	3.4	120.6	134.9	3.5	138.4

자료: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ODA 사업의 추진 방향은 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 보편적 문화예술발전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조성, 국제기구 협력이다.<sup>11)</sup> 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이후 개도국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확장 기조에 편승할 수 있도록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인재양성센터 구축, 통합디지털문화 자원관리시스템 개발 등 지속가능한 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보편적 문화예술발전 기반 구축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역량 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전문가 및 행정가를 대상으로 한 연수, 문화자원 사업화 기획 역량 제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청년예술가 대상 장학금 지원, 도서관이나 교육 연구원 등의 시설 건립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조성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관광지도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 및 관광개발 컨설팅을 수행하고,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 등 코로나 19 이후 침체된 개발도상국의 관광 개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분담금기금 납부(IFCD, UNWTO), 신탁기금 출연(WIPO, UNESCO)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 연수, 포럼과 같은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키르기스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지원(2022-2025)’, ‘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지원(2022-2025)’을 진행하고 있다. 키르기스공화국, 라오스에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아카이빙, 문화콘텐츠 개발·기자재 지원, 문화자원 아카이빙 전문가 대상 역량강화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키르기스공화국 사업의 협력 기관은 문화정보체육청년정책부, 국립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 유목민 문명센터이며, 라오스 사업의 협력 기관은 정보문화관광부,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루앙프라방왕실박물관이다. 문화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개발이 완료된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을 모바일, 키오스크 버전의 개발을 포함하여 고도화한다. 박물관,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아카이빙을 지원하는 운영·장비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문화자원 기반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자원 관련 전문가, 정부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협력국 관계자 대상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11) 관계부처합동(2023),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p. 205.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문화 ODA 활성화로 문화를 통한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가운데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갖는 ‘문화동반자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문화 ODA 사업이다. 문화동반자사업은 ODA 수원국 가운데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인, 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자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한다. 지원 참여자의 인적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전문가 과정 연수, 문화행정가 과정 연수 실시, 문화전문가 및 문화행정가 초청연수자 대상 ‘문화동반자의 날(포럼)’ 개최, 온라인 동창회 개최, 온라인 웹진 발간 등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다. 주요 중점 분야는 공연예술, 대중음악, 도서출판, 시각예술, 문화상품 등이다. 2023년 연수 분야 및 주제는 중점 분야 가운데 △ 공연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 대중음악 프로덕션 역량 강화가 총 6주(온라인 2주, 초청 4주)로 진행되며, 일반 분야에서는 △ 아동도서 기획 및 제작 역량 강화, △ 시각예술의 디지털 영상화 기법 습득, △ 문화상품개발 및 유통 역량 강화가 총 5주(온라인 2주, 초청 3주)로 진행된다.<sup>12)</sup>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AMA+(Art Major Asian plus, 해외 우수 예술 인재 장학사업)를 2005년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AMA+ 장학사업은 국제교류 및 국가 간 친선관계 도모, 개발도상국 학생 대상 예술가 양성의 목적을 포함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는 한국 관광 발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전수하고 개발도상국 인력역량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연수사업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공공도서관 조성·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문화·정보 접근성 강화 및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베트남 하노이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기자재 및 콘텐츠 지원, 현지 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홍보 및 사업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sup>13)</sup>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캄보디아 예술교육연구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명은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예술교육연구원 건립(ODA)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캄보디아의 예술교육 거점을 구축하고 현지 예술교육의 역량강화를 통해 예술교육 활성화와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예술

12) 2023 문화동반자 사업 문화전문가 연수 - 운영기관 공모 요강(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600](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600) 참조)

13) 2022년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899](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6899) 참조)



교육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 및 수혜자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예술교육 공간을 건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사업은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 내 예술교육 전문기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캄보디아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예술교육연구원을 건립한다. 교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공연교육장, 공연지원 시설을 학계와 연계하여 운영하여 사업이 종료되어도 지속적으로 예술교육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2021년~2023년)

(단위: 억 원)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 사업 기간	2021	2022	2023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문화동반자 사업 (문화전문가_문화산업 과정)	연수 사업	신규	4.08	3.79	4.51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문화동반자 사업(문화행정가) 연수사업	연수 사업	신규	2.51	2.30	2.58
문화예술교육 ODA	문화예술교육 ODA(베트남)	연수 사업	신규	1.92	1.92	-
문화예술교육 ODA	문화예술교육 ODA: 인도네시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연수 사업	신규	1.92	1.92	-
문화예술교육 ODA	문화예술교육(ODA)(몽골)	연수 사업	신규	-	-	1.92
문화예술교육 ODA	문화예술교육(ODA)(필리핀)	연수 사업	신규	-	-	1.92
문화예술교육 ODA	문화예술교육(ODA) (인도네시아)	연수 사업	신규	-	-	1.92
해외예술계인력양성	AMA+ 장학사업	장학 지원	신규	10.00	10.00	10.61
개발도상국관광 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개발도상국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연수 사업	신규	10.68	10.68	12.34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	몽골 관광종합교육센터 건립 및 인적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2020~ 2022	19.89	11.94	-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	스리랑카 중부 및 동북부 지역사회 기반 관광 육성사업	프로젝트	2021~ 2022	4.00	17.72	-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베트남)	프로젝트	2021~ 2022	5.94	17.96	-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2022~ 2024	-	21.42	45.10
아시아문화역량강화 지원(ODA)	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2022~ 2025	-	4.00	8.00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 사업 기간	2021	2022	2023
아시아문화역량강화 지원(ODA)	키르기스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2022~2025	-	4.00	8.00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2023~2027	-	-	7.30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ODA)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사업	프로젝트	2023~2026	-	-	8.05
해의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해의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몽골)	프로젝트	2023~2025	-	-	8.25
WIPO 신탁기금 지원	WIPO 신탁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규	9.58	9.58	9.58
유네스코 협력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기타	2021~2022	4.81	0.54	-
유네스코 협력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기타	2023~2024	-	-	4.81
유네스코 협력	유네스코 문화다양성기금(IFCD) 납부	-	2021~	0.54	0.54	0.63
관광외교 역량강화	세계관광기구(UNWTO) 분담금 납부	-	1975~	2.85	2.85	2.85

자료: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 유형

문화체육관광부의 ODA 사업은 주로 무상 프로젝트 또는 기술협력의 형식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프로젝트 사업에 소요되며(총예산의 71.6%), 연수 사업(18.2%)과 장학 지원(7.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2-9〉 문화체육관광부 ODA 유형별 예산

(단위: 억 원, %)

구분	계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기술협력				민관 협력 (NGO, 기업)	행정 비용	기타	순수 다자
					연수 사업	장학 지원	봉사단 파견	기타 기술 협력				
2022년	120.6	86.6	-	-	20.6	10.0	-	-	-	-	-	3.4
	100	71.8	-	-	17.1	8.3	-	-	-	-	-	2.8
2023년	138.4	99.1	-	-	25.2	10.6	-	-	-	-	-	3.5
	100	71.6	-	-	18.2	7.7	-	-	-	-	-	2.5

자료: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프로젝트성 사업은 ①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②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지원 ③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 ④ 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 ⑤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⑥ WIPO 신탁기금, 유네스코신탁기금 지원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된다. 그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에서는 몽골 관광종합 교육센터 건립, 스리랑카 지역의 관광개발 사업,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등 시설이나 관광지 개발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연수 사업은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 사업, 문화동반자 사업,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등이 포함되며, 장학 지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해외 예술계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AMA+(Art Major Asian Plus Scholarship) 사업이 대표적이다.

### ③ KPSC 사업 유형 및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기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사업’(Korean Partnership Program for Self-Sustaining Development based on Culture, 약칭 KPSC)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원국 문화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의 문화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문화 ODA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사업이며, 매년 수원국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2023~2025년 실시한 수요 조사를 국가별로 분석하면 KPSC 사업 신청 건수는 태국과 페루가 7건으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5건), 필리핀(4건) 타지키스탄(4건) 순이며, 그 외 국가들은 3년간 평균 1~2건의 사업을 신청하였다.

2023~2025년 3년간 신청한 총 55개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은 추진 예상 기간이 3년(34개 사업)이지만, 6개월, 2년, 4년, 5년 사업에 대한 수요도 일부 있다. 예산의 범위는 14만 달러(한화 약 1억 7천만 원)에서 800만 달러(100억 원)까지 다양하나 전체 사업 평균은 약 350만 달러(44억 원) 수준이다.

KPSC의 55개 사업을 유형별로(정책·기술 자문,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역량강화) 살펴보면 주로 복수의 유형들이 연계된 형태이며 ‘인적자원 역량강화’ 유형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다(51개 사업).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업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사업 유형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당 사업 유형은 공간 설계 및 관련 장비 등의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뿐 아니라, 기술적 시스템이나 콘텐츠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도 의미한다. KPSC의 공간 구축 및 기관 설립 사

업의 경우에도 공간을 직접 짓는 사업은 매우 소수이며 공여국에서 제공하는 공간에 설계나 설비 구축 등을 담당하는 형식이다.

KPSC 후보 사업들의 유형별 조합을 분석해 보면 '정책·기술 자문+인프라 구축+역량 강화' 유형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23개 사업), '인프라 구축+역량 강화' 사업(19개 사업), '정책자문+역량강화'(5개 사업), '역량강화'(4개 사업), '정책자문+인프라 구축'(2개 사업), '인프라 구축'(2개 사업) 순으로 수여국의 선호가 높게 나타난다.

〈표 2-10〉 국가별 KPSC 사업 수요 조사 현황(3개년)<sup>14)</sup>

(단위: 만 달러)

수원국	사업명	기간	예산	사업 유형		
				정책 자문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가나	예술가 연수 및 문화예술 상품 마케팅 전용 문화마을/허브 조성	3년	450	○	○	○
	아하포 및 사버나 지역 마을 구축 사업	3년	400		○	○
나이지리아	패션·음악·예술·미디어 연수·진흥기관 설립	3년	700		○	○
도미니카 공화국	소외 지역 대상 문화센터 구축	4년	500	○	○	○
	도미니카 공화국유산 보관 시스템 이행	3년	200		○	
동티모르	한-동티모르 문화원 건립	2년	700	○	○	○
르완다	르완다 문화·창조 산업 육성	4년	500	○	○	○
마셜제도	문화마을/관광센터 건립	3년	300		○	○
	K-12 교육 제도 내 문화예술 내용 강화	3년	400	○	○	○
말레이시아	창작공연예술산업 실무자 훈련 센터 구축	3년	500	○	○	○
	박물관 소장품 보존센터 구축	3년	300	○	○	
	주요 유적지 보존관리 계획	3년	190	○		○
	유산 해석 교육센터	3년	200			○
	국가공예연구원 공예 전문기관 구축	4년	500	○	○	○
몽골	문화창의허브(센터) 건립	3년	610	○	○	○
방글라데시	국립박물관 산하 문화유산 보존기관 설립	3년	500		○	○
브라질	디지털 문화 연수 센터 건립	4년	800		○	○
에티오피아	창의예술 상품·서비스 전용 국립 판매 단지	6년	500	○	○	○
	국립 창의산업 재화와 서비스 센터 건립	4년	800	○	○	○
요르단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및 문화 역량 증진	1년	14			○

14) 주1: 동일 국가에서 연속으로 같은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한 사업만 기입함.  
 주2: 사업 유형은 수요 조사서에 기입된 유형 및 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표에서는 2. 지원시스템 구축과 3. 인프라구축을 '인프라 구축'으로 통합하여 구분함.  
 자료: KPSC 수요 조사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수원국	사업명	기간	예산	사업 유형		
				정책 자문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인도네시아	문화계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	4년	500	○	○	○
잠비아	국립예술발전센터 건립	3년	400		○	○
조지아	중요 문화재 교육·복원 자원 센터	3년	450	○	○	○
카메룬	국립문화예술기관 건립	2년	320		○	○
	카메룬 문화센터 보수	2년	160		○	○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콘셉트의 코·커 문화마을 조성계획	2년	50	○		○
	캄보디아 내 공연예술 발전	5년	402	○	○	○
콜롬비아	국제 오렌지 경제 학교	3년	170	○		○
	콜롬비아 시청각 및 디지털 콘텐츠 증진 보급	2년	338	○	○	○
키르기스스탄	지방 인근 관광·유원 협력기관 설립	3년	600		○	○
타지키스탄	혁신연수센터 “동력과학 연구소” 설립	3년	120		○	○
	타지키스탄 외곽 산간 지대 인구 현황 및 문화 동향 연구	3년	37		○	○
	문화 공연 진흥을 위한 설비 현대화 지원	2년	120	○	○	○
탄자니아	문화 테마 마을(문화의 집)	2년	800		○	
태국	방콕 Rama 9 개발 예비 조사	-	-	○		○
	국제계임문화 교류보급센터	-	-		○	○
	태국 파놈 수린 난파선 연구	3년	300			○
	방콕국립미술관 내 실감디지털갤러리 건립	3년	100		○	○
	실감 예술, 문화, 인종 집단 전시용 박물관	3년	500		○	○
	청년층 영화 문화력 증진 사업	3년	275	○	○	○
	청년층 내 영화 문화 구축	3년	100	○	○	
터키	터키 내 스포츠 관광 진흥	2년	500	○	○	○
	한-터키 청년 과학기술 센터	3년	95	○		○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립대학교 무용예술과 건물 건립	2년	218		○	○
페루	문화재 소유권 반환청 설치 및 인적역량 강화	3년	300		○	○
	국가 문화경관 관리·보존 시스템	3년	200	○	○	○
	유적지 호텔·정보센터 설계·건립·장비 구축	2년	130	○	○	○
	공공정책 설계를 위한 사회혁신 실험실 구축	3년	200	○	○	○
	문화 촉진자 등록부 시행 및 교육	3년	100			○
	공공서비스 토착어 통번역 프로그램 지원	3년	150		○	○
	문화비디오도서관 강화	3년	300		○	○
필리핀	영화진흥교육센터 건립사업	3년	600		○	○
	메트로폴리탄극장 미디어센터 구축	3년	300	○	○	○
	필리핀 문화재 등록청(PRECUP) 강화	3년	300	○	○	○
	필리핀 문화재 등록부 발간	3년	300	○	○	○
사업 유형별 총계				30	46	51
총계				55개 사업		

KPSC의 사업들의 각 유형(정책기술 자문,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사업)에 속하는 사업들의 주제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KPSC 수여국이 원하는 정책 및 기술 자문 사업'의 주제들은 문화·창조 산업 진흥 전략, 예술 및 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지식, IT 및 혁신 기술 관련 지식, 문화유산 및 관광 관리 노하우, 정책자문가의 파견 및 워크숍 등이다.

〈표 2-11〉 KPSC 정책·기술 자문 사업의 주제 및 내용<sup>15)</sup>

사업 주제	사업 내용
문화 및 창조 산업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의 문화 및 창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자문</li> <li>• 문화 인프라 설계 및 운영 전문가 파견</li> <li>• 문화예술 교육계획 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li> <li>• 창의산업, 콘텐츠, 멀티미디어 허브 관련 연구 및 경험 공유</li> <li>• 문화 센터 관련 계획 수립</li> </ul>
예술 및 문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드라마, 웹툰 교육훈련 및 제작 전문가 파견</li> <li>• 공연 및 시각 예술 전문가 파견</li> <li>• 학교 내 영화제작 커리큘럼 신설 정책 공유 및 전문가 파견</li> </ul>
문화 관련 IT 및 혁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학습 플랫폼 설계 및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li> <li>• 시청각 및 디지털 콘텐츠 관련 교육 및 사회적 활용 전략 설계</li> <li>• 혁신 기술 지원 및 기술 자문</li> <li>• 향후 5년간의 멀티미디어 및 전시 기술 발전 계획 지원</li> </ul>
문화유산 및 관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유적지 관리 계획 및 지침 공유</li> <li>• 국가 문화경관 관리 및 보존 시스템 설계 및 운영 지원</li> <li>• 문화유산 데이터 관리 정책 및 기술</li> <li>• 스포츠관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기술 자문</li> </ul>
정책자문가 파견 및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자문관 파견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육훈련</li> <li>• 정책 자문관 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전문지식 공유</li> <li>• 경제 발전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 자문</li> </ul>

〈표 2-12〉 KPSC 인프라 구축 사업의 주제 및 내용<sup>16)</sup>

사업 주제	사업 내용
문화 및 창조 산업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한 설비를 갖춘 문화·창작 콘텐츠 개발센터 건립</li> <li>• 문화 부문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홍보를 위한 웹저장소 및 SNS 확충</li> <li>• 미디어센터 구축을 위한 센터 설계 및 설비 지원</li> <li>• 국제게임문화 교류보급센터 건립 및 DB 운영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li> </ul>
문화예술 향유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공연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li> <li>• 기존 극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물 설계 및 관련 장비 지원</li> <li>• 외부 극장 건물 건축 지원</li> </ul>

15) 자료: KPSC 수요조사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16) 자료: KPSC 수요조사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사업 주제	사업 내용
문화재 보존 기관 및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문화경관 관리·보존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디자인 센터 구축</li> <li>• 문화유산 보존기관 설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장비 제공</li> <li>• 문화재 등록부 포털 구축 및 개발</li> </ul>
교육 및 연수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문화 연수 센터 건립을 위한 설비 지원</li> <li>• 패션, 음악, 예술, 미디어 지원 센터 구축</li> <li>• 창작 공연예술산업 실무자 교육훈련 허브 센터 설립 및 장비 제공</li> <li>• 필리핀 영화 제작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영화진흥교육센터 조성</li> </ul>
문화 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 마을 구축</li> <li>• 문화 테마 마을 건설</li> </ul>

〈표 2-13〉 KPSC 역량 강화 사업의 주제 및 내용<sup>17)</sup>

사업 주제	사업 내용
문화예술 및 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 산업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훈련 및 워크숍</li> <li>• 문화·예술 단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신인 활동가, 전문 경영인, 기술자 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조직 개발 워크숍</li> <li>• 영화, 드라마, 웹툰, 음향(라디오 프로그램) 등 미디어 및 문화 분야의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li> </ul>
문화유산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등의 현장 발굴/수집 활동과 전시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li> <li>• 문화 경관 관리 시스템 분야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역량 강화</li> <li>• 문화유산 해석 전문가와의 경험 공유 등</li> </ul>
기술 및 지식 교류와 전문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문화 관련 성공적인 경험과 정책 공유를 통한 연수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li> <li>• 전문가 자문, 기술 자문을 통한 관련 분야 필수 정보 및 지식 공유</li> </ul>
지역주민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영화제작 교육 능력 개발 및 지역 주민 대상 연수 지원</li> <li>• 공동체 개발을 위한 직원, 마을지도자, 공동체 일원 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li> </ul>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및 시설, 설비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는 문화 산업을 위한 플랫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 문화재 관리와 보존을 위한 기관, 문화예술 산업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연수센터, 문화 마을 조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역량강화 사업은 주로 인프라 구축 시 함께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상별로 문화예술 관련 창작자 및 실무자, 문화유산 관리 분야, 기술 관련 분야,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17) 자료: KPSC 수요조사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 2) 문화재청의 문화 ODA 사업 현황

### ① 문화재청의 문화 ODA 사업 개요

문화재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문화재청 주관, 한국문화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문화유산 ODA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문화 분야 ODA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21년 27억 원, 2022년 36억 원, 2023년 47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OECD DAC 공여국의 문화 ODA 규모 수준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호와 국제협력 연대 강화 및 외교 지평 확대 측면에서 문화유산 ODA의 양적·질적 성장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유산 ODA는 정부 기조 및 전략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아시아 지역 집중을 유지하되, CIS·아프리카·중남미 국가로 확대를 위해 라오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집트 등 국가에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DR콩고, 페루에는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표 2-14〉 문화재청 ODA 총예산

(단위: 억 원)

ODA 시행 기관	2022			2023		
	양자	다자	합계	양자	다자	합계
문화재청	36.0	-	36.0	47.0	-	47.0

자료: 2022,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사업의 유형은 프로젝트, 기타기술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세계유산보존연맹(IUCN) 의무분담금 등 문화유산 분야 국제기구에 분담금과 신탁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 ODA 사업은 주로 조사연구, 시설 리모델링 또는 구축,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전문가 역량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등이 연계된 복합 ODA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문화 ODA 사업은 11개로 주로 협력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개발·구축 등 프로젝트 위주 사업들을 진행한다.

2023년 문화재청의 ODA 사업 추진 방향은 양적 성장, 글로벌 확대, 민간부문 협력, 국제기구 협력, 성과관리이다. 문화재청은 2022년 0.09%이던 문화유산 ODA 사업의 규모를 OECD DAC 공여국의 문화 ODA 수준(0.21%)으로 확대하여 양적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 아시아 위주의 문화유산 ODA 사업을 아프리카·중남미 등



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복원 및 디지털 헤리티지센터 구축, DR 콩고 신규사업 발굴 현지조사, 페루 신규사업 발굴 현지조사, 키르기스스탄 전통공예기술 디지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문화유산 IT 기업과 같은 민간 기관과 연계한 시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NESCO 한국위원회 및 아태무형유산센터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소멸위험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유산 ODA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 ② 문화재청의 문화 ODA 사업 수행 유형

2023년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문화 ODA 사업은 주로 문화유산과 관련한 프로젝트와 기술 협력 사업이다.

〈표 2-15〉 문화재청 ODA 유형별 예산

(단위: 억 원, %)

구분	계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기술협력				민관 협력 (NGO, 기업)	행정 비용	기타	순수 다자
					연수 사업	장학 지원	봉사단 파견	기타 기술 협력				
2022년	36.0	34.0	-	-	-	-	-	0.8	-	-	1.2	-
	100	34.9	-	-	-	-	-	2.2	-	-	3.2	-
2023년	47.0	43.8	-	-	-	-	-	1.8	-	-	1.4	-
	100	93.2	-	-	-	-	-	3.8	-	-	3.0	-

자료: 2022년,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표 2-16〉 2023 문화재청 추진 사업 유형별 목록

(단위: 억 원)

구분	내역 사업명	총예산	2023년 예산	신규 계속	기간	구분 (양·다자)
프로 젝트	라오스 세계유산 왓푸-홍닝시다 복원 및 보존 자립역량 강화 사업	59.5	12.32	계속	2021~2025	양자 무상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 육성과 관광자원 개발정책 지원 사업	48	11	계속	2021~2025	양자 무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권 문화관광 자원 개발 역량강화 사업	44	10	계속	2022~2026	양자 무상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역량강화	92.4	6	신규	2023~2027	양자 무상

구분	내역 사업명	총예산	2023년 예산	신규 계속	기간	구분 (양·다자)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	84	2.02	신규	2023~2027	양자 무상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 및 디지털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36	2.5	신규	2023~2026	양자 무상
기타 기술 협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과소등재국 대상 등재 지원 워크숍 개최	0.8	0.8	신규	2023	양자 무상
	신규사업 개발 및 예비 타당성 조사	1	1	계속	2023~	양자 무상
기타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	0.65	계속	1988~	다자성 양자 (무상)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	0.65	계속	2005~	다자성 양자 (무상)
	세계유산보존연맹(IUCN) 의무분담금	-	0.11	계속	2009~	다자성 양자 (무상)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문화재청의 프로젝트성 사업은 ① 협력국의 세계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 지원 ② 문화유산 개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협력국 세계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 지원 사업’에서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개발이나 산업화를 추진하며, 문화유산 소장을 위한 센터 구축 등을 지원한다. 역량개발 사업은 주로 무형유산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역량 혹은 세계기록 보존 관리 역량강화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개발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재청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국제위상을 제고하고 수원국인 이집트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집트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 8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약 2억 원),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 사업(약 6억 원)으로 나뉜다.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센터 조성 계획과 유물관리 물품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개선 등이 수행되며,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관광자원 3D 스캔, 스마트 전시공간 설계 및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전문가 대상 역량강화가 진행된다.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재청과 함께 2013년 라오스 흥남시다 사원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했으나 자체적인 선행연구 자료가 거의 없어, 라오

스 흉남시다 유적 복원을 위해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등 융복합 조사연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고고학 조사를 시작으로 역사민속, 미술사, 건축, 보존환경 등의 고증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지반, 물리탐사, 지반, 출토유물 등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프레이피투 사원 복원정비 사업(2015~2019)’이 1차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후속 사업으로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프레이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 사업(2019~2023)’을 진행했다.

현재 종료된 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박물관, 문화유산 기관 대상 ‘우즈베키스탄 박물관 역량강화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2020~2021)’ 사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사업은 중앙아시아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 사업으로,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박물관 보존처리 지원을 위해 박물관 내 보존처리실을 개·보수하였으며, 기본적 보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보존처리를 위한 실험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박물관 최초 현대식 실험실로 효과적인 보존처리를 위해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역량강화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국내 초청연수, 현지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가 능동적이고 자체적으로 유물을 보존처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증진 지원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철제, 청동, 도토기, 석재로 보존처리 매뉴얼을 영상 자료와 시청각 자료로 제작하여 매뉴얼을 시청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보존처리 과정을 담아 제작하였다.

중앙아시아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권 문화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2022~2026)’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내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사마르칸트 고고학연구소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보존관리센터를 구축하여 문화유적 조사, 연구, 보존 기관 기능하게 하고 향후 후속 연구자 양성 기관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고고학 분야의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유적을 발굴하고, 고고학 실무자 대상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추후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정비하여 문화유적의 연구, 보존 및 활용 사례로 구축할 예정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축적된 문화유적은 디지털 인벤토링을 실시하여 드론, 3D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3D로 기록·보존한다. 향후 문화유적 정보는 우즈베키스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관광자원 홍보 전시관에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관을 구축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그림 2-2] 우즈베키스탄 박물관 역량강화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자료: 한국문화재단(<https://www.chf.or.kr/cms/content/view/329>)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재청과 함께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으로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 육성과 관광자원개발 정책 지원 사업(2021~2025)'을 진행하고 있다.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유산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기자재 지원과 연구센터 구축을 복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보존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적 인벤토링과 문화유산 연구센터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를 진행하고 현장 조사, 현지 연수, 실무 역량을 위한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연수 형태로 인력양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표 2-17〉 문화재청 문화 ODA 사업(2021년~2023년)

(단위: 억 원)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 사업 기간	2021	2022	2023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라오스 세계유산 왓푸-홍닝시다 복원 및 보존 자립역량 강화사업	프로젝트	2021~2025	7.54	11.79	12.32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바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미얀마형 역사도시 모델 구축 사업	프로젝트	2021~2025	6.25	6.25	-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 육성과 관광자원 개발정책 지원 사업	프로젝트	2021~2025	7.00	9.00	11.00
중양아시아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	우즈베키스탄 박물관 역량강화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프로젝트	2020~2021	4.00	-	-
무형유산 보호지원	우즈베키스탄 여성 중심 무형유산 등재지원 워크숍	기타기술 협력	2019~2021	0.50	-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보호지원	협력국 세계기록유산 등재 역량강화 지원 워크숍(아태 지역)	기타기술 협력	2021	0.80	-	-
세계기록유산 분야 역량강화 지원 사업	세계기록유산 분야 역량강화 지원 사업	기타기술 협력	2022	-	0.80	-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 사업 기간	2021	2022	2023
중앙아시아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권 문화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2022~2026	-	7.00	10.00
이집트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원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역량강화	프로젝트	2023~2027	-	-	6.00
이집트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원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	프로젝트	2023~2027	-	-	2.02
세계기록유산 분야 역량강화 지원 사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과소등재국 대상 등재 지원 워크숍 개최	기타기술 협력	2023	-	-	0.80
무형유산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키르기스공화국 전통공예 기술 및 디지털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2023~2026-		-	2.50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기타)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기타	1988~계속	0.46	0.52	0.65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기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기타	2005~계속	0.46	0.52	0.65
세계유산보존연맹(IUCN) 의무분담금(기타)	세계유산보존연맹(IUCN) 의무분담금	기타	2009~계속	0.11	0.11	0.11

자료: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3)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문화 ODA 사업 현황

#### ① KOICA 문화 ODA 사업 개요

KOICA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 분야 ODA 사업을 프로젝트, 연수사업, 해외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사업 기간은 5년 이상이며, 사업 규모는 최소 680만 달러 이상, 1,300만 달러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기초처럼 사업 규모의 확대, 기간 확보, 연계 사업 등이 맞춰져 있다. 문화 ODA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페루, 탄자니아 외에도 아시아 비중점협력국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주요 진행되고 있는 문화 ODA 사업은 문화유적 복원 사업, 스포츠 역량강화 사업, 문화관광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국가문화유산 통합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역량강화 글로벌연수 사업이 있다. KOICA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협업

기관,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의, 다양하고 세밀한 사업 구성이 가능하다. 문화 ODA에서도 한국문화재단과 공공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해외봉사단파견 및 해당국 타 사업을 통해 연계되는 수원국 수원기관의 수요와 분담사항 체계화에 용이하다. 사업 세부 사항도 문화공간 건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을 통한 액션플랜 수립, 역량강화(워크숍, 초청연수 등)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KOICA 사업은 유형별로는 국별협력사업, 해외 봉사단, 글로벌 연수 등을 중심으로 2023년 기준 총 759개의 사업(1조 6백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KOICA에서 2022년 수행한 문화 관련 ODA 사업은 10개이며 예산 규모는 71만 달러(원화로 약 9억 원) 수준이다.<sup>18)</sup>

〈표 2-18〉 KOICA ODA 총예산

(단위: 억 원)

ODA 시행 기관	2022			2023		
	양자	다자	합계	양자	다자	합계
KOICA	10,347.6	-	<b>10,347.6</b>	10,617.6	-	<b>10,617.6</b>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b>9.1263</b>			

자료: 관계 부처 합동(2023),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및 ODA KOREA 홈페이지 통계 자료

## ② KOICA 문화 ODA 사업 수행 유형

KOICA가 추진 중인 문화 ODA 사업은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이 주를 이루고 문화 및 문화유산 산업 관련 기자재나 시스템 구축과 같은 프로젝트 지원 사업도 일부 진행하고 있다.

〈표 2-19〉 2022 KOICA 추진 사업 유형별 목록

(단위: 만 달러)

구분	내역 사업명	파견 인원 (명)	총 예산	기간	구분 (양·다자)
프로젝트	수단 태권도협회 태권도 기자재 지원 사업	-	15	2021~2022	양자 무상
	페루 국가문화유산 통합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25	2015~2023	양자 무상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키르기스스탄에 문화·레크리에이션 해외 봉사단 파견	1	7	2022~2022	양자 무상
	키르기스스탄에 문화 관련 WFK-청년 봉사단 파견	22	4	2022~2022	양자 무상
	인도네시아에 문화 관련 WFK-청년 봉사단 파견	20	4	2022~2022	양자 무상
	르완다에 문화·레크리에이션 관련 NGO 봉사단 파견	2	4	2022~2022	양자 무상

18) KOICA의 추진 사업 중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사업 분야를 파악한 규모이며, 2023년 데이터는 아직 산출되지 않아 2022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구분	내역 사업명	파견 인원 (명)	총 예산	기간	구분 (양·다자)
	라오스에 문화·레크리에이션 관련 해외 봉사단 파견	1	0.6	2022~2022	양자 무상
	파라과이에 문화·레크리에이션 관련 해외 봉사단 파견	1	6	2022~2022	양자 무상
	인도네시아에 문화·레크리에이션 WFK-청년 봉사단 파견	10	2	2022~2022	양자 무상
	베트남에 문화 관련 WFK-청년 봉사단 파견	11	2	2022~2022	양자 무상

자료: ODA KOREA 홈페이지 통계 데이터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KOICA는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하여 해외 봉사단, 청년 봉사단, 관련 NGO 봉사단 등을 파견한다. 프로젝트성 사업으로는 수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자 태권도 관련 장비를 지원하였다. 페루의 경우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기자재 지원과 관련 인력의 초청 연수를 추진하였다.

KOICA에서 사업 분야 기타(문화) 부문으로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프레이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2차 사업)’을 5년간(2019~2023년) 700만 달러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 대한 후속지원 사업으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도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1차 사업의 후속으로 보존복원기술 자립화의 증강과 수원국의 문화유산복원을 통한 관광산업 개발 의지가 높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사원 및 코끼리 테라스의 보존 및 복원 작업과 홍보관 운영, 실험 및 분석 장비 등 기자재 지원, 수원국의 현지 기술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외에도 국내 초청 연수 형태로 사업이 운영된다. 해당 사업은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복원 분야 국제적 위상의 상승과 복원 기술력 및 경험의 축적, 국내 연구진의 문화유산 연구 영역 확대 및 인력 진출이라는 우리 측 기대효과 역시 정책에도 부합한다.<sup>19)</sup>

문화 ODA 사업 가운데 ‘부탄 체육, 보건 및 가치 교육을 통한 청소년 개발 지원 사업’은 680만 달러 규모로 2022~2026년 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열악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 차원 센터 신축, 청소년 수요에 근거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전문 지도인력의 역량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부탄에서는 태권도가 인기 운동 이어서 국내 태권도 저변 확대, 태권도 보급을 통한 양국 이해와 교류 촉진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포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통합적 보건교육을

19) 한국국제협력단(2018. 11.)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프레이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2차 사업) 심층기획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및 재구성

구성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있어, 체육과 보건 분야가 적절히 연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현재 KOICA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ODA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은 1,300만 달러 규모로 2021~2025년 동안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수원국 후에시의 지원 요청과 베트남 계획투자국의 정식요청서(PCP)를 수신하여 착수되었다. SDGs 부합성과 연계는 목표 8(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11(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에 부합한다. 사업을 통해 후에시 전체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과 연계하여 문화관광 루트를 조성하고, 스마트 문화관광 분야의 기업과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후에시 관광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베트남이 도시시스템개발 마스터플랜 2025 비전 2050을 수립하였으며, 비전은 현대적 기술 및 사회 인프라의 구축, 삶의 질 및 환경의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문화관광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관광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적 스마트관광 제공에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이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역 스마트 문화관광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DB 구축, 복합문화공간 개발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을 건축하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디지털 박물관을 조성하는 데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현지 의견 수렴과 사업 홍보를 위한 현지 워크숍 및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관련 부처 고위급 및 실무자 대상 초청 연수 등 복합적 ODA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sup>21)</sup>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1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시 우즈베키스탄은 문화재 복원 및 문화재 디지털 데이터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지하였고, 한국은 문화재 보존 분야에서 지속 협력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NIPA 「2021년 글로벌SW신사업 수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디지털트윈 기반의 문화유산 플랫폼」 파일럿 사업의 연계 ODA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우즈베키

20) 한국국제협력단(2021. 2.) 부탄 체육, 보건 및 가치 교육을 통한 청소년개발 지원사업 집행계획 참조 및 재구성

21) 한국국제협력단(2020. 2.)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 사업 집행계획 참조 및 재구성



스탄 사마르칸트권 문화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사업(2022~2026)’과 일부 요소가 중복 또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업은 프로젝트형으로, DAC CRS 코드는 문화(16066), 관광 정책 및 행정(33210)에 부합한다. 이 사업은 ‘문화유산관리의 디지털화로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유지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관광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중장기 경제성장 동력 확보’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 관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및 인프라 개선, 문화재 관리 디지털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중장기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제시,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부하라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제작하여 유산 및 관광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 관람 서비스 제공, 기자재/소프트웨어 제공 및 역량강화를 통한 디지털 문화재 관리 분야 인재 육성 등 유·무상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sup>22)</sup>

글로벌 연수 사업은 ‘씨앗(CIAT: 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이라는 사업으로 브랜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을 위해 인적자원 역량강화 측면 지원과 더불어, 수원국이 자립적으로 자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역량 강화를 한다. 또한 조직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파트너십 강화와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연수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관광 분야 역량강화, 영화산업 역량강화, 청소년운동 및 활동 지도역량 강화,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기록물 관리 역량강화, 치유림 및 생태관광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2-20〉 KOICA 문화 ODA 사업(2021년~2023년)

(단위: 억 원)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 사업 기간	2021	2022	2023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프레이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 2차 사업 (2019-2023/700만 달러)	프로젝트	2019~2023	12.65	12.75	15.4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ODA)	동티모르 아동청소년 스포츠 역량강화 사업 (2020-2025/650만 달러)	프로젝트	2019~2024	14.00	16.99	19.00

22)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 사업 개요서 참조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 사업 기간	2021	2022	2023
베트남(ODA)	베트남 후에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 (2021~2025/1,300만 달러)	프로젝트	2021~2025	3.00	12.30	15.0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ODA)	부탄 스포츠, 보건 및 가치교육을 통한 청소년 개발 지원사업 (2022~2026/680만 달러)	프로젝트	2022~2026	-	0.50	3.05
페루(ODA)	페루 국가문화유산 통합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5~2023/800만 달러)	개발 컨설팅	2015~2021	8.54	5.44	5.75
글로벌 연수 (ODA)	온두라스 관광 분야 역량강화(2020~2022)	연수 사업	2020~2022	1.96	1.96	-
	부탄 영화산업 역량강화(2021~2023)	연수 사업	2021~2023	0.87	1.60	1.20
	청소년운동 및 활동 지도역량 강화(2019~2023)	연수 사업	2019~2023	1.96	1.71	1.47
	르완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2021~2023)	연수 사업	2021~2023	0.87	1.96	1.5
	인도네시아 기록물 관리 역량강화(삼각협력 사업) (2022~2024)	연수 사업	2022~2024	-	0.80	1.2
	인도네시아 치유림 및 생태관광 역량강화	연수 사업	2022~2024	0.87	0.80	1.20
	탄자니아 연극영화 산업 역량강화 (2023~2025)	연수 사업	2023~2025	-	-	0.8

자료: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KOICA 해외 봉사단은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문화교육, 체육교육, 관광, 음악교육, 미술교육, 사서 등의 파견 직종으로 다양한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 해외 봉사단의 경우 일부 봉사단원이 개인별 혹은 팀 형식, 현지 협업으로 현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022~2023년 진행된 현장 사업은 국가별로는 가나,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이집트 등이다. 주로 현장 사업을 진행하는 파견 직종의 해외 봉사단원은 체육교육,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컴퓨터교육(디자인) 등의 직종에 파견된 단원들이다.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체육장소 및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과 같이 체육장소 구축, 체육활동 지원 사업, ‘APF스쿨 태권도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수련관 구축사업’과 같은 구축사업, ‘한·방 수교 50주년 기념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및 한국어대회 개최’, ‘국립바탐방대학교 한누리 문화봉사활동’과 같은 문화 및 체험활동 사업, “볼리비아 스

포츠 교육의 개발과 실천” 및 “볼리비아의 특수체육교육지도방법”의 책 출판과 교육을 통한 현지 체육교사와 스포츠 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체육교육의 질적인 발전 도모’ 사업과 같은 출판 및 역량강화 사업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KOICA에서는 개발도상국 사회혁신 솔루션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 가운데 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2022년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탄자니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아프리카 예술가 발굴 및 NFT를 통한 작품 홍보를 하고, NFT를 통한 예술품 홍보 및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지역 문화 발전 도모 및 예술인의 부가가치 형성을 기대 효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 4) KSP의 문화 ODA 사업 현황

##### ① KSP 사업 개요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으로 한국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의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KSP 사업의 세부 섹터는 14개 분야(경제발전, 거시·금융정책, 산업과 무역정책, 과학과 기술, 국토개발, 농촌개발, 문화·체육·관광, 인적자원개발, 보건복지, 노동시장정책과 프로그램, 환경, 기타사회정책, 공적금융, 행정)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한 영역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이다. 역대 진행된 KSP 사업들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 세부 과제 사업은 8개 과제가 있으나, 2012년 도미니카 공화국 대상 콘텐츠산업육성방안 자문 과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광 분야 관련 과제였다.

〈표 2-2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 목록

구분	전체사업명	문화·체육·관광분야 세부과제	대상국	사업수행기관	연도
1	201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가봉의 관광부문 발전방안	가봉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1
2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적도기니 관광부문 발전방안	적도기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1
3	2012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도미니카공화국의 콘텐츠산업 육성방안	도미니카공화국	한국수출입은행	2012

구분	전체사업명	문화·체육·관광분야 세부과제	대상국	사업수행기관	연도
4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거버넌스 체계 구축: '가봉 방문의 해' 사업을 중심으로	가봉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2
5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적도기니 관광분야 동향 분석 및 정책과제	적도기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6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리브르빌 관광개발방안	가봉	산업연구원	2013
7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앙지역 관광 활성화	가나	삼정KPMG	2013
8	2015 KSP 산업·무역 정책자문사업	태평양도서국의 관광산업 발전방안	태평양도서국	산업연구원	2015

## ② KSP의 문화 ODA 사업 수행 유형 및 내용

KSP의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사업 총괄 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며, 사업 총괄 기관은 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활용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컨설팅을 진행한다.

〈표 2-22〉 KSP 사업의 유형 및 협력 방식

협력 방식	사업 유형(수행 기간)	내용
정책 자문 사업	정책 자문(1년)	현지 조사 및 공동 연구를 통해 실천적인 정책대안 도출
	역량강화 연수(1주-2주)	협력국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책 기획·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 제공
	정책자문관 파견(6-12개월)	한국 전문가를 협력국에 파견하여 정책 개선 및 이행 지원
공동 컨설팅 사업	정책 자문(1년)	정책대안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국제기구의 지역 전문성과 KSP의 정책 전문성을 연계
사례 연구	사례 연구	발전 경험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식공유를 위한 실증적인 지식콘텐츠 창출

자료: KSP 홈페이지(<https://www.ksp.go.kr/pageView/organization>)

KSP 사업에서는 대상 국가의 문화·체육·관광 산업(그간에는 대부분 관광 산업)의 현황 및 강약점을 파악하고 한국의 유관 경험을 공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형식의 컨설팅 보고서를 발간한다. 컨설팅의 내용은 수여국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자원을 활용하거나 산업화하는 전략과 같이 문화 자원을 경제적 부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는 산업적 접근의 컨설팅이다.

〈표 2-2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1	가봉의 관광 부문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봉 관광의 현황</li> <li>• 가봉 관광의 발전전략 리뷰</li> <li>• 한국의 관광 발전 경험</li> <li>• 정책 제언</li> </ul>
2	적도기니 관광 부문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도기니 관광의 현황</li> <li>• 적도기니 관광의 발전전략 리뷰</li> <li>• 한국의 경험</li> <li>• 정책 제언</li> <li>• 정책 제언</li> </ul>
3	도미니카공화국의 콘텐츠산업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산업의 특성과 진흥정책</li> <li>• 도미니카공화국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li> <li>• 한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사례 분석</li> <li>• 도미니카공화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방안</li> </ul>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거버넌스 체계 구축: '가봉 방문의 해' 사업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봉 관광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기대 파악</li> <li>• 관광거버넌스 구축 관련 한국의 경험</li> <li>• 가봉 관광거버넌스 촉매 프로젝트 제안</li> <li>• 장래로의 확장: 가봉 관광거버넌스 체계 구축</li> </ul>
5	적도기니 관광 분야 동향 분석 및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도기니 관광정책 동향 분석</li> <li>• 관광 여건 분석과 정책과제 발굴</li> <li>• 한국 관광 발전 사례의 적용 가능성</li> <li>• 적도기니 국제관광 정책과제</li> </ul>
6	리브르빌 관광개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봉의 관광산업 현황과 정책기대 파악</li> <li>• 리브르빌 관광산업의 잠재력과 개발목표</li> <li>• 리브르빌 관광단지 개발방안</li> <li>• 리브르빌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방안</li> </ul>
7	가나 중앙 지역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나 관광산업 현황</li> <li>• 한국 관광산업과 가나 개선점</li> <li>• 중앙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li> </ul>
8	태평양도서국의 관광산업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도서국(PICs)의 경제구조 및 관광산업</li> <li>• 한국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정책</li> <li>• PICs 관광산업의 경쟁력 SWOT 분석</li> <li>• PICs의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li> </ul>

자료: 각국의 KSP 경제발전 공유사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 다. 문화 ODA 문제점

첫째,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소액 다건의 사업 형태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문화 분야 ODA 규모(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사업 기준)는 185.4억 원으로 국내 전체 ODA 예산 대비 0.44% 수준이다. 그간 문화 분야 ODA 예산의 절댓값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ODA 사업 대비 비중은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

부가 2021년~2023년 기간 동안 진행한 ODA 사업 건수는 23건이다. 예산은 양자가 22년에 117.2억 원, 다자가 3.4억 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양자가 134.9억 원, 다자가 3.5억 원으로 타 기관의 한 개 사업 예산 규모도 안 되는 돈으로 20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둘째, 인력양성 또는 인력파견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소액 다건의 사업구조를 가지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청 연수 중심의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코이카도 봉사단 파견 중심으로 문화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매우 소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문화 ODA 사업 수행기관 간의 교류나 연계 사업 구상이 없다. 최근 국내 ODA 사업은 연계 사업의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확보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2년 예비검토택제」및「범부처 EDCF 사업심의 위원회」등을 통해 유·무상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33건 62개 사업), 무상간 연계의 경우에도 재외공관과 시행 기관을 통한 신규 연계 사업을 발굴 및 검토하고, 주관기관-시행기관 간 1:1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무상 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연계·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98건 228개 사업). 무상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 ODA 사업 간 무상 간 연계뿐 아니라 타 부처의 유상 사업과의 연계 및 분야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 내 ODA 사업도 총괄 기능이 없이 개별 과 단위에서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문화과, 국제관광과, 국제체육과가 각각 ODA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문화과는 문화 ODA, 국제관광과는 관광 ODA, 국제체육과는 체육 ODA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조정 기능이나 기획 기능을 가진 부서가 없다.

## 제2절 문화 ODA 복합화 필요성

### 1. 범분야 ODA로서 문화 ODA

#### 가. ODA 사업 분류<sup>23)</sup>

ODA 사업은 크게 일반 분야와 범분야·다분야 사업으로 분류된다. 일반 분야는 기본적으로 OECD DAC 목적코드 분류에 따른다. 9개의 목적코드에 따라 정부 종합시행계획에서의 분류는 산업이 두 개로 추가 분류되어 10개로 분류되며, KOICA 통계는 OECD DAC 목적코드상의 5개의 분류 항목(식수공급 및 위생·재난방지, 운송 및 창고, 에너지 생산·공급 및 효율성, 산업, 환경보호)을 모두 기술환경에너지 분류로 묶어서 사용한다. KOICA 분야 전략에서는 일부 용어만 변경하고 목적코드의 분류에 따른다. 일반 분야는 기본적인 ODA 중점 사업 분야로서 각각의 비전과 미션이 정해져 있고, 관련 SDG 목표도 설정되어 있다.

범분야·다분야 사업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 통합 적용 가능한 전략 목표 또는 마커로서, 여러 사업 분야를 포함하는 전략 목표(다분야) 포함 3개 분야가 설정되어 있다. 범분야·다분야 OECD DAC 목적코드는 성평등, 인권, 멀티섹터로 분류되어 있다. 국제사회(OECD DAC, UN SDGs)는 개발협력 주요 이슈를 포괄하는 범분야(cross-sector) 정책과 통합적 개발협력을 위한 다분야(multi-sector)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한국의 KOICA도 범분야 전략 및 다분야 전략을 설정했다. 범분야 이슈들은 빈곤층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 모든 원조사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를 일컫는다.

23) 김영혜(2021),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기) 및 SDGs-KOICA 성과프레임워크, 코이카 홈페이지 (<https://www.koica.go.kr>)

〈표 2-24〉 일반 분야 ODA 사업 분류

분류 기준	분야									
	교육	보건, 성생식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사회인프라 서비스,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농림수산	식수공급 및 위생, 재난방지	운송 및 창고	에너지 생산, 공급 및 효율성	산업		환경보호
OECD DAC 목적코드	교육	보건, 성생식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사회인프라 서비스,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농림수산	식수공급 및 위생, 재난방지	운송 및 창고	에너지 생산, 공급 및 효율성	산업		환경보호
정부 (국개위) 종합시행 계획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수자원/ 위생	교통	에너지	산업	통신	환경보호
KOICA 통계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KOICA 분야 전략	교육	보건	거버넌스·평화	농촌개발	물	교통	에너지	과학기술혁신	기후행동	

〈표 2-25〉 범분야·다분야 ODA 사업 분류

분류기준	분야		
OECD DAC 목적코드	성평등, 젠더폭력, 젠더마커	인권, 장애마커	멀티섹터 도시/주택 종합개발
정부(국개위)	-		인도적 지원
KOICA 사업 분야	범분야		다분야
KOICA 분야 전략	성평등	인권	도시

#### 나. 범분야 ODA의 중요성

범분야 이슈는 개발 과정에서 소외나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환경, 젠더 등의 분야이다. 범분야 이슈는 개발 과정에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식되지만, 빈곤층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장기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다. 여성문제, 환경문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추구되는 단기간의 발전 추구는 초기에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 성장에는 오히려 저해 요소가 양산



되어 일정한 수준의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배제되었던 젠더, 환경 이슈들이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개발 및 발전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통합되어 접목되어야 되는 이슈들이다.

젠더이슈는 주요 개발 이슈 중 아동, 교육, 보건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기도 하며, 여성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기회의 확대는 전반적인 개발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고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슈이다.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개발 사업에 주류화하도록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환경은 교육, 젠더, 보건 등 경제 및 사회개발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환경관리역량이 지속가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원관리, 에너지, 인프라 구축, 도시개발 등 모든 개발 과제에서 환경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젠더와 환경 이슈와 같이 모든 발전과 개발 이슈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분야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다. 범분야 ODA로서 문화 ODA의 의의**

문화 ODA는 직접적인 빈곤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그 자체로 범분야 이슈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유네스코와 항저우시의 주관으로 ‘문화, 지속가능 발전의 열쇠(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항저우 선언(The Hangzhou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항저우 선언은 문화가 발전의 조력자 역할로 보다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하며, 이익과 가치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UNESCO-항저우 선언〉 문화의 세 가지 역할 및 기여(2013)

첫째, 문화는 발전의 조력자 역할로 보다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 ODA 사업 진행 시, 수원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으나, 역으로 문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

둘째, 문화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수원국의 발전이 증진되도록 함. 문화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용성이 있고, 그 포용성은 다양성을 확보하며, 이는 사회적인 발전과 증진을 가져옴.

셋째, 문화는 이익과 가치를 창출함. 문화가 창출하는 이익과 가치는 경제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 문화적인 것을 포함함. 즉, 문화 ODA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성장이나 수익 창출의 효과뿐 아니라, 정신적인 빈곤과 문화적인 빈곤까지 해소하는 역할을 함.

자료: UNESCO(2013), The Hangzhou Declaration-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Hangzhou International Congress. 15-17 May. China.

SDGs의 세부 목표들 중에서 문화와 연관된 목표들도 있다. Goal 4.7- 문화다양성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교육, Goal 8.9- 지역문화와 지역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 정책, Goal 11.4-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 Goal 12.b-일자리, 지역문화와 상품을 진흥할 지속 관광 영향력 측정 도구 개발 등이 있다.

문화 분야의 이슈들은 개발을 도우며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섭, 평등 및 다양성을 증진하고, 경제적 가치와 비화폐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모든 분야의 ODA 사업들이 계획될 때 해당 사업 지역의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모든 ODA 사업은 수원국의 문화적 맥락과 가치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을 통한 해당 지역과 국가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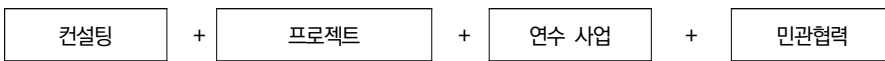
## 2. 문화 ODA 복합화 정의

### 가. 문화 ODA 복합화

문화 ODA 복합화는 범분야 이슈로서 문화 ODA 사업을 일반 분야 ODA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세부 사업을 사업 목적에 맞게 모듈형으로 조합하여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ODA는 ODA의 일반 분야가 아니라 범분야 이슈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분야로서 ODA 일반 분야와 연계된 사업을 구상하여 어떤 아이টে임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놓고 구체적인 사업화를 고민하여야 한다. ODA 사업 유형은 크게는 ① 프로젝트, ② 개발 컨설팅, ③ 프로그램, ④ 연수 사업, ⑤ 장학지원, ⑥ 봉사단 파견, ⑦ 기타 기술협력(현지·국내 워크숍 등), ⑧ 민관협력(NGO, 기업 등을 통한 협력)으로 구분한다. 이 ODA 사업 유형들을 필요에 따라 연계하여 패키지형의 연계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표 2-26〉 복합 문화 ODA 사업 연계 예시




예를 들어, 지역개발 ODA 사업에서 사업 지역 내에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면 문화 ODA 사업 인력이 투입되어,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프로젝트로서 문화시설 건립을 시행하고, 문화시설 내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연수 사업과 시설 활용 극대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준비한다면 복합 문화 ODA 연계 사업으로서 ODA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27〉 범분야 문화 ODA 연계 사업 구상 예시

SDG 세부 목표	협력 타 분야	과제
 세부 목표 1. a 빈곤층식 프로그램 정책 제공	교육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계모델 구축 사업 → 지역 토착민 전통문화/무형문화재 활용</li> </ul>
 세부 목표 2.2 5세 미만 아동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 해결	기초보건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문화기반시설 복합화 사업 →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아동 체력증진 교육</li> </ul>
 세부 목표 4.5 성별, 농촌/도시,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 보장	지역개발 + 문화 농촌개발 + 문화 공공행정 + 문화 교육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 ex) 콜롬비아 영화법(2003년 제정) 기반, 문화 산업 부가가치 창출 산업</li> <li>장애인 문화교육 직업훈련원 운영 → ex) 몽골의 장애인에게 책을 배달하는 이동도서관, 장애인이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얻고 스포츠, 여가 및 문화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짐바브웨의 장애인법(1992) 기반 직업훈련원 운영</li> <li>여성, 농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 포용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li> </ul>

SDG 세부 목표		협력 타 분야	과제
	세부 목표 5.5 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	공공행정 + 교육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정책컨설팅 사업 → 사업 내 여성 의사결정자 참여 장려</li> <li>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컨설팅</li> </ul>
	세부 목표 6.6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물관리 및 보건위생 + 문화 환경보호 + 지역개발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재생사업 → 강, 호수, 개천 생태복원사업 및 사업관리자 인력양성 사업</li> </ul>
	세부 목표 8.3 창의성과 혁신 지원	교육 + 문화 지역개발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원군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 사업</li> </ul>
	세부 목표 8.9 지속가능관광 촉진 정책 설계 및 시행	지역개발 + 문화 공공행정 + 문화 교통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문화와 제품 증진하는 관광자원 활용 사업</li> <li>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정책 컨설팅</li> <li>관광정보 구축 지원 사업</li> <li>관광교통 협력 및 서비스 개선 사업</li> <li>관광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li> </ul>
	세부 목표 10.7 이주정책 관리 및 인구의 이동성 지원 정책	공공행정 + 교육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가·문화전문가, 남-남(South-South) 이동성 지원 정책 사업</li> </ul>
	세부 목표 11.3 참여지향적·지속가능한 도시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공공행정 + 교육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문화자원 활용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li> <li>문화도시 조성계획·문화브랜드 구축 컨설팅</li> </ul>
	세부 목표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지역개발 + 문화 환경보호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유산 보존·계승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li> <li>생태관광(Ecotourism) 활성화 지원 사업</li> </ul>
	세부 목표 12.8 사람-자연 조화 교육 및 정책	교육 + 문화 환경보호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문화, 체육보건 연계 과목 개설 및 세계시민교육 융복합센터 인프라 구축</li> <li>도시재생 뉴딜사업</li> </ul>
	세부 목표 15.1 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	환경보호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li> <li>우수 생태자원 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li> <li>생태관광지역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 지역협업체 운영, 스토리텔링,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교육과정 개발</li> </ul>
	세부 목표 16.7 포용적, 참여지향적 의사결정 보장	공공행정 + 교육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창의산업 관계자 문화교류 정책연수</li> <li>장애인 의사소통강화를 위한 교육사업</li> <li>문화거버넌스 구축 지원 사업 → 공공서비스 미디어와 디지털 환경</li> </ul>

SDG 세부 목표		협력 타 분야	과제
	세부 목표 17.1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공공행정 + 교육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성 증진·창의 허브 성장 및 발전 촉진 도시정책 컨설팅 사업</li> <li>▪ 지역 문화상품 서비스 창조·생산·배포·향유 사업</li> <li>▪ 창작-생산-유통-접근 협력적 거버넌스 문화산업정책 컨설팅</li> <li>▪ 문화정책 이니셔티브 정책 프로그램</li> <li>▪ 문화진흥기구 설립 지원 → 문화정책 연구, 지속적 인프라 활용, 산업 진흥기관 운영 노하우 공유사업</li> </ul>
	세부 목표 17.17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독려, 촉진		

문화 ODA 복합화는 21세기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발전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ODA 복합화는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회복력 강화 차원에서 구상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기존의 개발협력 방향이 갖고 있는 한계와 도전 과제, 지역별 맥락을 고려한 개발 전략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화 ODA 복합화는 첫째, 국제개발협력 방향이 기존의 경제 중심 접근을 넘어 경제, 사회, 환경 등 다면적 발전(multidimensional development)을 추구하는 만큼 SDGs 이행에 기여하는 개발 전략이 되어야 하며, 둘째, 문화 ODA 복합화는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간의 연계되고 조율하는 접근(triple-nexus approach)을 지향하며, 셋째 개도국의 참여를 강화하여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화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 제3절 소결

---

2017년 OECD DAC에서 실시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 검토에서 한국은 한때는 원조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주요 ODA 공여국으로 전환한 성공 사례로 직접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개발 재원이 협력국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신흥 공여국과 삼각 협력을 통한 전문성 공유 및 협력, 국별 프로그램 지원의 높은 비율 유지, 협력국 우선순위에 따른 유무상 원조 지원, 자연재해 위험 및 경감 대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점에 주목하였다. 30년의 개발협력 역사를 고려할 때,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국제개발원조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ODA 양적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원조의 질과 개발 성과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 동료 검토 이후 GNI 대비 ODA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DAC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비구속성 ODA 비중 또한 DAC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책무 및 국제사회의 약속 차원에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비구속성 비율 등 국제사회의 선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소액 다건이며, 인력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 ODA 사업 기관 간의 연계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ODA 사업 간의 연계나 총괄 조정 기능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 ODA 사업 복합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 ODA 복합화는 범분야 이슈로서 문화 ODA 사업을 일반 분야 ODA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세부 사업을 사업 목적에 맞게 모듈형으로 조합하여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제3장

## 해외 ODA 정책 및 사업 현황





# 제1절 해외 ODA 정책 현황

## 1. 최근 ODA 영향 요인

### 가. 글로벌 복합위기와 개발협력

최근 국제개발원조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복합화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발발하여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은 지구적 보건위기를 넘어 글로벌 위기로 많은 국가들의 전 사회적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sup>24)</sup> 또한 불평등이 심화·급속화 되는 디지털화, 기후변화와 난민위기는 오늘날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의 핵심 의제이자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코로나 19, 미·중 전략 경쟁의 가속화, 기후변화는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1)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

첫째, 코로나 19는 글로벌 보건위기 차원을 넘어 신형안보(emerging security)의 중요성 및 국제협력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태라고 할 수 있다.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의 건강에 위협을 주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바꾸는 대전환을 초래했다고 보았다.<sup>25)</sup> 코로나 19가 과연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게 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코로나가 기존 질

24) 2023년 8월 2일 기준, 코로나 19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7억 6,898명이며 사망자는 695만 3,743명이다.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0일 선언된 비상사태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25) Henry Kissinger(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3.

서를 붕괴시키기보다 새로운 개혁과 갱신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브랜드(Hal Brands)와 가빈(Francis J. Gavin)은 코로나가 물질 권력의 분배(the distribution of material power)를 극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시스템의 새로운 출발보다는 제도적 개혁과 진화가 필요한 기간을 촉발시키는 정도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sup>26)</sup> 다만 포스트 코로나의 질서는 탈냉전기의 글로벌 통합의 방향이 아닌 양분된 세계로의 전환이 될 것이며,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았다.<sup>27)</sup>

코로나 19가 초래하는 세계질서 방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유엔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보건 위기를 넘어 사회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위기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28)</sup> 코로나 팬데믹은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협이 단순히 해당 국가의 보건과 건강 위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정치경제적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 준 것이다.<sup>29)</sup> 이러한 월경(越境)성 전염병은 한 국가의 보건과 건강 위기를 넘어 초국가적 위기를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전통 안보 개념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전통적인 국가 안보는 주권 국가의 영토 보존, 외부 위협에 대한 군사적 역지력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는 질병, 빈곤, 환경오염, 바이러스 감염 등이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안보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코로나 위기는 국가 간 불평등의 민낯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는 점을 개발협력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이 높고 외부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 역량이 취약한 저개발국가의 경우 코로나 이후 수출 감소와 소득 하락을 경험하는 등 경기 둔화의 영향이 선진국에 비해 뚜렷했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코로나 19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후퇴시켰으며<sup>31)</sup> 이 지수의 하락 추세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26) Branks, Hal and Francis J Gavin(2020), *COVID-19 and World Order* (Baltimore, Marylan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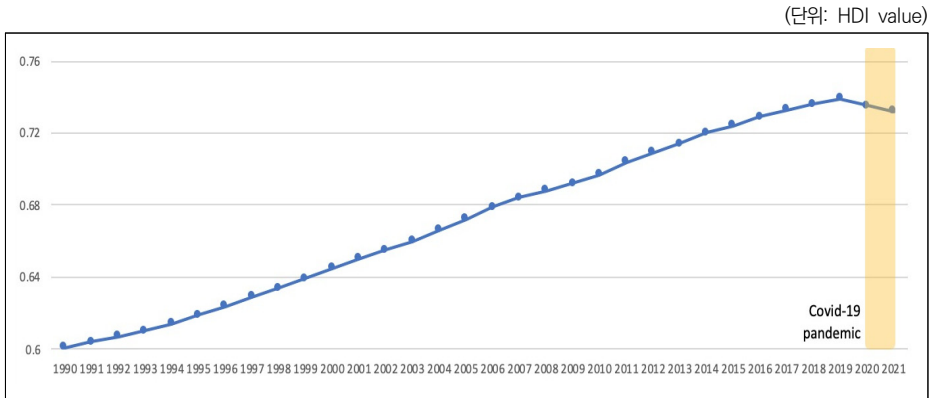
27) *ibid.*

28) UNDP(2020), *COVID-19 and Human Development: Assessing the Crisis, Envisioning the Recovery*, (UNDP: New York), p. 4.

29) Cheeseman, Nic(2020), The Coronavirus Could Toppl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Foreign Policy*, (March 31).

30) UN DESA(2020), COVID-19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UN/DESA Policy Brief no. 66, (1 May).

[그림 3-1] 글로벌 HDI 추세, 1990-2021



자료: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2 (UNDP: New York), p. 4.

코로나 팬데믹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산되었으나 그 여파는 남반구와 북반구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90% 이상의 국가들에서 지난 2020년과 2021년 동안 HDI 하락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두 번째 해의 회복력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HDI가 매우 높은 그룹의 국가들은 개선을 보여 준 반면, 하위, 중간, 그리고 상위 HDI 국가들에서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sup>32)</sup> 백신에 대한 불공정한 접근성은 코로나 19 시기 드러난 불평등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아프리카와 같이 사망자 비율이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던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백신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낮았다.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2022년 7월 22일 기준 4명 중 3명(약 72%)이 최소 1회분 이상 백신을 맞았던 반면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해당 비율이 5명 중 1명(약 21%)에 불과했다.<sup>33)</sup> 코로나 기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가중되는 동안 가계와 부양책임이 더욱 늘어났으며, 이미 존재했던 디지털 격차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질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sup>34)</sup>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회보장비용으로 저소득국가에서

31) UNDP(2020), *COVID-19 and Human Development: Assessing the Crisis, Envisioning the Recovery* (UNDP: New York), p. 6 ;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UNDP: New York), p. 12.

32)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UNDP: New York), p. 12.

33) *ibid.* p. 6.

34) *ibid.* p. 7.

는 인구 1인당 4달러가 마련된 반면 고소득국가에서는 695달러가 확보되었고, 학교 폐쇄로 인한 교육 단절 시간(School loss time)이 저소득·중위소득 국가의 경우 4개월에 달하는 반면 고소득 국가의 경우 6주에 불과했다. 즉 코로나가 이미 존재했던 국가 간,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2) 미·중 전략경쟁

미·중 전략경쟁이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미국은 패권국가로 압도적인 지위를 누려왔지만 여기에 도전하는 중국의 등장과 세력 확장으로 양 국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마찰과 긴장,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미·중경쟁은 비단 군사, 안보, 경제 영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라 전방위 영역에서 부딪히고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미·중경쟁은 다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복합경쟁의 특징을 보이며 21세기 패권경쟁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외는 미국이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중 양국은 인공지능, 5G, 반도체, 그린에너지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일부 영역에서는 중국이 수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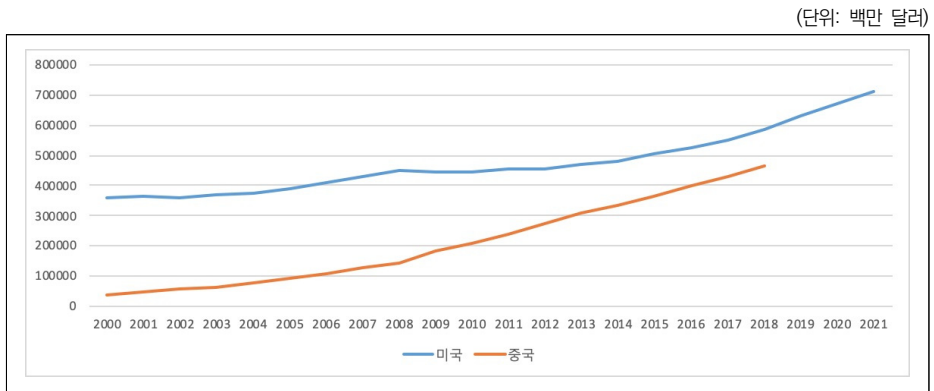
실제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은 2016년 이래로 미국을 이미 추월하였다.<sup>36)</sup>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중국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1990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99억 달러, 미국은 3,251억 달러로 미국이 약 33배 앞섰으나 2021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934억 달러, 미국은 8,007억 달러로 그 격차가 약 2.7배밖에 나지 않는다.<sup>37)</sup> 미·중 간 전략 경쟁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35) Graham Allison, Kevin Klyman, Karina Barbesino, Hugo Yen. 2021. *The Great Tech Rivalry: China vs the U.S.* (Cambridg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p. 2.

36) World Bank Data에 따르면 중국의 GDP, PPP는 2016년 18.71조 달러, 2017년 19.89조 달러, 미국은 2016년 18.7조 달러, 2017년 19.48조 달러였다. 2022년 중국과 미국의 GDP, PPP는 각각 30.33조 달러, 25.46조 달러를 기록했다. 양국 간 GDP, PPP 격차는 2016년 0.01조 달러, 2017년 0.41조 달러였으나 2022년에는 4.87조 달러로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https://data.worldbank.org>](접속일: 2023. 7. 1.).

과학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GDP 대비 R&D 지출 비율에서 중국은 2013년에 유럽을 추월하였고 미국과의 격차도 점차적으로 좁혀 나가고 있다. R&D 지출 총액의 경우 미국은 2000년 3,603억 달러에서 2018년 5,864억 달러로 1.6배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2000년에 398억 달러에서 2018년 4,647억 달러로 11.7배 증가하였다.

[그림 3-2] GDP 대비 미·중 R&D 지출 총액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 (검색일: 2023. 7. 30.)

향후 미·중 간의 경제, 군사, R&D 투자 분야의 경쟁은 미·중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현재의 디지털 시대의 전환기에서 미·중경쟁은 중요한 잠재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은 신흥강국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지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38)</sup>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비단 국제질서 차원의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sup>39)</sup>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의 국익 추구 및 대외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협력을 패권경쟁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 왔다.<sup>40)</sup> 미국의 인도태평양

37) 원자료는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SIPRI)이며, 출처는 World Bank Data임, [<https://data.worldbank.org/>](접속일: 2023. 7. 1.).

38) 제프리 삭스(2021), 「지리·기술·제도」 서울: 21세기북스, 294.

39) 이진상(2022), 국제정치 및 경제 환경 변화와 국제개발협력 방향, 「국제개발협력동향」, no. 1, 7.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맞부딪히면서 국가 간 동맹 및 협력체 차원에서 개발협력은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과 결부되어 추진되었던 것이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체제하에서 일대일로 정책하에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에 대한 원조와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 3)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도전으로 오늘날의 글로벌 위기의 양상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가 점차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드 레드’ 상태로 규정한 바 있다. 2021년 4월 기준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2020년 전 지구평균표면온도(Global Mean Surface Temperature, GMST)가 산업화 이전(1850~199)보다 1.2°C 상승하였다.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 시기의 수준에서 섭씨 1.5도 상승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해수면 상승, 온실가스 배출, 극단적 폭염, 집중 호우와 같은 기후 패턴의 변화 등의 기후위기 영향은 개인의 일상과 산업, 국가 전반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41)</sup> UNDP는 『인간개발보고서 2021/2022』를 통해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인류세(the Anthropocene)에서 인간이 지구행성에 만든 변화는 이제 생존에 대한 압력의 문제가 되면서 개인과 공동체, 국가, 모든 인류에게 두렵고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하였다.<sup>42)</sup> 즉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은 인류에 있어 전례 없는 거대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sup>43)</sup>

40) 주요 선진국 역시 다자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인 전략과 국가 이익, 국가 위상 제고와 같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추진해 왔다. 손혁상 외는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선진 공여국들은 “자국의 역사적·지정학적 특성과 국제사회에서 얻고자 하는 위상을 반영한 개발협력체제를 수립”하여 ODA를 운용해 왔음을 지적한다. 손혁상, 안도경, 박종희. 2013.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서울: 대외정책경제연구원), p. 187.

41) BBC(2021. 8. 10.), “지구 온난화 ‘코드 레드’...유엔 기후변화 보고서 경고,” [https://www.bbc.com/korean/news-58155013](https://www.bbc.com/korean/news-58155013)(접속일: 2023. 7. 15.).

42)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UNDP: New York), p. 8.

43) OECD(2020),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0: Learning from Crises, Building Resilience* (Paris: OECD).

글로벌 복합위기 측면에서 기후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우선 기후변화 영향 자체가 갖는 연쇄적, 다면적 위기 요인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연쇄적 반응을 초래한다. 온실가스 배출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악영향은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건과 토지 이용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요소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육상, 해상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업, 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sup>44)</sup> 폭염, 가뭄,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같은 맥락에서 UNDP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 변동성은 날씨와 수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능하는 역량을 약화하여 개인의 건강 및 경제 생산성을 약화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해 기후변화 적응에 투자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 국가들은 불균형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취약하게 된다.<sup>45)</sup>

다음으로 기후변화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불평등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UNDP는 전 세계 소득분위 상위 10%가 전 세계 연간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의 약 절반에 책임이 있지만 하위 50%는 배출량의 12%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득에 따른 배출량의 불평등은 상위에서 더욱 확연하다. 2019년 기준 하위 50%는 1인당 1.6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였었지만 상위 10%는 31톤, 상위 0.1%는 467톤, 상위 0.01%는 2,531톤을 배출했다.<sup>46)</sup> 이러한 배출량의 불평등은 불평등한 기여의 결과와도 연결되어 있다. 사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변화, 산업화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거나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은 과거 산업화시기에 온실가스 배출로 발전을 이룬 반면 기후변화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받는 상황인 것이다. 개도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제도적 역량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44) 강연화(2009),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ODA, 「국제개발협력」, 제4호, 119.

45)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UNDP: New York), 35.

46)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Uncertain Times, Unsettled Lives: Shaping our Future in a Transforming World*,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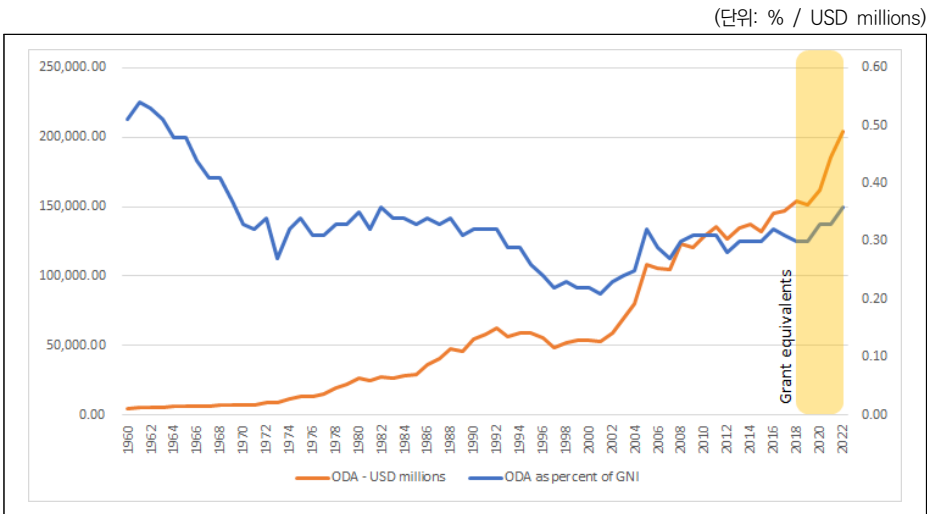


## 2. 해외 ODA 정책 현황

### 가. 해외 ODA 정책의 방향성

2022년 DAC 회원국들이 지원한 ODA는 2,040억 달러로 전년 1,860억 달러에 비해 13.6%가 증가하였고 이는 ODA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2022년 ODA/GNI 비율은 0.36%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0.33%에 비해 증가했다.<sup>47)</sup>

[그림 3-3] DAC ODA 추이, 1960-2022



자료: OECD data를 통해 추출.

주: 경상달러(current prices) 기준.

2022년 ODA의 양적 확대 이면에는 우크라이나 요인 및 난민 위기가 존재한다. 최근 새로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복합위기가 작용하는 시점에 ODA의 역할과 방향은 비단 개발재원 확보 및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방향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 사회, 환경, 문화 간의 연계와 중첩,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창의적인 원조 모델,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불평등이 세계화된 오늘날 인간은 세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았다.<sup>48)</sup> 첫째는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이다. 그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공평

47) OECD, [https://public.flourish.studio/story/1882344/](접속일: 2023. 7. 30.)

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으며 미·중과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글로벌 환경위기의 심화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 생물 다양성 손실, 대기, 토양, 민물, 해양의 대규모 오염은 글로벌 환경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셋째,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역사는 지정학적 권력의 심층적 변화가 전쟁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환경 위기, 평화의 취약성으로 인해 세계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OECD 2023 개발협력보고서는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 위기 등으로 전 세계가 “거대하고 긴급한 글로벌 도전(profound, urgent and global challenges)”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복합위기는 단기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및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개도국에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가중하고 공여주체의 분절화, 양극화를 초래하여 개발협력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것이다.<sup>49)</sup> 이런 차원에서 OECD 2023 개발협력보고서는 개발지원 약속 이행, 현지 주도의 전환 지원, 사업 모델의 현대화, 수원국-공여국 간 권력관계 재조정을 제시하고 이러한 행동이 새로운 원조시스템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 3-1〉 새로운 원조시스템을 위한 행동 방안

행동 방안	내용
개발지원 약속 이행	• ODA/GNI 0.7% 목표 달성 및 이를 위한 중간 목표치(interim budgetary milestones) 설정·관리
	• 민간지원수단 측정 방식 도출 및 혁신적 재원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 2025 이후 기후재원 측정 방식 합의 및 개도국의 기후재원 접근성 향상
	• 기존 개발협력공약 이행에 부합하는 ODA 배분 전략 검토
현지 주도 전환 지원	• HDP 넥서스에 관한 DAC 권고 및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따라 장기, 다년간 자원, 공동 혹은 다자 파트너 기금 등 인도적 지원 및 개발 계획 전반의 유연한 위기 자원 강화
	• 원조가 변혁적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와 의견 존중, 지역 및 글로벌 공공재 투자, 민첩성, 융통성, 지속가능성, 포괄성에 집중한 효과 창출
	• 협력국의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역량강화

48) 이하의 내용은 제프리 삭스(2021), 이종인 옮김(2021), 「지리 기술 제도」, 파주: 21세기북스, 284-286을 요약한 것임을 밝힘.

49) OECD(2023),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3 Debating the Aid System*(Paris: OECD Publishing), 3.

행동 방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주도 개발을 위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지 수요와 협력국의 개발협력 현실을 고려한 원원 해결책 모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고 협력국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기전략, 실사, 조달 규정,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개선</li> </ul>
사업 모델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정책과 국내정책 간 일관성 향상을 위해 개발 목표에 영향을 미칠 국내 정책과 규정을 예측, 인지, 행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관성 있는 원조 집행을 위해 범정부적 양자, 다자원조전략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트너들을 위한 모든 개발 자원과 흐름의 투명성 및 중기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목현상 극복</li> </ul>
공여국-수원국 간 권력관계 재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여국 및 협력국과의 개발재원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고, 적시에 의사소통하며, 실시간 정보, 데이터, 교훈을 책임감 있게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중소득국의 의사결정 권한 및 공유된 해결방안 모색을 강화하도록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global governance architecture) 현대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에서 힘의 불균형과 국제개발시스템에서의 인종차별 해결을 위한 제도와 역량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국의 필요와 우선순위와 긴밀히 연결되어 남북, 남남, 삼각협력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공통의 규범과 책임성을 추구하여 상호보완성과 자원 규모를 최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주도개발(locally led development)과 탈식민주의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기회로 삼아 글로벌 사우스 연구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갖고 연구 재원을 확대</li> </ul>

출처: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3 Debating the Aid System p. 29, 32, 34, 36; 주 오이시디 대표부, "OECD 2023 개발협력보고서: 새로운 원조시스템 논의," 2023. 3. 13.를 바탕으로 재구성.

최근 개발협력에 있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접근과 솔루션 활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계기를 맞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디지털 인프라 및 접근성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 19로 드러난 개도국의 디지털 활용과 디지털 기술 현실이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기술 영역에서의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확대되고 있다.<sup>50)</sup> UNDP의 2019년 인간개발보고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sup>51)</sup> 즉 인간개발의 수준이 더 높을수록 기술에 대한 접근 정도가 더 높았던 것이다.

50) UNDP(2020), *COVID-19 and Human Development: Assessing the Crisis, Envisioning the Recovery* (New York: UNDP), 15.

51) UNDP(2019), *Human Development Report 2019* (New York: UNDP),

〈표 3-2〉 디지털 격차

인간개발 수준	모바일 가입 (100명당)	인터넷 (%)	컴퓨터 (%)	광역인터넷 (100명당)
매우 높음	131.6	84.1	80.7	28.3
높음	16.7	51.7	47.0	11.3
보통	90.6	26.8	20.0	2.3
낮음	67	15.0	9.7	0.8

출처: OECD(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202를 바탕으로 재구성.

OECD 2022 개발협력보고서는 “공정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화두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후퇴와 SDGs 이행을 위해 디지털 전환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sup>52)</sup>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디지털 혹은 ICT 영역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공여국의 경우 기술적 진보, 제도의 혁신 경험이 지식공유나 기술협력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 외, 개발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접근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이 강조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복합위기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이 중첩되는 점에서 단일 섹터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OECD 2000 개발협력보고서는 코로나 19는 기존의 개발협력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회복력 증진을 위한 섹터 통합적 접근법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비단 환경과 기후변화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에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나. 글로벌 복합위기와 ODA 현황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있어 코로나 19 사태는 ODA의 최근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2023년 6월 발표된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부정적 영향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회복 추세는 과거에 비해 더디고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3)</sup> 세계경제

52) OECD(202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1: Shaping a Just Digital Transformation* (Paris: OECD Publishing), 25.

53) OECD(2023), *OECD Economic Outlook*, June.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june-2023/>](접속일: 2023. 7. 1.).

성장률(Global GDP growth)은 2022년 3.3%에서 2023년 2.7%로 하락하나 2024년에는 2.9%로 다소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sup>54)</sup> 그럼에도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할 수 있는 에너지 위기 등은 언제든지 글로벌 경제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경제 지형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이러한 글로벌 현실은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전략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DAC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지원 활동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70억 달러를 추가로 원조하였다. 2022년 DAC 회원국들의 코로나 19 활동 ODA는 112억 달러로 2021년 219억 달러에 비해 45% 감소하였다.<sup>55)</sup> 백신 기증을 포함 코로나 19 관련 ODA는 개도국으로 하여금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전체 DAC 회원국의 ODA 확대에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를 형성하여 글로벌 신냉전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재재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두 강대국의 대립이 20세기 냉전의 재현을 가져오는 이른바 신냉전론이 더욱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ODA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2022년 우크라이나 ODA는 인도적 지원 18억 달러를 포함 161억 달러로 2021년 9억 1천8백만 달러에 비해 17.5배나 증가하였다.<sup>56)</sup> 이는 DAC 전체 ODA에서 7.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끝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에서 핵심적인 의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자체가 선진국의 기술과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바 ODA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도국은 산업 구조상 1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고 기후변화에 필요한 대응 역량이 부족한 만큼 선진국으로부터의 재정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OECD DAC은 파리협정의 이행과 개발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글로벌 시스템 차원에서 필요한 접근방식과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sup>57)</sup> DAC 회원국의 재정

54) *ibid.*

55) *ibid.*

56) OECD, ODA,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htm>](접속일: 2023. 7. 15.)

적 활동이 환경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표기하여 양자 차원의 ODA 및 기타 공적 흐름(other official flows, OFF)을 추적하고 있다. 실제 DAC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협약 이행을 위한 자금 흐름을 ‘리우마커(Rio Markers)’라는 명칭으로 추적해 왔다. 기후 관련 리우마커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후변화감축(climate-change-mitigation)과 기후변화 여파로 인간과 자연 시스템의 취약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기후변화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1) 설계와 동기, 활동이 기후변화 감축 혹은 적응 목적에 부합할 경우(principal), 2) 기후변화 감축 혹은 적응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근본적 동인이나 동기가 아닌 경우(significant), 3) 활동이 기후변화 감축 혹은 적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not targeted)로 구분되어 집계된다.<sup>57)</sup>

OECD에 따르면 DAC 회원국의 양자 ODA에서 기후 목적으로 추진된 비율은 2021년 27.6%(2020년 33.7%)로 나타났다. 여기서 1/3분 이상의 ODA(140억 달러)가 기후 목적에 부합한 경우(principal)였고 부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활동(significant)은 230억 달러를 기록했다.<sup>59)</sup> 2021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양자 차원 기후관련 ODA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고 2021년 기준 DAC 회원국의 양자 ODA에서 기후관련 지원은 1/4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았다. 개별 DAC 회원국의 기후 관련 ODA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글로벌 복합위기 시기 기후 ODA가 핵심 사안이 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DAC은 기후변화와 주류화와 관련된 기본 지침을 마련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DA 및 기타 자금 흐름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57) 정지원, 송지혜, 김진오, 현채원(2019),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 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

58) 이와 함께 해당 활동이 유엔기후변화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핵심 목표(principal objective)로 할 경우 2점, 중요 목표(significant objective) 할 경우 1점, 협약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경우 0점을 받게 됨.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OECD DAC, Rio Markers for Climate Handbook, 4-5를 참고할 것.

59) OECD(2021), "Climate-rela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2021: A snapshot,".

## 다. 인도적 지원-개발-평화(HDP) 연계

### 1) HDP 넥서스의 개념

최근 국제개발원조 논의에서 원조효과성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는 접근 방식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or Triple Nexus or HDP 넥서스)라고 할 수 있다. HDP 넥서스는 위기의 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60)</sup> 최근 장기화된 갈등, 분쟁과 폭력의 증가에 따라 인도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자연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도 취약국의 인도적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인 평화구축을 요원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도적 위기 극복을 통한 취약성 완화, 국가 내 갈등, 분쟁 충돌의 위험 요소 사전 예방, 중장기적인 개발프로그램 실행이 순차적 과정이 아닌 동시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HDP 넥서스는 인도적 지원 활동, 평화구축,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조화를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로 2016년 이후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실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인도주의와 발전의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 nexus, or Dual Nexus 혹은 HD 넥서스) 필요성은 1980년대부터 논의되었었다. 두 영역에는 고유한 목적과 활동 방식들이 존재함에도 위기 상황이나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과 활동은 동시에 개인과 공동체들에 지속되고 반복되는 위기를 초래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인지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기관 통합 인도적 지원 요청(inter-agency humanitarian appeals)을 통해 요구되는 자금 규모는 2006년 48억 달러에서 2016년 197억 달러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인도적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은 인도적 지원과 개발 노력의 연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공한 것이다.<sup>61)</sup> 이러한 논의는 구호, 재건, 개발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개념(linking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LRRD)의 등장

60) 한국국제협력단(2020), 한국 ODA 이행에 있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간 연계(HDP Nexus) 실행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11.

61) OCHA(2017), 새로운 업무 방식 New Way of Working,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번역 및 발간, 3. <[https://www.unocha.org/sites/unocha/files/%5BOCHA%5DNWoW\\_KOR.pdf](https://www.unocha.org/sites/unocha/files/%5BOCHA%5DNWoW_KOR.pdf)> (검색일: 2023. 6. 10.).

을 가져왔고, 단기간의 인도적 지원과 중장기간의 개발협력이 연계되고 조화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확산된다.

자연재해나 무력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한 위기에 처한 지역 공동체 및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단기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인도적 기본 필요를 채우는 것은 대상국의 정치적 조건이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에 취약한 지역이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결국 대상국 정부와의 협력하에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을 통해 인도적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인프라를 확충하며, 인력 양성과 인식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인도적 위험과 취약성을 줄이고 인도적 필요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아우르는 비전과 방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 활동은 평화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는 낳는다는 점에서 평화는 인도적 지원 및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실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은 평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다.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폭력적 갈등은 인간의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유엔은 일찍이 발전의 토대가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평화가 부재할 경우 교육, 의료, 주택 등 사회발전에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은 투자를 군대에 하게 된다는 점, 전쟁 준비가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 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62)</sup> 또한 인력 양성, 교육, 사회인프라 개발, 제도 구축, 기술협력 등의 지역사회 개발 활동은 분쟁 후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building)의 핵심이기도 하다.<sup>63)</sup> 2015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평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으며 지속가능한 발전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 바 있다.<sup>6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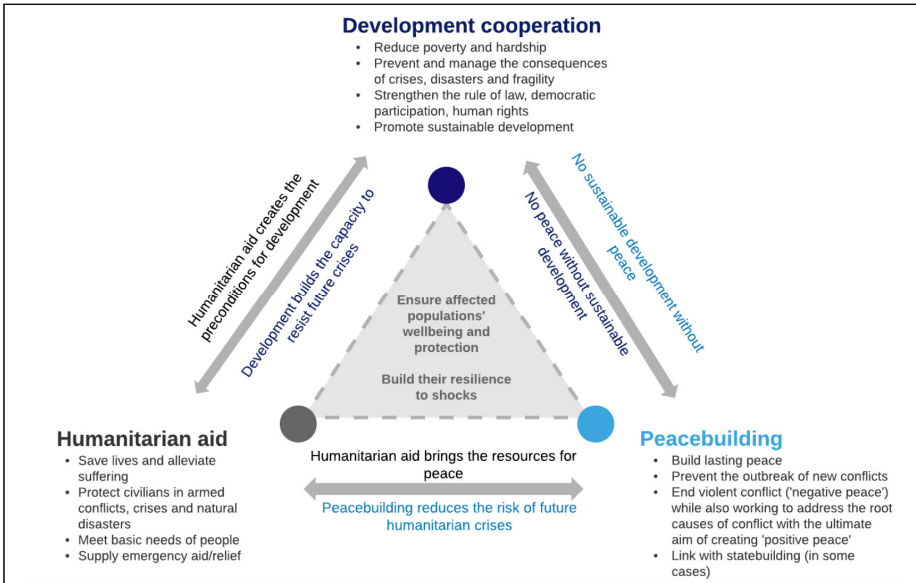
62) UN Doc. A/48/935 (6 May 1994), p. 5.

63) *ibid.*, p. 7.

64) UN Doc. A/RES/70/1 (21 October 2015). p. 2.



[그림 3-4] HDP 넥서스 개념



출처: Medinilla, Alfonso(2019), "Think local. Governance, humanitarian aid,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in Somalia", ecdpm no. 236, 2에서 재인용.

또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의 상호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분쟁 이후 평화는 근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때 달성된 평화가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는 인도주의,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다.<sup>65)</sup>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시에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경감하며 위기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비상식량, 의료서비스, 식수, 주거 등 긴급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일이다. 평화구축은 미래의 인도적 위기를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와 인도적 지원은 상호 의존적이다.

## 2) HDP 넥서스의 배경과 실천

「평화를 위한 경로(Pathway for Peace)」에서 명시하듯이 HDP 넥서스의 필요성은 국제사회의 폭력적 갈등이 급증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를 증가시키는 것에 기인한다. 실제 유엔과 세계은행은 분쟁 위험이 높은 국가에 대한 ODA가 연간 평균 2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되지만 분쟁 중인 곳에는 7억 달러, 복구 기간에는 4억 달러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sup>66)</sup> 유엔과 세계은행은 2030 의제가 달성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65) *ibid*, p. 6.

전 세계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의 폭력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보았고,<sup>67)</sup> ICT의 진화, 인구이동, 기후 변화 등은 초국가차원에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공동 위협으로 진단하였다.<sup>68)</sup> 이러한 점에서 「평화를 위한 경로」는 보다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inclusive approach)을 강조한다. 특히 평화, 안보, 개발의 조정과 HDP 넥서스 차원의 공동 목표 설정, 각 영역의 행위자들 간의 협업과 우선적 갈등 위기 요인 확인, SDGs와 연계된 공동의 프레임워크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였다.<sup>69)</sup>

HDP 넥서스는 2016년 5월 개최된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 WHS)에서 제시된 *One Humanity: Shared Responsibility*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인도주의와 발전이 전통적인 분절된 영역(silos)을 뛰어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제안하면서 강조된다.<sup>70)</sup> 즉 아무도 뒤쳐지지 않을 것을 약속한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 행위자, 다자개발은행, 정부들이 각각의 비교우위와 협력하여 공동 성과(collective outcomes)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sup>71)</sup> 실제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유엔 사무총장 취임 연설을 통해 “우리는 위기가 발생하는 즉시 인도주의와 개발의 간격을 좁힘으로써 피해를 입은 공동체를 지원하고 구조적이며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고 새로운 취약점과 불안정성이 급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도적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지속적 평화는 하나의 트라이앵글의 세 면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sup>72)</sup> 이처럼 HDP 넥서스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개별 국가는 개발전략을 수립할 때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를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 영역 활동 간의 연계와 시너지를 고려한 복합화 전략을 구상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또한 HDP 넥서스는 DAC 공여국 외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옥스팜(Oxfam), 케어

66) United Nations, World Bank. 2018.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Washington, DC: World Bank), p. xxvii.

67) *ibid.*, p. xi

68) *ibid.*, p. 49, 289.

69) *ibid.*, pp. 280–281.

70) UN Doc. A/70/709(2 February 2016), p. 28, 32, 58.

71) 이러한 공동 성과는 새로운 업무 방식(New Way of Working, NWoW)으로 명명된다.

72) UN(2021), *Realizing the Triple Nexus: Experiences from implementing the human security approach*(New York: UN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 10.

(Cooperative for Assistance and Relief Everywhere, CARE) 등과 같은 국제 NGOs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sup>73)</sup>

### 3) HDP 넥서스 이행 및 DAC 권고안 준수

글로벌 인도적 지원 시스템 개선, 인도주의-개발-평화 간 연계 방식은 OECD DAC을 통해 발전된다. DAC은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분야 행위자들의 각각의 임무와 비교우위 (comparative advantage)를 존중하면서 동시적인 관여와 공유된 책임을 높이고 상호 조율되고 연계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갈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DAC은 2019년 2월 고위급 회담을 통해 HDP 넥서스에 대한 조정(coordination), 기획(programming), 재정(financing) 측면에서 11개의 권고를 채택한다.<sup>74)</sup> 이 권고안은 DAC 회원국뿐만 아니라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 유엔인간거주계획(UN-Habitat),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F) 등 7개 UN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sup>75)</sup>

HDP 넥서스는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가 지금까지의 분절화된 방식(siloes)으로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난민, 자연재해 등 오늘날의 다중적이고 중첩된 위기(multiple and overlapping crisis)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DAC 권고안은 HDP 넥서스를 모든 공여 주체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73) Filipa Schmitz Guinote(2019), "Q&A: The ICRC and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discussio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101, no. 912, pp. 1051-1066; OXFAM(2019),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What does it mean for multi-mandated organizations?", OXFAM Discussion Paper(June 2019), pp. 1-52; CARE (2018), "Doing Nexus Differently: How ca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ors link or integrate humanitarian action, development, and peace?" CARE Research Paper (September), pp. 1-35.

74) OECD(2020), *DAC Recommendation on the Humanitarian-Development Peace Nexus*, OECD/LEGAL/5019(Paris: OECD).

75) 고형권(2021), OECD DAC에서의 개발협력 논의 현황, 「외교」, 제138호, 29.

〈표 3-3〉 HDP 넥서스에 관한 DAC 권고

주제	내용
조정	갈등의 근본 원인과 구조적 요인 및 복원력 향상을 위한 공동 분석을 이행하고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분야를 아우르는 공동의 목표 도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분야 간 효과적 조율을 위한 리더십 강화
	분쟁예방, 갈등해결, 평화구축을 위한 다양한 수단(외교, 안보, 민간활동 등) 및 접근법 활용
기획	인도적 수요에 즉시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개발 지원을 하되, 예방·중재·평화구축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력국 지원
	차별을 배제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사람 중심 지원 이행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활동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미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고려하고, 다양한 행위자의 여러 활동이 잘 연계되도록 프로그램 마련
	협력국의 현지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역량 강화
재정	HDP 연계 관련 공동 학습 및 우수 사례 도출
	증거에 기반하여 상호 보완되고 연계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분야 재정 전략 수립
	예측 가능하고 유연성 있는 다년도 재원 지원

자료: 고흥권, 2017. “OECD DAC에서의 개발협력 논의 현황,” 『외교』 제138호, p. 30.

실제로 DAC과 UN은 2019년 2월 채택한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조정, 기획,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 왔다. 2022년 5월 HDP 넥서스 권고안이 채택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OECD는 DAC 회원국 및 권고에 가입한 UN 기구를 중심으로 권고의 이행 현황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DAC 회원국 및 7개 UN 기구가 HDP 넥서스 권고안에 기반하여 정책 및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이행해 왔으며 공동성과 설정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 위험을 줄이고 복원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76)</sup> DAC 회원국들은 HDP 넥서스 권고안과 연계하여 자신들의 전략계획과 정책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덴마크, 유럽연합, 독일, 아일랜드, 일본, 한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 세부적인 지침과 업무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여 HDP 넥서스 어프로치와의 일치성을 높여 나갔다고 평가하였다.<sup>77)</sup> 또한 HDP 넥서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5개 시범 국가(nexus pilot countries)<sup>78)</sup> 중 24개국에서 공동성과를 채택하여, 공동 국가분석(joint country

76) OECD(2022),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Interim Progress Review* (Paris: OECD), 11.

77) *ibid.*, p. 22.

78) 넥서스파일럿국가(nexus pilot countries)는 총 25개국으로 그 구성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개국(부르

analysis)을 위한 새로운 수단과 플랫폼 실험, DAC-UN 대화를 통한 지식공유와 공동학습을 하는 등 넥서스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보았다. 조정과 기획, 재정 차원에서의 HDP 넥서스 이행에 대한 성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3-4〉 DAC 권고안 이행 개요

주제	내용
조정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폭넓은 추진으로 인한 의미 있는 진전, 많은 시범 국가들에서 공동 성과 채택, 단 지역 행위자들에 대한 의미 있는 포함과 관련된 정책 작업 요구
	넥서스 리더십 및 조정 모델이 수원국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짐, 국가 리더십의 능력, 관심 역량, 넥서스 전반의 조정을 지원하는 유엔상주·인도주의조정관(RC/HC)에 대한 기대와 자원 간의 격차 평화의 축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기획	연도별 추세는 상이하지만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든 공여국의 ODA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국에 대한 발전과 평화 대한 비율은 점진적 감소를 보임. 정책 차원에서 DAC, IASC(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회원국, 유엔 가입국 간의 공동 이니셔티브 등장
	인도주의, 발전 영역에서는 지난 10년간 사람중심접근법(people-centered approaches)을 더 많이 채택한 반면 평화 영역에서 이 원칙을 어느 정도 채택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가 검토되지 못함
	갈등 분석이 점차 체계화되고 있으나 갈등 및 정치경제적 분석이 조사 대상자들 사이에서 적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기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젠더 분석 방법론을 설계하기 위한 작업 요구
	위험정보 프로그램(risk-informed programming)이 DAC 및 유엔 기구들의 인도주의 및 개발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 확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의 이전 시스템(delivery system)이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이 되지 않고 있음. 최근 연구들은 ODA의 많은 비중을 로컬의 조직들에게 이전하는 것과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조사함
더 많은 행위자들이 넥서스 접근을 이행하는 성과를 평가하는 데 관여하고 있음. 넥서스 접근을 평가하는 것을 개발하는 추가적 예산 필요	
재정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예멘의 사례처럼 공동의 우선순위, 자원과 기금의 분석과 결정을 통합하는 재정 전략을 개발하는 조치가 취해짐. 그러나 재정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통합하는 재정 전략 프로세스의 역할은 실현되지 않음.
	넥서스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조달 방식을 조정하는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 특히 재정 수단, 접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가 있었지만 때로는 분절화되어 있고 넥서스 접근법이 아직 주류화되지 못함

출처: OECD,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Interim Progress Review, 12-13.

키나 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 남미카리브해 2개국(콜롬비아, 아이티), 중동북아프리카 6개국(아라크,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예멘), 동유럽·아시아 4개국(아프카니스탄, 미얀마, 필리핀, 우크라이나)으로 구성되어 있다. 넥서스 차원에서 공동 계획(joint planning)과 연합 프로그램(joined-up programming)은 기본 사회 서비스(basic social services), 기후 복원력(climate resilience), 강제이주(forced displacement), 평화와 인간안보(peace and human security), 식량안보와 경제 복원력(Food security and economic resilience), 현지역량강화(Strengthening local capacities)로 6개 중점 분야(thematic areas)에서 진행되었다. OECD,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Interim Progress Review*, 18-19.

DAC은 HDP 넥서스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황분석 도구를 간소화하고 공동 상황분석(joint context analysis)을 강화하여 중복 노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HDP 넥서스에 대한 폭넓은 수용이 확인되지만 이와 관련한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해 HDP 넥서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 상호 이해와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행위자들의 “넥서스 리터러시(nexus literacy)”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sup>79)</sup> 셋째,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를 포괄할 수 있으며 HDP 넥서스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전략이 필요하고, 양자, 다자, 국제금융기구(IFIS)의 참여를 고려하고 수원국의 로컬 기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sup>80)</sup> 넷째, HDP 넥서스 달성을 위해 갈등예방, 분쟁해결,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하나 평화 분야의 연계가 부족하다.<sup>81)</sup> 넥서스 전반에서 위기를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정치적 관여 및 다양한 수단을 공동 접근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sup>82)</sup> 즉 발전과 인도적 지원의 영향이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sup>83)</sup> 다섯째, 양성평등, 기후변화 등 주요 관련 사항을 별개의 혹은 분절적인 정책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HDP 넥서스 차원으로 통합하고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84)</sup>

---

79) *ibid.*, p. 12.

80) *ibid.*, p. 12.

81) *ibid.*, p. 36.

82) *ibid.*, p. 48.

83) *ibid.*, p. 38.

84) *ibid.*, pp. 49-50.

## 제2절 해외 ODA 사업 현황

### 1. 주요 ODA 사업 현황

DAC 30개 회원국의 2021년 ODA 규모는 총 1,437억 달러로 최근 3개년 지속 증가 추세(2019년 1,178억 달러, 2020년 1,289억 달러)이다. 미국이 39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또한 ODA 최상위 공여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공여국인 미국은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외교와 국방을 위해 상호 작용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하였다. 미국의 주요 전문원조기구인 USAID가 2018년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전략계획에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경제성장과 미국의 세계적 경쟁 우위 점유, 미국의 리더십 등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미국 원조 프로그램 및 정책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원조 정책과 방향이 국가안보 추구가자 상업적 실리, 인적자본 투자, 인도적 지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미국은 보건, 인구계획, HIV/AIDS, 모자보건 등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USAID는 국가개발협력전략(CDC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을 5년 주기로 갱신하여 작성 범정부 차원의 국가별 신규 전략을 구축, 공개하고 있다.<sup>85)</sup>

네덜란드는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서 개발협력 관련 활동을 주관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정책(BHOS: the Netherlands' policy on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은 5주 주기로 발표된다. 2018년 발표한 정책에서는 UN에서 합의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SDGs) 이행을 위해 혁신적으로 접근할 것을 발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

85) 정지원 외(2020),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5-69.

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경제외교 및 지식공공외교 등 새로운 분야에도 집중하는 것을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적 전략, 브랜드화 등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수익창출능력을 제고할 것을 공개하였다. 협력 대상국은 27개국으로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고려하여,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이슈, 여성인권, 기후, 인도적 지원, 네덜란드와의 교역 및 기업진출 등을 고려하여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12월 새롭게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을 발표하였고,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엄중함이 더해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표명하며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기본 이념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익과 국가안전보장의 목표와 과제,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외교와 방위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 안전보장의 기본 방침이라고 규정하면서 안전보장을 위해 전략적 외교를 강조하였다. 그 가운데 일본이 우선하는 전략적인 어프로치 가운데 ‘ODA를 비롯한 국제협력의 전략적 활용’을 주요 방책으로 제시<sup>86)</sup>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를 중심으로 ODA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 등의 프로젝트, 일본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술협력을 일본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JICA는 국제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 지방정부, 대학 및 기타 참여 주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JICA는 시민 참여형 협력의 일환으로 일본 해외협력지원단(JOCV)과 같은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주로 교육 분야에서 개도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해 교육 분야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제5차 중기계획(2022~2026)을 발표하여 중기적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기계획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 발현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력 양성, 수준 높은 인프라 지원, 사이버보안 등 신흥 위협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또한 JICA를 중심으로 자국 발전을 이끌 미래 리더 양성에 기여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 사회 활성화 및 일본 내 문화 다양성을 위해 개도국에서의 활동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용 및 공존에 기여할 것을 제시하였다.<sup>87)</sup>

86) 조진구(2023),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의 의미와 내용 평가, 한반도 포커스, 2023-0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87) JICA(2022),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NUAL REPORT.



독일은 연방 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BMZ)를 설립하여 개발협력 정책을 구상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 개발원조기구(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GIZ)가 주요 개발협력 실행기관이다. 기후, 환경,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농촌개발, 사회발전, 지속가능한 인프라 등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원조 기관인 프랑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은 농업과 농촌 개발, 생물 다양성, 기후, 물과 위생, 시민의식과 국제연대를 위한 교육, 교육과 훈련, 남녀평등, 고용, 에너지, 통치, 문화 및 창조 산업, 인프라, 불평등 퇴치, 교통, 디지털, 건강, 스포츠, 개발,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50개국에서 4,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경제, 사회 및 환경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AFD는 기후, 생물 다양성, 에너지, 교육, 도시 개발, 농업, 물 및 위생, 건강, 디지털, 스포츠,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다.

## 2. 문화 ODA 사업 현황

### 가. DAC 회원국 문화 ODA 규모 추이

2021년 DAC 회원국의 문화 ODA 규모는 총 2억 3,933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며, 2019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44%에 달한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문화 ODA 부문 최대 공여국이었던 일본의 문화 ODA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특히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Culture and recreation) 영역에서 급감(전년 대비 79백만 달러, 2019년 대비 1억 5,486만 달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순위 규모를 유지하던 프랑스가 문화 ODA 최대 공여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 또한 문화 ODA 규모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감소·유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표 3-5〉 주요 공여국 문화 ODA 규모 (2012~2021)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공여국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프랑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112.95	91.96	84.65	76.32	61.50	71.11	53.64	37.27	42.49	44.29
		관광정책, 행정, 관리	6.10	16.54	3.84	1.57	3.53	11.90	5.02	11.59	1.88	1.04
		자연 문화 유산 보호	5.88	4.60	8.77	3.05	2.50	1.59	8.29	13.59	25.83	23.86
	합계		124.93	113.09	97.26	80.94	67.52	84.59	66.95	62.44	70.19	69.20
2	일본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19.02	12.16	12.65	12.84	19.75	28.75	123.08	172.63	96.88	17.77
		관광정책, 행정, 관리	96.30	52.78	71.48	41.83	79.59	80.00	16.50	9.16	6.25	6.90
		자연 문화 유산 보호	5.90	3.55	2.11	1.18	6.44	1.24	8.16	7.44	4.09	3.39
	합계		121.23	68.49	86.23	55.85	105.77	109.99	147.74	189.23	107.22	28.07
3	독일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76.00	61.81	87.08	36.45	17.80	13.26	7.74	18.89	24.05	12.13
		관광정책, 행정, 관리	2.59	3.62	2.72	0.69	0.32	2.41	1.95	1.66	2.26	4.48
		자연 문화 유산 보호	4.38	1.51	1.10	0.63	3.16	5.06	3.66	3.45	4.02	4.58
	합계		82.96	66.94	90.90	37.76	21.28	20.73	13.34	24.00	30.33	21.19
4	스페인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19.82	19.46	20.50	20.52	20.47	17.61	15.07	13.10	11.12	13.72
		관광정책, 행정, 관리	1.39	0.57	2.41	0.97	1.31	0.78	1.51	0.62	0.57	1.25
		자연 문화 유산 보호	3.00	1.27	0.36	1.55	0.95	1.76	1.94	1.41	0.73	1.38
	합계		24.20	21.31	23.27	23.04	22.73	20.15	18.51	15.13	12.42	16.34
5	스위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3.21	3.52	3.64	5.28	4.39	5.34	5.81	8.62	5.01	8.62
		관광정책, 행정, 관리	-	3.80	4.40	4.39	4.46	3.63	6.70	7.32	5.96	5.81
		자연 문화 유산 보호	-	-	-	0.10	-	0.02	0.26	0.05	0.13	0.31
	합계		3.21	7.32	8.04	9.77	8.85	8.99	12.77	15.99	11.10	14.75
6	이탈리아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4.92	4.87	5.30	1.80	1.07	1.84	3.66	9.99	8.16	7.96
		관광정책, 행정, 관리	1.69	0.94	0.57	2.38	0.13	1.98	4.63	3.06	1.75	1.39
		자연 문화 유산 보호	0.75	2.59	0.91	0.43	1.80	1.39	10.18	3.53	2.92	1.83
	합계		7.36	8.39	6.78	4.61	3.00	5.21	18.46	16.59	12.83	11.18

순위	공여국	분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7	한국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7.06	11.65	20.64	17.15	17.75	18.28	27.66	22.48	10.86	4.85
		관광정책, 행정, 관리	1.22	1.08	2.61	1.60	1.27	2.49	3.08	3.84	5.07	3.34
		자연 문화유산 보호	1.26	0.87	0.07	1.14	0.75	0.68	0.85	1.90	1.43	1.20
	합계	9.53	13.59	23.32	19.89	19.77	21.45	31.59	28.22	17.36	9.40	
8	미국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2.53	0.55	0.81	0.56	0.69	0.53	0.89	0.66	0.08	2.15
		관광정책, 행정, 관리	8.37	14.72	34.61	1.16	0.57	0.47	0.02	0.23	0.23	-
		자연 문화유산 보호	4.39	5.70	5.92	5.68	5.35	5.66	7.27	5.93	6.54	6.61
	합계	15.28	20.97	41.35	7.40	6.62	6.67	8.18	6.82	6.85	8.76	

주: 2021년 기준으로 공여국 문화 ODA 총지출액 순위를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3. 07. 01)

## 나. 주요 DAC 회원국 문화 ODA 추진 현황

### 1) 프랑스 문화 ODA 주요 추진 사업

프랑스는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69백만 달러를 문화 ODA 분야에 공여하였고, 이는 120여 국가의 860개 사업에 투입되었다. 특히 구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많은 30백만 달러 상당의 413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Culture and recreation) 영역에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자연 문화유산 보호(Site preservation) 영역 또한 유의미한 비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7년 1.59백만 달러 → 2021년 23.86백만 달러).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영역의 주요 추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베닌 지역 유적지 관광 문화유산 진흥 촉진’(5.3백만 달러), ‘에티오피아 랄리벨라 지역의 보존, 복원 프로그램’(2.37백만 달러), ‘아프리카 지역 문화 인프라&서비스 구축’(1.42백만 달러), ‘아프리카 LALIBELA 교회 디지털화 프로젝트’(0.58백만 달러), ‘니그 트라이엔 드 니아메 프랑스 문화 센터 지원사업’(0.44백만 달러) 등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문화유산 보호 영역에서는 ‘생물 다양성 기여 및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블루액션 펀드 조성’(5.91백만 달러), ‘중앙아프리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술 개발’(2.96

백만 달러), '아마존 영토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수익 창출 활동 개발 및 생물 다양성 보존'(1.48백만 달러), '코스타리카 생물 다양성 보존 협업 프로젝트'(1.01백만 달러),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안 인구의 탄력성 강화'(0.75백만 달러), '아마존 생물 다양성 및 국가의 보호를 위한 집단적 노력'(0.63백만 달러) 등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지역 개발 및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인도(2.4백만 달러), 브라질(2.0백만 달러), 마다가스카르(1.3백만 달러), 멕시코(0.8백만 달러) 등 71개국(총 20.6백만 달러 상당)에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을 실시했으며, 4.5백만 달러 상당의 기술 지원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ODA의 재정 지원 주체는 프랑스 외교부(Ministère des Affaires Etrangères)와 프랑스가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으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캄보디아에 대한 문화 및 예술 분야 원조 규모가 두드러진다. 프랑스가발청에서는 문화·창작 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을 통해 문화의 보편화를 추구하고 있다.

영화산업, 저작권 인식 확산 산업, 창작 산업 운영, 시설 관리 및 문화 관련 직군 전문성 증진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프리카문화 ODA 수업 가운데 앙코르 유적 관련 문화유산 ODA와 영화시청각 ODA가 있다. 해당 사업은 수집·보관, 시청각 아카이브를 개방하는 문화기관 보파나센터 설립이다. 센터와 연계하여 외국 영화를 캄보디아 현지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유치를 주요 기능으로 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과 대중교육이라는 소명 외에도 수원국 영화 시청각산업 자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 캄보디아영상위원회(Commission du Film du Cambodge)를 설립·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보파나센터는 상실된 과거를 복원하여 수원국 국가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보존적,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프놈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는 등 대중에게 열린 문화센터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보파나센터 설립과 연계된 후속 ODA 사업인 캄보디아영상위원회(CFC) 설립은 캄보디아 영상산업의 발전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sup>88)</sup>

88) 이수원(2021), 문화 ODA의 관점에서 본 프랑스의 캄보디아 영화시청각 분야 지원 연구, 「한국프랑스학 논집」, 제114집, 181~202.

## 2) 일본 문화 ODA 주요 추진 사업

일본은 2016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화 ODA 공여국이었으나, 2021년 지원 금액이 급감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은 2021년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최상위 공여국이며, 총 94개국에서 53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이집트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를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일본의 문화 ODA 지원 금액 중 74%가 이집트로 투입되었다. 이집트 박물관 건설 투입 금액 감소는 일본 문화 ODA 금액의 급감으로 이어졌으며, 2021년 기준 문화 ODA 공여액은 28백만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전년의 26% 수준, 2019년의 15% 수준이다.

또한 일본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Culture and recreation) 영역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 프로젝트로는 '북마케도니아 국립오페라발레단의 악기, 음향 및 조명설비 개선 방안'(0.6백만 달러), '과테말라 국민체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기구 제공'(0.1백만 달러), '파라과이 일본문화진흥활동 지원을 위한 협회 시설 개보수'(0.1백만 달러), '카메룬 유도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환경 조성에 필요한 유도관 건립'(0.1백만 달러), '코스타리카 예술, 과학 및 문화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극장의 음향 장비 개선'(0.1백만 달러), 브라질 룬드 문화협회(nia)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구축(0.1백만 달러), 캄보디아 국민체육대학교 8차선 러닝트랙 개발사업(0.1백만 달러) 등이 있다. 스포츠와 음악을 활용한 전 세계 문화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문화유산 보호(Site preservation) 영역에서는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헤이스햄 궁전 대욕장 건설 프로젝트'(2.1백만 달러), '온두라스 코판 유적 박물관 전시시설 개선사업'(0.1백만 달러), '아르메니아 역사문화유산 과학연구센터의 고고학적 유물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장비 개선 사업'(0.03백만 달러) 등이 진행되고 있다.

## 3) 독일 문화 ODA 주요 추진 사업

독일의 문화 ODA 지원액은 2014년 91백만 달러에서 2021년 21백만 달러 수준으로 장기적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총 55개 국가 대상 15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Culture and recreation) 영역의 주요 추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튀르키예 Izmir, Gaziantep, Diyarbakir 지역의 문화 프로젝트 흥

보'(0.9백만 달러), '독일-튀르키예 교환 학생 네트워크의 디지털 형식 구축 사업'(0.7백만 달러), '이라크 예술 및 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0.2백만 달러) 등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다수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관광정책, 행정, 관리(Tourism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영역에서도 다수의 문화 OD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경제 개혁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원'(1.6백만 달러), '튀니지 관광산업의 고용과 성장 방안 수립 지원'(0.9백만 달러), '개발 도상국 소규모 섬 개발의 자원 효율성 및 저탄소 전환'(0.2백만 달러), '알제리 국립 박물관의 복구 프로젝트'(0.02백만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독일은 타 회원국에 비해 기술 지원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가자지구 필라스탄-영-뮤지션 오케스트라(FYMO) 프로젝트'(0.5백만 달러), '에티오피아 예하 문화유산 및 관광지 관리'(0.2백만 달러) 등 33개국에서 64개 사업에 3.6백만 달러 상당의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인 빈곤감소, 경제인프라 건설, 보건, 교육 분야 ODA뿐만 아니라, 공적 개발원조 내 비교적 새로운 분야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두드러진다. 국제사회 내 개발협력의 새로운 어젠다로 등장한 '개발을 위한 스포츠(Sports for Development, SFD)'를 위시한 스포츠 ODA라 할 수 있는데, 독일은 동 분야에서 또한 선도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스포츠는 2000년 9월 UN에서 2015년까지 총 8개의 주요 목표 이행을 위해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도 이어지고 있다. 연방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의 전반적인 주도 아래 세계 각지에서 개발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며 효율적인 스포츠 ODA를 적극 구현해 가고 있다. 그 예로 2020년 4월 기준 독일은 37개국에서 50개의 개발을 위한 스포츠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으며, 현재 남미, 아프리카, 발칸반도, 중동 및 동남아시아의 스포츠 시설에서 12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sup>89)</sup>

89) 정호윤(2022), 독일의 '개발을 위한 스포츠(SFD)'를 통한 평화구축 노력: 대(對)콜롬비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EU연구, 2022년 제61호.

#### 4) 스페인 문화 ODA 주요 추진 사업

스페인의 연도별 문화 ODA 지원 규모는 큰 편차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DAC 회원국 문화 ODA 사업의 전체적 감소에 따라 스페인 또한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6백만 달러 규모의 문화 ODA를 공여하였으며, 72개 국가에서 241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역사적 배경과 언어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전체 공여액의 55%가 아메리카 국가 지원 사업에 사용되었다. 또한 브라질, 튀니지, 모로코 등 13개 국가의 도서관 및 박물관 구축, 운영을 위해 4.5백만 달러 상당의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은 스페인의 문화와 유산을 증진하고 홍보하는 공공기관 AC/E (Acción Cultural Española)와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인 AECID(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에서 문화 교류, 예술 및 문화 프로그램, 문화교육, 문화유산 보호 지원 등 문화 다양성과 문화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제3절 소결

---

코로나 19 팬데믹, 미·중 패권경쟁, 기후위기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다층적이고 중첩되는 위기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이주와 난민 위기, 세계적 공급망 재편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최근 국제개발원조 논의에서 원조 효과성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는 접근 방식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or Triple Nexus or HDP 넥서스)라고 할 수 있다.

HDP 넥서스는 인도적 지원 활동, 평화구축,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과 조화를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로 2016년 이후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DAC은 HDP 넥서스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황분석 도구를 간소화하고 공동 상황분석(joint context analysis)을 강화하여 중복 노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HDP 넥서스에 대한 폭넓은 수용이 확인되지만 이와 관련한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해 HDP 넥서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상호 이해와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행위자들의 “넥서스 리터러시(nexus literacy)”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를 포괄할 수 있으며 HDP 넥서스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전략이 필요하고, 양자, 다자, 국제금융기구(IFIS)의 참여를 고려하고 수원국의 로컬 기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HDP 넥서스 달성을 위해 갈등예방, 분쟁해결, 평화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하나 평화 분야의 연계가 부족하다. 넥서스 전반에서 위기를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정치적 관여 및 다양한 수단을 공동 접근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sup>90)</sup> 즉 발전과 인도적 지원의 영향이 평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양성평등, 기후변화 등 주요 관련 사항을 별개의 혹은 분절적인 정책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HDP 넥서스 차원으로 통합하고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21년 DAC 회원국의 문화 ODA 규모는 총 2억 3,933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며, 2019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44%에 달한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문화 ODA 부문 최대 공여국이었던 일본의 문화 ODA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특히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Culture and recreation) 영역에서 급감(전년 대비 79백만 달러, 2019년 대비 1억 5,486만 달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순위 규모를 유지하면 프랑스가 문화 ODA 최대 공여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 또한 문화 ODA 규모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감소·유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

90) *ibid.*, p. 48.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제4장

## ODA 복합화 방안



# 제1절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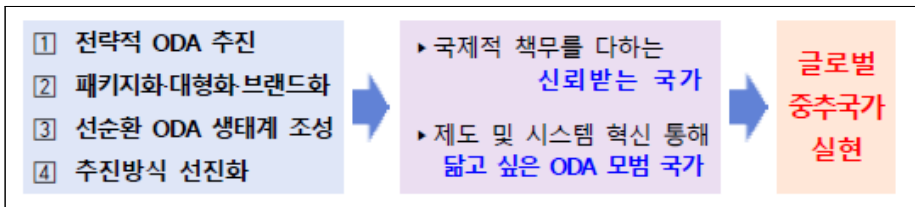
## 1. 복합 문화 ODA 사업 구성 원칙

### 가. 윤석열 정부 ODA 정책 추진 방향과 부합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로 한국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개발협력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OECD, UN 등에서는 개도국 팬데믹 위기 회복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도적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차별화된 방향성 논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다수의 시행 기관이 여러 국가와 영역에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여 우리 ODA 사업에 대한 현지 인지도가 낮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현재 한국 ODA 사업 중 1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 비중(%)이 (2017) 69 → (2018) 70 → (2019) 68 → (2020) 70 → (2021) 68 등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단시간에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우리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고려한 한국 ODA 시그니처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4-1〉 윤석열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글로벌 중추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여 세계적인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한다.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로서 ‘국격에 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설정하여,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추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 추진 과제로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선진적·전략적 ODA 추진, ODA 선진화 및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ODA 추진을 설정하였다.

#### 나. 한국형 문화 ODA 사업 구상 가능성 증진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ODA 추진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규모 확대, 국제협력 고도화)과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선진공여국 위상 정립(가치실현 기여, 의제선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기반한 한국형 문화 ODA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 수원국 수요·여건에 맞춰 우리의 발전 경험 활용,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 임팩트가 있는 지원을 ‘한국형 ODA 브랜드’로 정립하는 것이 새 정부의 ODA 전략과제 중 하나이다. 포괄적 문화 ODA로서 경제발전과 문화 발전을 동시에 이룬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문화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 모델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① 문화기본법에 의거, ②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을 준용하여, 문화란 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로서,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협소하게 문화예술 작품 창작 활동에서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 등도 문화의 영역에 포함되므로, 문화 ODA 사업은 단순히 문화유산 관리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원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원국이 단순한 빈곤탈출을 벗어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국 문화 ODA 사업의 주요 목표와 가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다. 범분야로서 문화 주류화에 대한 기여

문화는 교육, 환경, 인권, 공공행정, 농촌개발 등 지속가능발전 달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 주요 분야로 설정 가능하다. 주요 협력 분야의 사업 목표를 질적 전환하고, 복합적 효과를 고려한 ODA 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새로운 범분야 이슈로서 성공적인 사업 구성을 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에 한국형 문화 ODA 사업이 주요한 모범이 될 수 있다.

한국형 문화 ODA 사업은 범분야 이슈로서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듈형 사업 형태로 수원국 맞춤형 사업으로서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ODA 사업 효과의 효율화와 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라. 수원국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한국 특색을 반영한 문화 ODA 사업은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정책 수립, 문화 기반 활용 및 관광 분야 인프라 구축, 문화 분야 인적 역량 강화 등 문화 기반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영향력(Impact)을 충족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문화 ODA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ODA의 복합화는 ODA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 및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HDP 넥서스 이행 차원에서 지역 행위자, 시민사회단체, ODA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국가 및 국제 NGOs들의 참여를 증시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 사업들은 단순히 위기와 취약성경감뿐만 아니라 수원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sup>91)</sup> 원조 수혜자들을 대상화하기보다 발전의 주체로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취약국이나 갈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내 NGOs, 민간 부분, 지방정부는 프로그램 디자인, 이행, 평가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넥서스 축의 필요한 부분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sup>92)</sup> DAC 또한 장기적

91) OCHA(2017), 새로운 업무 방식 2017, 국제이주기구(IMO) 한국대표부 번역 및 발간, 6.

인 개발 성과를 위해서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량과 제도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및 지방정부가 기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93)</sup>

수요자 중심의 장기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라도 수원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대한 역량강화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HDP 벡서스에 관한 DAC 권고는 지역의 행위자,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분석(joint analysis), 프로그램 기획 및 적용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sup>94)</sup>

#### 마. 수원국 문화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

한국 문화 ODA는 수원국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 ODA 사업을 단순히 한국문화에 대한 전파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의 문화적 요인들이 전 세계에 보편적 문화 상품으로 성공적으로 인식되고 수용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기획하여 보급함으로써 수원국의 문화적 역량과 정책적 기반이 개선되고, 수원국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2. 복합 문화 ODA 구상

### 가. 복합 문화 ODA 사업 구상의 필요성

복합 문화 ODA 사업은 타 분야 또는 유사 분야 사업 간의 연계화를 통한 패키지 사업 구상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과제에서 설정한 전략과제 중 하나가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이다. 패키지화는 정부-민간(기업·NGO), 양·다자, 유·무상 원조의 역량을 결합하여 분절성 극복 및 전·후방 사업 연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식이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92) OECD,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Interim Progress Review*, pp. 39-40.

93) *ibid.* p. 49.

94) *ibid.*

코이카와 EDCF가 진행한 연계 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에 코이카는 장학지원(인력 교육), 기기 유지보수, 정책자문, 전문가 파견 및 자문, 봉사단 파견, 연수프로그램 제공, 컨설팅 제공 등을 진행하고, EDCF는 시설 건립, 인프라 구축, 기자재 공급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계사업은 전체 ODA 사업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사업이 연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들이 유상 ODA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유무상 연계사업은 생각보다 진행이 어렵고, 상호 간의 인식의 차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무상 ODA 연계사업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유무상 연계사업이 가능하려면 초기 기획부터 유무상 연계를 염두에 두고 준비되어야지만 가능성이 증가한다. 과거 DR콩고 박물관 건립 사업의 경우 유무상 연계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유상 ODA 사업 관계자의 의견도 있다.<sup>95)</sup> DR콩고 박물관 건립 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 규모가 800만 달러 규모였으나 최종 사업예산은 2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초기부터 사업 기획을 제대로 하고 유무상 연계사업을 고려하여 기획을 했다면 유무상 연계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무상 연계사업이 어려운 다른 이유는 수원국에서 유상 ODA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호혜적 성격이 있지 않은 한, 무상 ODA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무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한다.<sup>96)</sup>

따라서 본 보고서가 추구하는 연계사업의 방향은 유무상 연계가 아니라 문화 분야와 타 중점 분야와의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나. 패키지 연계사업 구상 시 고려사항

### 1) 국가협력전략(CPS)기반 패키지 연계사업 구상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중점 협력 분야, 분야별 협력 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ODA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국가협력전략(CPS)은 2021년 1월 제3기 중점협력국으로 재지정된 국가와 신규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수립·수정 되었다. 전략적인 ODA를 지원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원조 강점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CPS를 기반으로 문화 ODA 패키지 연계사업 구상이 필수적이다. CPS는 수원국 분석을 강화함과

95) 2023. 07. 14. 자문회의 의견

96) 2023. 07. 14. 자문회의 의견



동시에 우리 ODA 강점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신규 포함된 중점협력국인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외 재지정된 국가의 수정된 CPS는 수원국 분석과 지원계획 및 중점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① 신규 중점협력국

경제 규모와 인구수 대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는 경제사회 인프라의 확충과 빈부격차 해소의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 UN 발표에 의하면 SDGs에서 ‘심각’으로 나타난 분야는 산업화, 혁신, 인프라, 농업,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이다. 모디 총리는 ‘디지털 연계성’, ‘육상 인프라’, ‘도시개발’ 등을 중심으로 장기 전략을 추진하였다. 문화 ODA를 연계할 수 있는 지원계획 분야는 지역개발 분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관광·문화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KOICA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ODA인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 외에도 ‘베트남 팜남성 탐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사업(2020-2025/900만 달러)’ 다양한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 분야 공공행정에 해당하지만 다양한 수원국 관련부처 및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도를 대상으로 기관-기관 연계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에서 K-콘텐츠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새롭게 인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K-콘텐츠 ODA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대 내수시장과 성장 잠재력,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높으나 경제 및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산업화 기반이 부족하여 발전의 제약이 있는 이집트에서 SDGs에서 ‘심각’하다고 나타난 분야는 산업·혁신·인프라, 일자리, 보건, 젠더, 공공행정 등의 분야이다. 이집트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청년층 대상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개발 수요를 갖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도시개발 사업, 관광 디지털화 사업 등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공공행정 분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 예로 문화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집트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원 사업 중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사업’,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역량강화’와 연계하여 도시개발과 디지털화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연, 미술, 방송, 게임 등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 업계 및 주요 기관과 초청 사업(K-Fellowship)을 진행하여 종합예술학교 등과 교류하여 이집트한국문화원과의 협업, K-콘텐츠 ODA를 교육 분야 차원에서 계획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CIS 지역 내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이지만 일자리 부족, 산업·인프라, 공공행정 등이 미비하여 발전에 제약이 있는 국가이다. 거버넌스 측면 포괄적 장기 계획인 「국가발전전략 '18-'40」에서는 공공행정, 거시경제개발을 위한 기반, 경제개발, 인간개발 등 4대 부문을 강조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문화 ODA 부문에서 연계할 수 있는 패키지 사업은 공공행정 분야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형유산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사업의 연계이다. 문화재청에서 '키르기스공화국 전통공예 기술 및 디지털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키르기스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행정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면서 무-무상 사업의 연계로, 다양한 문화자원 콘텐츠 제공 및 활용을 위한 디지털 문화자원관리시스템과 전통 공예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다.

## ② 국가협력전략 수정 중점협력국

르완다는 「제1차 국가변혁전략」 발표(2017~2024년)하여 기존 국가발전전략에 비해 농촌개발 비중을 줄이고, 산업화, 현대화 성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수원국은 높은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중·고등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기관과 교육 인력 역량 강화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르완다 정부는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어 촉망받고 있는 분야로, 97) 인도네시아, 키르기스공화국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사업을 기반으로 르완다의 수요와 환경에 맞는 르완다형 디지털 문화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구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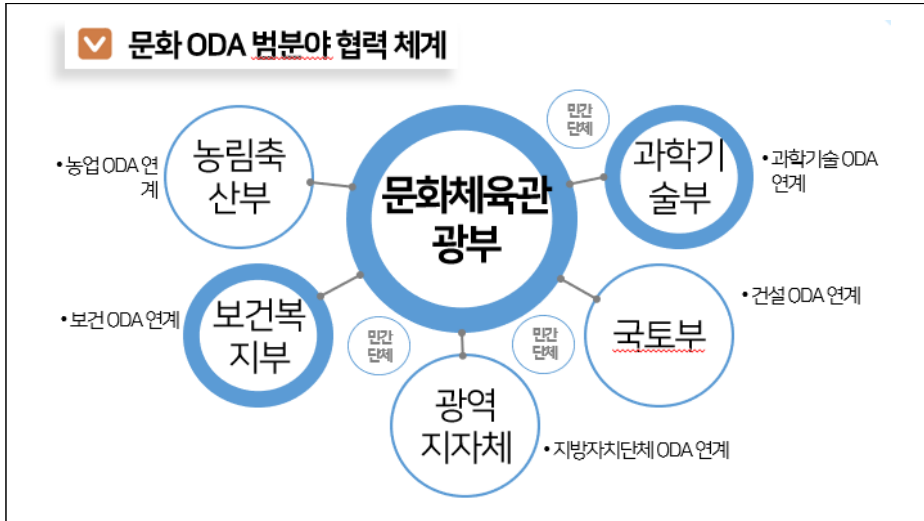
네팔은 낙후된 교육 인프라, 자연재해에 따른 회복력 증진을 주요 계획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CPS에서는 생물 다양성·환경·지역문화 등을 고려한 지역개발 분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광·문화도시 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관광 개발 계획 및 문화시설 건립의 유상원조와 문화정책을 통한 지역개발 발전 방안 컨설팅의 무상원조, 문화 프로그램 영향평가 및 문화영향평가 인력의 연수 사업, 자연재해 치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 등을 복합화한 유형을 만들 수 있다.

97) 장용규 외(2022),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Creative Industry in Afric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KIEP Research Paper, 세계지역전략연구 (GR), 22-05.

## 다. 복합 문화 ODA 사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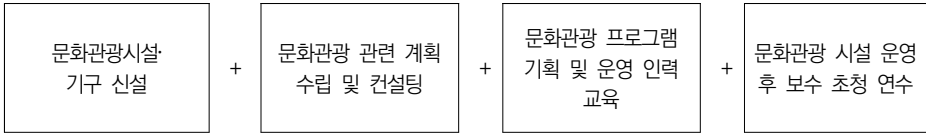
### 1) 기본 구상

문화 ODA 사업의 확대와 전체 ODA 사업에 대한 문화 분야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ODA 사업은 그 주제별로 다양한 사업 분류가 가능하다. 주목적에 따라 건설, 농림수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개별 ODA 사업들이 매우 다양하게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분야 프로그램 및 인력 운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45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1,840개 사업(4조 2,289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이카 이외에도 매우 많은 기관들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간 협약에 따라 다양한 연계사업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코이카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ODA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의하여 연계형 사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LH 공사는 베트남에서 한-베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 ODA를 연계하여 베트남 지방 도시의 도시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4-2〉 연계사업 구상 예시



건설	예시)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그램 내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림수산	예시) 농업 ODA 수행 마을에 전통문화유산 보호 및 관광상품 개발 컨설팅제공
기술환경에너지	예시) ICT 교육역량 강화 사업 내 문화기술 관련 연수 추가 운영
보건의료	예시) 건립 병원 내 문화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인력 연수
교육	예시)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내 문화기획 및 관광개발 관련 기술연수프로그램 운영
공공행정	예시) 문화 및 관광 정책 기구 설립 및 컨설팅 사업

〈표 4-3〉 LH 공사 한-베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 개요<sup>98)</sup>

베트남 경제성장 소득증가에 따른 도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국 경험을 공유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양자 간 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실행 시 및 유관 기관 간 “Team Korea” 구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대사관, EDCF, KOICA, LH 등)

**□ ODA 적용 가능 사업(예시)**

재정착 사업	도시교통	사회주택	인프라	직업훈련소, 문화시설

98) LH공사 베트남 지사, 한-베 ‘도시 성장 동반자 프로그램’ 개요 자료.

이 연계사업은 S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타 분야 국별 협력사업 중 보건, 교육 및 성평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있다. KOICA 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탄 체육, 보건 및 가치교육을 통한 청소년 개발 지원사업'은 연계 사업으로서, 열악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 차원의 센터를 건축하고, 청소년 수요에 근거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교육, 청소년 개발·정책 등 체육·보건·교육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다.

연계사업회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문화 ODA가 포함되는 SDGs에서 세부 목표 1.a '빈곤증식 프로그램 정책 제공'은 교육과 문화를 패키지로 하여 지역 문화와 무형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생계모형을 구축할 수 있으며, 세부 목표 2.2 '5세 미만 아동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 해결'은 기초보건과 문화가 연계하여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아동 체력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복합화 사업으로 실현 가능하다. 세부 목표 4.5 '성별, 농촌·도시,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으로 교육과 직업훈련 보장'의 경우 지역개발과 교육, 문화(관광) 분야를 연계한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판매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한국의 지역공동체 기반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브랜드화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SDGs 세부 목표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세부 목표 12.8 '사람-자연 조화 교육 및 정책'은 환경보호와 교육, 문화를 연계하여 문화유산보존·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다. 세부 목표 12.b는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목표는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 수단이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정책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를 지표로 한다. 세부 목표 17.17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독려,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교육, 문화 분야가 협력하여 문화관광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수원국의 정책연구기관, 학교,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문화관광 분야 연구 및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2) 복합 문화 ODA 사업의 목표: 삶의 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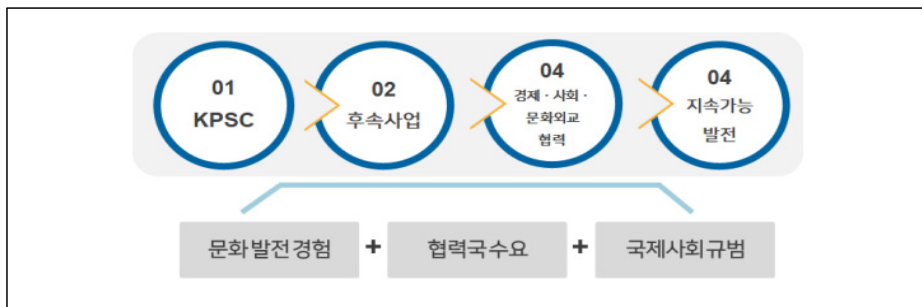
일반적인 ODA 사업은 빈곤해소, 질병감소, 환경개선, 복지증대 등이다. 복합 문화 ODA 사업은 패키지 사업들의 연속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전반적인 ODA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향유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원국 및 수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자립 강화 측면에서 복합 문화 ODA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시설 및 센터, 기구 등의 건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유·무상 형태로 지원하고, 문화 및 관광 정책과 법제 연구, 장비를 갖추기 위해 정책 기술자문을 병행하여 무상 지원을 행한다. 또한 문화관광센터와 같은 복합 ODA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관리 교육을 역량강화 측면에서 무상원조로 실시한다. 시설 개보수 외에도 시설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체 발전, 삶의 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이집트에 대규모 ODA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집트 대박물관을 피라미드 지역에 건설하였다. 공사 금액은 총 1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75%를 일본이 지원하였다. 이집트 대박물관은 카이로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을 대부분 이관하여 개관하였으며, 이집트의 관광·문화재부는 유적을 새롭게 발굴하면서 새로운 관광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원조와 이집트 정부의 관광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가 맞물려 이집트 문화관광업은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집트는 코로나 19 이후 직격탄을 맞았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극복하고 있다. 일본 원조는 이집트 문화 관광 활성화 차원의 대규모 프로그램 지원으로 대규모 박물관 건축 사업에 복합적으로 문화관광 분야 인력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조직을 현대화하고, 인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와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화가 세계적으로 증시되면서 가상투어, 시뮬레이션을 위한 3D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복합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집트 정부가 관광업 육성 및 관광단지 설립 등에 수요와 의지가 있어 이집트 정부의 기조에 따라 문화관광단지 개발 및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회복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이다.

### 3) 문화 기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사업(KPSC) 연계

삶의 질 개선 복합 문화 ODA에 KPSC 사업을 연계하여 정책컨설팅 사업 부문을 강화할 수 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도국 문화를 기반으로 자립적 지속 성장을 위해 개발 협력국 발전역량, 개발환경, 참여를 강조하는 지식공동체적 정책컨설팅 사업인 KPSC 사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경제개발마스터플랜, 국가계획, 개발정책 등 개발협력국의 국가발전 전략 중 문화 다양성, 문화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강화, 관광업 활성화 전략 등이 포함·확대됨에 따라 개도국의 다양한 사업이 문화 분야 수요를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 수원국 및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과 협력하여 정책기술 자문, 인프라 시설 구축, 제도 구축, 인적역량 강화 사업을 수요에 맞게 선택한 맞춤형 사업으로<sup>99)</sup> KPSC 비전에 맞게 KPSC와 연계한 패키지 사업을 후속 사업으로 기획할 수 있다.

[그림 4-1] KPSC 사업 비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ODA의 역할과 신규 사업 발굴 연구, 153.

### 4) 문화 영역 내 연계사업 모델

국내에서 이미 수행된 문화 ODA 사업 및 수원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문화 산업 진흥, 문화 향유 및 교육, 문화 관련 혁신기술, 문화유산 및 관광 개발, 지역문화 조성, 정책 자문가 워크숍 등의 문화 분야 통합 연계 사업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문화 산업 진흥과 관련한 주제의 경우 개도국의 문화산업 기반을 다지고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정책·법률의 개발과 시행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문화, 예술, 콘텐츠 등의 창작과 유통 인력양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99) 문화체육관광부(2020),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ODA의 역할과 신규사업 발굴 연구, 151-153.

정책·기술 자문 사업에서는 정책이나 종합계획의 수립 및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인프라 구축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시설이나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하며,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인프라 운영 전문가를 파견한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문화 향유 및 교육 관련 주제는 개도국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과 문화 수용 역량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고, 교육 과정 설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을 위한 시설 건립이나 설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역량 강화 교육은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 문화 관련 혁신 기술 관련 주제는 한국에서 진행된 문화와 기술의 융합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한 자문을 수행, 디지털 문화 전시, 교육 전시 등을 위한 센터 건립 지원,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유산 및 관광 개발 주제에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및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 정책 및 기술 자문, 관련 기관이나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문화재 및 문화 경관 보존 등 관련 전문가 양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해석 전문가를 양성한다. 지역 문화 조성 사업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 문화 활성화와 마을 구축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상 연수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한다. 정책 자문가 워크숍은 인프라 구축과 상관없이 수요가 있는 국가에 대해 KSP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수여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연수, 인턴십, 장학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모국에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표 4-4〉 유형·주제별 연계 문화 ODA 사업(안)

주제	정책·기술 자문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문화 산업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li> <li>•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자문</li> <li>• 문화예술 교육계획 종합계획 수립</li> <li>• 창의산업, 콘텐츠, 멀티미디어 플랫폼 관련 연구 지원·경험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li> <li>• 문화·창작, 미디어 콘텐츠 개발센터 건립</li> <li>• 문화 부문 스타트업 양성 플랫폼 구축</li> <li>• 웹저장소 및 SNS 확충</li> <li>• DB 운영·관리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 및 관리 인력 양성]</li> <li>• 문화 인프라 운영 전문가 파견·교육</li> </ul>



주제	정책·기술 자문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문화 향유 및 교육	[전문가 파견] • 문화, 예술, 공연, 콘텐츠 등 관련 전문가 파견 • 문화 관련 커리큘럼 신설을 위한 전문가 파견	[시설 건립 및 설비 구축] • 예술 공연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 • 문화 시설 건립 및 현대화 • 문화예술 진흥 및 교육훈련 센터 설립 • 기 설립된 기관에 장비 제공	[실무자 교육] • 문화예술인, 신인 활동가, 전문 경영인, 기술자 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문화 관련 혁신 기술	[기술 자문] •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기술 융합 사례 공유 및 플랫폼 기술 자문	[디지털 설비 지원] • 디지털 문화 연수 센터 건립을 위한 설비 지원 • 멀티미디어 및 전시 기술 지원	[혁신 기술 관련 교육] • 시청각 및 디지털 콘텐츠 관련 교육
문화 유산 및 관광 개발	[전략 수립 자문] • 문화유산 관리계획 및 지침 공유 • 문화유산 데이터 관리 정책 및 기술 자문 • 관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보존 기관 및 시스템 구축] • 문화유산 보존기관 설립 및 장비 제공 • 문화경관 관리·보존 시스템 구축(예. 문화재 등록부 포털)	[관련 전문가 양성] • 문화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 문화 경관 보존과 관리 역량 강화 • 문화유산 해석 전문가의 경험 공유
지역 문화 조성	[거버넌스 구축 자문] • 문화도시 조성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 및 사례 공유	[문화 마을 구축] • 지역 문화 마을 구축 • 문화 테마 마을 건설	[지역주민 역량강화] • 주민 대상 연수 지원 • 공동체 개발을 위한 직원, 마을지도자, 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책 자문가 워크숍	[세미나 및 워크숍 진행] • 정책 자문관 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전문지식 공유	-	[연수, 인턴십, 장학제도] • 한국 내 연수·인턴십 프로그램 • 장학제도

## 제2절 복합 문화 ODA 후속 및 시범 사업

### 1. 후속 사업

후속 사업은 ODA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형태이다. 윤석열 정부의 ODA 추진 방향에서도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을 전략 과제로 선정하였다.

ODA 발주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수주하는 현 체계에서 전문가기업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컨설팅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국내외 ODA 조달시장에 대한 기업 진출 지원, 현장 애로 규제혁신 등을 하여 기업 육성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범정부 대화채널로 협업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환경 조성, 제도 정비 등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 공고화와 시민사회 강점 분야(인도적 지원보전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수원국 NGO와의 협력 등 현장 중심 지원 확대 등이 중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 가. ODA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 1) 문화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정부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문화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국은 그동안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해 오면서 국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 또는 파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져 가고, 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문화가 단순한 여가나 오락을 위한 부수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발전 및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관련 요구가 높아져 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문화적 권리의 침해나 문화경관 파괴, 공동체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영향평가가 제도화되었다

한국에서는 문화영향평가가 2014년부터 시범 추진되다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문화영향평가가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자체평가는 소관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담당자가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하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방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문화영향평가의 취지와 특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실행 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평가는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지닌 제3의 평가전문기관(이하 평가수행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방식이다. 전문평가는 평가 대상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 평가기관이 분석과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엄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는 3대 영역, 6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의 3대 영역에 따라 영역별로 2개씩의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고, 핵심 가치도 명시되어 있다.

〈표 4-5〉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핵심가치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 특성화지표는 평가수행기관이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표 4-6〉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별 문항

평가 영역	평가지표	핵심가치
문화 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향유권)사업이 지역민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li> <li>• (문화환경권)사업으로 문화접근성이 저하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li> </ul>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참여권)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표현기회와 창작활동이 저하되는가?</li> <li>• (정보문화향유권)사업자는 사업 계획 및 시행에 있어 주민참여 및 정보공개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li> </ul>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보호)사업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의 기본적 가치에 훼손을 주었는가?</li> <li>• (문화유산향유권)사업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가 저해되는가?</li> </ul>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사업이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문화를 훼손하는가?</li> <li>• (갈등발생가능성)사업으로 사회적 관계 속 구성원 간 분열이나 대립이 유발되는가?</li> <li>• (사회적합의)사업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 문화예술인과 지역단체 간 교류와 협력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li> </ul>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관리)사업이 지역 내 문화적 확립화에 영향을 주는가?</li> <li>• (문화평등권)사업으로 지역사회 소수집단의 문화적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는가?</li> <li>• (문화격차)사업으로 문화 소비에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될 수 있는가?</li> </ul>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성발전)사업이 사회구성원들의 창의성 발전에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가?</li> <li>• (미래지향성)사업이 지역사회 내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li> </ul>

## 2) ODA 사업에 대한 평가

ODA 사업들은 개별 사업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사업 효과를 측정할 때에도 문화적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삶의 중요한 가치 변화에 영향을 주어야 ODA 사업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해당 지역 공동체의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ODA 사업이 해당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다양한 ODA 사업들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의미 있는 정책 추진일 것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 지표와 평가체계를 수정한 다음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ODA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013년부터 베트남 산촌의 소수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라오까이성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와 예술가를 파견하고 있다. 라오까이성의 학생들은 ODA 사업을 통해 사진과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였으며 특별히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개자 교육도 실시하여 그 가치가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의 그동안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문화영향 평가에 대한 시범 사업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고, 향후 타 기관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ODA 사업들과 연계사업을 구성한다면 ODA 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확대하여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시범 시행을 시행하고, 이후 수정 작업을 거쳐 평가지표를 확정된 다음 사업 형태별 평가 절차와 평가 지표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한국만의 특색 있는 ODA 사업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3) 문화마커 부여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진행된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일정 기준을 정하여 관련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ODA 사업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축적해 나갈 수 있고, 문화 ODA 사업의 성과 관리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표 4-7〉 젠더마커 3점 척도 시스템<sup>100)</sup>

비대상(0점)	이프로젝트/프로그램은 젠더마커에 의해서 검토되었으나 성평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보이지 않음.
간접 목적(1점)	성평등이 중요하고 의도된 목표이나,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착수 사유는 아님
직접 목적(2점)	성평등은 프로젝트·프로그램, 기대 효과의 직접적인 목적이며, 기획과 기대효과에 근본적인 부분임. 이 프로젝트·프로그램은 성평등 목표가 아니면 착수되지 않았을 것임

ODA 범분야 이슈인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관련 사업에 대하여 OECD는 이 마커는 성평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원조 활동을 기록하는 통계 도구(TOOL)이다. DAC에 대한 원조사업 연례 보고의 일환으로, DAC 회원국들은 각각 프로젝트·프로그램이 성평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지 3점 척도 시스템(three-point scoring system)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한다. 이 젠더마커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여국의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 간접 목적(1점, significant)과 직접 목적(2점, principal)으로 측정된 프로젝트·프로그램은 DAC에 의해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원조로 분류된다.

또한 리우마커가 있다. 실제 DAC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협약 이행을

100) 한국국제협력단. 「OECD-DAC 성평등 정책 마커 안내서」.

위한 자금 흐름을 ‘리우마커(Rio Markers)’라는 명칭으로 추적해 왔다. 기후 관련 리우 마커는 크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후변화감축(climate-change-mitigation)과 기후변화 여파로 인간과 자연 시스템의 취약점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기후변화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1) 설계와 동기, 활동이 기후변화 감축 혹은 적응 목적에 부합할 경우(principal), 2) 기후변화 감축 혹은 적응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근본적 동인이거나 동기가 아닌 경우(significant), 3) 활동이 기후변화 감축 혹은 적응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경우(not targeted)로 구분되어 집계된다.

#### 나. 문화관광 분야 민간법인 후속 교류 사업 배정 및 운영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민간법인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기획하거나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민간 영역에서의 문화 ODA 사업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민간법인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ODA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교류 사업과 달리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에 갖추기 쉽지 않다. 따라서 ODA 후속 사업부터 참여하면서 ODA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ODA 사업 수행 후 사업 효과 및 지속성 모니터링이나 인력 파견 및 인력 연수 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ODA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 연구소들과의 협력을 유도하여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ODA 관련 연구소들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노하우 습득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다. 문화관광 분야 해외봉사단 운영 및 대학 봉사단 연계 활동 모색

KOICA에서는 해외봉사단 사업을 KOICA World Friends Korea(WFK)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봉사단의 종류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일반 봉사단, 분야 전문성을 갖춘 팀제 프로젝트형 봉사단, 고등학생 드림봉사단, NGO 봉사단을 파견하여 국가의 봉사단 이미지 단일화, 원조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봉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상황과 정부, 다양한 기관에 대한 원조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 새로운 분야와 사업을 발굴하

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지원한 원조 사업에 봉사단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파견하고 있다. 즉 해외봉사단은 사업발굴단의 역할이자 직접·간접적으로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수혜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우리 원조에 대한 홍보, 후속 사업의 한 분야 등 ODA 전반에 걸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운영한다.

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파견되는 직종이 체육교육,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관광 등으로, 기존 직종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K-컬처, K-콘텐츠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분야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복합 ODA 사업에 연계 가능하다.

#### ① 문화관광 분야 봉사단 모집 및 활동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봉사단 중 하나로 동일 브랜드의 문화관광 분야 봉사단을 운영하거나 문체부 산하에 별도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 있다.

####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봉사단

---

2년의 장기간 해외봉사프로그램. 1991년 이후 교육, 보건의료, 정보통신, 행정제도,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분야 관련 50여 개 다양한 직종의 봉사단원 파견  
 WFK 봉사단 아래 각 운영기관이 다른 IT봉사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청년봉사단(KUCSS), 청년봉사단(PAS), 과학기술지원단(한국연구재단), NIPA자문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영), 태권도평화봉사단(세계태권도 평화봉사재단 운영), 월드프렌즈KOICA자문단 등 운영

---

#### ② 대학 봉사단 연계 활동

최근 대학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면서 전담 기구와 대학생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봉사단을 직접 운영할 경우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다양한 봉사 및 공헌 활동을 해외에서 오랫동안 해온 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개별 대학의 사회공헌 기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을 한다든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와 연계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시범 사업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시행해 볼 수 있는 문화 ODA 시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문화 ODA 사업의 다양화와 복합화에 기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ODA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가. 한국문화관광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ODA 유관 기관 간의 연계사업으로서 한국문화관광교육센터(Korea Culture & Tourism Training Center) 건립 및 운영을 제안한다. 중점협력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인력양성 및 교육 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젊은이들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여러 대학에 문화 및 관광 분야를 공부하기 위하여 유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련 공부를 하기에 기초적인 지식 및 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유학을 와서 제대로 학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sup>101)</sup> 이에 현지에서 기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문화관광 분야 훈련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다양한 기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관광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 거점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사업 영역은 문화정책컨설팅, 문화산업 분야, 관광정책컨설팅, 관광산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한국은 전문가 파견, 기자재 운영, 시설건립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로 담당하고, 수원국은 시설 건립 부지 제공, 홍보 및 교육 인력 확보 지원, 운영 지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표 4-8〉 세부 프로그램 운영 기관(예시)

센터 입주 기관	담당 업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정책 컨설팅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 기획, 게임 기획 등 콘텐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운영인력 교육, 문화기술 인력 연수 프로그램 운영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영화기획 등 영화관련 프로그램 운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101) 7월 11일 전문가 자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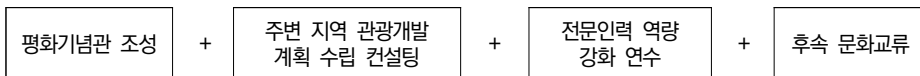
---

### 참고 사례

- 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Korea-Indonesia ICT Training Center)
    - 2007~2008년 코이카 프로젝트로 ICT 종사자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구축 사업 으로 진행되었음. ICT 분야 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센터 건축 및 교과과정 개발 사업 진행
    - 지원 내역
      - 건축: 교육실, 세미나실, 행정실 등 교육센터 건축
      - 기자재: 네트워크 구축, 교육용 및 행정용 기자재 지원
      - 학사관리 시스템, 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 전문가 파견: 사업시행자 현지조사, 기자재 설치 전문가
      - 교육센터 운영 관련 자문 실시 전문가
      - 국내 초청 연수: 교육센터 운영인력 및 강사교육
      - 교과과정 개발: 교육센터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는 한-인도네시아 ICT 교육센터 사업의 경우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무상원조사업 중 최대 규모로 인니 정부가 부담하는 7,600여 평 규모의 부지에 890만 달러 상당의 건물(강의동, 기숙사, 강당 등 복지시설) 및 최첨단 ICT 기자재 제공, 훈련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였다. ICT 교육센터의 강의장은 동시에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IT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등의 IT 핵심 분야 과정을 교육하는 5개의 IT 전문 교육장과 일반인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개의 기본 컴퓨터 강의장, 중소규모의 강의장, 컨벤션 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습실장에는 최첨단 교육용 실습서버와 교과과정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교육 장비가 제공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교육센터의 운영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유관 기관으로부터 교사를 추천받아 한국에서 운영관리자, 실무담당자, 훈련교사, 프로그램개발자과정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나. 베트남 DMZ 지역 문화자원화 사업



#### 1) 취지

베트남은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외교·경제·통상 전 분야에 있어 높은 협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한국 ODA

제1위의 수원국(증여등가액 기준, 120백만 달러),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이며, 제3위 교역국(2021)이다. 베트남 경제는 1992~2019년간 평균 연 7% 내외의 성장을 지속해왔고, 팬데믹 상황이었던 2020~2021년 중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였다. 베트남은 지역 및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FDI 유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수출 지향 성장을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 베트남은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며,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이다. 하지만, 과거 베트남 전쟁에 한국이 참전함으로써 인해 베트남 내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기도 하다. 따라서 베트남과의 우호 증진을 위한 평화 ODA로서 문화 ODA 사업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

## 2) 개요<sup>102)</sup>

베트남 DMZ 지역 문화자원화 사업을 통해 함께 전쟁을 겪은 한-베트남 교류의 수준을 높이고, 평화의 상징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DMZ 지역은 베트남의 남북이 분단된 1954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5년까지 북위 17도 부근의 벤하이강 연변을 따라 라오스 국경에서부터 남중국 해변에 이르는 100km에 걸쳐 설치된 DMZ 지역이다.

[그림 4-2] 베트남 팡지성 위치



102) 본 사업의 개요는 베트남 사회과학원의 응웬티탐 박사의 현지 조사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 ① 관련 베트남 정부 계획 및 사업 현황

DMZ 지역의 개발 필요성이나 문화자원화 사업은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관심을 가져 논의와 사업 진행을 일정한 범위에서 꾸준히 해 왔다. 2005~2010년 관광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2006~2010년까지 2020년 버전 팡지성 관광 개발 총괄계획, 2007~2010년까지 2020년 버전 동-서 경제선과 관광·무역개발계획 등에서 DMZ 지역에 속한 관광개발사업은 이미 언급되었다. 실제 DMZ관광문화개발 사업은 테마관광으로 분류되어 “옛 전장 방문과 기억”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9년 베트남 중앙정부 찬성으로 DMZ 지역에서 2년에 1회 7월에 “평화 페스티벌”을 개최하자는 제안서가 통과되었고 전사 추모, 등불축제, 예술공연, 합창공연, 평화를 위한 회화·조각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전사자 추모를 위한 여러 활동은 잘 개최되어 왔지만 미국, 한국, 호주, 일본 등의 참전자나 참전자 가족을 위한 행사는 거의 없었다.

2024년 (7월쯤) 제1회 국제평화페스티벌 개최 계획과 50주년 통일기념행사 (2025. 04. 30.) 계획에 따라 팡지성 DMZ 지역 내 유적지 보존 및 개발 사업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 국회 의장은 2023년 7월 중순에 팡지성을 방문해 국립전쟁박물관 건설 계획을 “2021~2030년 기간 2050년 버전 팡지성 기획”에 추가하라고 지시하였다.

### ② 현재 유적 현황

Hien Luong-Ben Hai강 양쪽 강가 유적 단지는 국가급 특별유적이다. Ben Hai강, Hien Luong 다리, Hien Luong깃대, 통일갈망대, 17위선 박물관, Hien Luong경찰서 등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Hien Luong다리는 1952년 프랑스에 의해 건설되었고 1954년부터 20년 동안 지속된 남북 베트남의 분단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이 다리는 관광사업 개발로 2001~2003년에 복원되었다. 2013년에 국가특별유적으로 지정되어 2014년 3월에 역사 자료와 역사 증인의 기억에 따라 다리의 반은 파란색이고 나머지 반은 노란색인 2가지 색깔로 최초 복원되었다. 현재 Hien Luong다리는 길이가 182.97m이며 바닥은 목재로 깔려 있다.

[그림 4-3] Hien Luong깃대



Hien Luong깃대는 1954년에 나무로 만들어졌고 1963년에 철강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현재 Hien Luong깃대는 1963년 모습으로 복원되어 높이 38m에 대의 부분이 11.5m이다. Hien Luong깃대는 HienLuong-BenHai강 양쪽 강가 유적 단지의 핵심 부분이며 Ben Hai강과 국도 1번 735 km 지점 사이에 위치하고 북쪽은 Hien Luong 촌, Vinh Linh면이며 남쪽은 Xuan Hoa촌 Gio Linh면이다. 그 외에 Hien Luong-Ben Hai강 양쪽 강가 유적 단지에는 환영 대문, 연합의 집, 경계의 경찰서, 경비대 등도 복원되었다.

### ③ 사업 현황

DMZ 지역 문화자원화 사업에 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지만, DMZ 지역이란 말은 팡지성의 <2025년까지 2030년 버전 관광개발 총괄계획>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베트남 DMZ 주요 유적



Hien Luong-Ben Hai강 양쪽 강가 유적단지, 팡지고성, Mc. Namara 전자 울타리, Vinh Moc터널, Ta Con 공항, Lang Vay 주둔지, Con Tien 주둔지, Doc Mieu 주둔지, Con Co섬 등이 있다. 팡지관광회사의 DMZ 투어는 “옛 전장 방문 투어”라고도 하며 하루 투어이다. Dong Ha 시에서 출발해 9번의 길 - Khe Sanh - Ta Con 공항 - Lao Bao감옥 - 베·라오스·태국 면세점 단지- Con Tien·Doc Mieu주둔지 - Mc. Namara 전자 울타리 - Truong Son 국립열사묘지장 (현충원) - Hien Luong다리 - Ben Hai강 - Vinh Moc터널 순으로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 투어는 자발적으로 구성 되어 주로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주로 당시 참전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내 참전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특히 미국 참전자들이 찾아와서 방문하고 회고하는 인기 투어이다. 최근에 참전자들이 나이가 들어 양적으로 감소하고 젊은 관광객의 호기심을 끌기에는 콘텐츠가 제한적이어서 관광객이 감소한 추세가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투어이다. 이 투어는 주로 전승일(4월 30일), 현충일(7월 27일), 국경일(9월 2일) 전후에 관광객이나 추모자가 가장 많다. 이 투어는 전쟁, 특히 남북분단 시기 17위선 비군사경비구역에 대해

개발적인 그림을 아직도 잘 그려 주지 못하고 흥미를 잘 일으키지 못하여 경제적 효과가 아직도 제한적이다.

#### ④ 현재 개발 계획 현황

DMZ 지역 문화자원화 사업은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중앙정부 승인과 예산 상황 때문에 여러 한계가 있어, 국내관광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고, 외국 관광객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수준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팡지성 관광개발 투자 요구 총액은 현재부터 2030년까지 약 19,316억 동, 즉 8억 7천8백만 달러 정도다. 투자 기간은 3단계로 나누어 계획하고 있다. 2020년까지는 1.44억 달러, 2021~2025년까지는 3.08억 달러, 2026~2030년까지는 4.2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관광개발 목표는 2025년까지 관광의 비중을 팡지성 GRDP의 1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다. DMZ 개발 방향은 팡지성 북쪽 관광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Vinh Linh 과 Gio Linh면에 있고 관광문화자원은 해변삼각지인 Cua Viet-Cua Tung-Con Co, 그리고 Vinh Thai, Vinh Kim바닷가, Hien Luong-Ben Hai 강가 양쪽, Truong Son 열사묘지, Vinh Moc터널, Mc.Namara전자울타리, Con Tien, Doc Mieu, Ru Linh 유적지 등이 있다.

팡지성 내부 테마 여행으로 보면 DMZ는 옛 전장 추억 테마 여행선에 속한다. 이는 Dong Ha시 - Quang Tri 중심도시 - Huong Hoa-Dakrong - Cam Lo - Gio Linh - Vinh Linh의 관광선이다. 팡지성은 현재 “전쟁 추억과 평화 갈망”이란 관광 브랜드를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베트남 동-서경제통로의 대문이 되어 “유적의 길”과 “전설의 길”을 연결하고자 한다.

#### ⑤ 한국과 협력에 대한 지방정부 의견

한국의 DMZ 지역 관광 사업 현황에 대하여 현지 견학을 희망하며, 파주시 같은 한국 DMZ 지방과 Dong Ha 시 같은 팡지성 DMZ 지방 간 자매결연을 통해 장기적으로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4년 국제평화축제를 처음으로 팡지성 DMZ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어서 한국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며, 정례적으로 국제 평화축제를 개최하니 한국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은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팡지성 DMZ 지역 문화자원화

는 열심히 해 왔고 주로 정부예산으로 국내 요구에 응해 왔다. 이제 핑지성 DMZ 지역문화자원화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도 보다 높아졌다. 최근 베트남 국회의장은 핑지성에 방문하면서 국제적 교류와 국제 관광객을 위하고 세계평화를 제고하도록 DMZ 국립전쟁박물관 건설 계획을 “2021~2030년 기간 2050년 버전 핑지성 총괄 기획”에 추가하라고 지도하였다. 이 사업은 진행되면 핑지성 DMZ 지역 문화자원화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일지도 모른다. 한국은 베트남의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파트너로서 베트남 정부와 잘 상의하면서 핑지성 DMZ 지역 문화자원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충분히 협력을 하면 좋겠다.

### 3) 사업 내용

#### ① 주요 사업 영역

베트남 DMZ 지역 평화 기념관 조성, 문화자원 개발 및 관광지역 개발 사업, 한국 DMZ 관련 지역과 교류 사업

#### ② 역할 분담

한국: 전문가 파견, 평화기념관 시설건립 지원, 문화자원활용계획 수립, 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베트남: 시설 건립 부지 제공, 홍보 및 교육 인력 확보, 운영 지원, 문화자원사업 및 관광개발계획 시행

---

#### 참고 사례

- DMZ 기억의 전당 건립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 DMZ 기억의 전당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파주시립 'DMZ 기억의 박물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쟁과 역사를 추모하며 DMZ 과거 및 미래적 가치 표현을 콘셉트로 DMZ 내 유물수집, 연구시설, 아카이빙센터, 기념관, 전시관 등 시설 건립 추진
-

## 다. 한국 문화 ODA 학교 사업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와서 문화 관련 공부를 하겠다는 해외 인력들이 많다. 하지만, 수원국이라고 해서 자체 문화적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수원국 인력들의 관심을 끌 만한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문화관광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가장 최신의 문화관광 분야 트렌드에 따른 콘텐츠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한다.<sup>103)</sup> 가장 최신의 것을 최고의 전문가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민간분야가 이를 주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은 아웃바운드가 아닌 인바운드로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수원국에 장기간으로 나가서 관련 교육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바운드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 1) 문화 ODA 선도대학 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은 민간 대학이 운영하도록 한다.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며, 문화관광 분야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토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문화관광 분야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한다.

연관 분야 대학원 과정 유학생 비율을 보면 예체능계열의 외국인 유학생 수도 타 분야 유학생 수보다 비율이 더 높다. 인문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보다 더 많은 수의 유학생이 있다.

좀 더 한류 기반 정책, 산업, 기획 등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더 큰 외국인 유학생 유입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실기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융합 프로그램으로서 구성하여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다양한 프로그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03) 7. 12. 전문가 자문 의견



〈표 4-9〉 예체능계열 국내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현황(2021년 기준)<sup>104)</sup>

	외국인 유학생 수(학위 과정)		
	전체	석사	박사
전체	39,421	25,169	14,252
예체능계열 전체	5,991	2,689	3,302
- 디자인	1,825	994	831
- 응용예술	1,608	857	751
- 무용·체육	985	290	695
- 미술조형	450	107	343
- 연극영화	108	84	24
- 음악	1,015	357	658
인문계열	5,851	4,002	1,849
사회계열	15,828	12,853	2,975
교육계열	2,148	1,283	865
공학계열	5,609	2,573	3,036
자연계열	2,712	1,218	1,494
의약계열	1,282	551	731

운영 대학은 전국 단위로 별도의 수요 조사에 기반하여 5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직접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연간 운영 예산은 3억 내외에서 타당성 조사에 기반하여 결정한다.

## 2) 민간 운영 한국문화학교 사업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이나 문화 관련 단체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역량을 갖춘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최고의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하고 최신의 문화관광 분야 정책 동향 및 민간영역의 동향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기업 및 단체에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기준으로 최근 트렌드와 참여 전문가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 발전의 기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최신 관련 동향을 익혀 수원국에 돌아서 접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104)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제3절 소결

---

문화 ODA 사업의 확대와 전체 ODA 사업에 대한 문화 분야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ODA 사업은 그 주제별로 다양한 사업 분류가 가능하다. 주목적에 따라 건설, 농림수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개별 ODA 사업들이 매우 다양하게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분야 프로그램 및 인력 운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45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1,840개 사업(4조 2,289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이카 이외에도 매우 많은 기관들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간 협약에 따라 다양한 연계사업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코이카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ODA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 협의하여 연계형 사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LH 공사는 베트남에서 한=베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 ODA를 연계하여 베트남 지방 도시의 도시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계사업은 S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타 분야 국별 협력사업 중 보건, 교육 및 성평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있다. KOICA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탄 체육, 보건 및 가치교육을 통한 청소년 개발 지원사업’은 연계 사업으로서, 열악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 차원의 센터를 건축하고, 청소년 수요에 근거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교육, 청소년 개발·정책 등 체육·보건·교육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다.

일반적인 ODA 사업은 빈곤해소, 질병감소, 환경개선, 복지증대 등이다. 복합 문화

ODA 사업은 패키지 사업들의 연속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전반적인 ODA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향유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원국 및 수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자립 강화 측면에서 복합 문화 ODA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시설 및 센터, 기구 등의 건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유·무상 형태로 지원하고, 문화 및 관광 정책과 법제 연구, 장비를 갖추기 위해 정책 기술자문을 병행하여 무상 지원을 행한다. 또한 문화관광센터와 같은 복합 ODA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관리 교육을 역량강화 측면에서 무상원조로 실시한다. 시설 개보수 외에도 시설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체 발전, 삶의 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 요약

---

2017년 OECD DAC에서 실시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 검토에서 한국은 한때는 원조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주요 ODA 공여국으로 전환한 성공 사례로 직접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의 개발 재원이 협력국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신흥 공여국과 삼각협력을 통한 전문성 공유 및 협력, 국별 프로그램 지원의 높은 비율 유지, 협력국 우선순위에 따른 유무상 원조지원, 자연재해 위험 및 경감 대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점에 주목하였다. 30년의 개발협력 역사를 고려할 때,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국제개발원조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ODA의 양적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원조의 질과 개발 성과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난 동료 검토 이후 GNI 대비 ODA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DAC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비구속성 ODA 비중 또한 DAC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책무 및 국제사회의 약속 차원에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며 비구속성 비율 등 국제사회의 선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소액 다건이며, 인력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 ODA 사업 기관 간의 연계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ODA 사업 간의 연계나 총괄 조정 기능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 ODA 사업 복합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 ODA 복합화는 범분야 이슈로서 문화 ODA 사업을 일반 분야 ODA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세부 사업을 사업목적에 맞게 모듈형으로 조합하여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미·중 패권경쟁, 기후위기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다층적이고 중첩되는 위기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러시아 침공

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이주와 난민 위기, 세계적 공급망 재편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2021년 DAC 회원국의 문화 ODA 규모는 총 2억 3,933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며, 2019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44%에 달한다. 2016년부터 5년 연속 문화 ODA 부문 최대 공여국이었던 일본의 문화 ODA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특히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Culture and recreation) 영역에서 급감(전년 대비 79백만 달러, 2019년 대비 1억 5,486만 달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순위 규모를 유지하던 프랑스가 문화 ODA 최대 공여국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 또한 문화 ODA 규모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감소·유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문화 ODA 사업의 확대와 전체 ODA 사업에 대한 문화 분야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ODA 사업은 그 주제별로 다양한 사업 분류가 가능하다. 주목적에 따라 건설, 농림수산,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개별 ODA 사업들이 매우 다양하게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분야 프로그램 및 인력 운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45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이 1,840개 사업(4조 2,289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코이카 이외에도 매우 많은 기관들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간 협약에 따라 다양한 연계사업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코이카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ODA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 협의하여 연계형 사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LH 공사는 베트남에서 한=베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 ODA를 연계하여 베트남 지방 도시의 도시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계사업은 S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타 분야 국별 협력사업 중 보건, 교육 및 성평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있다. KOICA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탄 체육, 보건 및 가치교육을 통한 청소년 개발 지원사업'은 연계 사업으로서, 열악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인프라 개선 차원의 센터를 건축하고, 청소년

년 수요에 근거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교육, 청소년 개발·정책 등 체육·보건·교육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다.

일반적인 ODA 사업은 빈곤해소, 질병감소, 환경개선, 복지증대 등이다. 복합 문화 ODA 사업은 패키지 사업들의 연속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전반적인 ODA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향유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원국 및 수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자립 강화 측면에서 복합 문화 ODA 사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시설 및 센터, 기구 등의 건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유·무상 형태로 지원하고, 문화 및 관광 정책과 법제 연구, 준비를 갖추기 위해 정책 기술자문을 병행하여 무상 지원을 행한다. 또한 문화관광센터와 같은 복합 ODA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관리 교육을 역량강화 측면에서 무상원조로 실시한다. 시설 개보수 외에도 시설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문화 및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체 발전, 삶의 질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과제

---

문화 ODA 복합화는 범분야 이슈로서 문화 ODA 사업을 일반 분야 ODA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세부 사업을 사업 목적에 맞게 모듈형으로 조합하여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ODA 사업의 복합화 구상에 따른 사업 추진은 문화적 요인의 효과를 배가하여 일반적인 ODA 사업의 효과를 더욱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문화 ODA 사업 복합화는 ODA 사업에 대한 부처 간 협력을 창출하고, ODA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업 구상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형 ODA 사업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한국의 문화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좀 더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한국은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세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가 특색이 있고, 실질적인 기여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ODA 사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한국이 좀 더 잘 할 수 있는 ODA 사업 분야를 개발하여야 한다. 문화 ODA 복합화 구상은 한국형 ODA 사업으로서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문화 ODA 사업의 복합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내 ODA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잘 수행하여야 하고,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ODA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와의 MOU 체결과 연계사업 개발 협의 등을 거쳐 한국만의 문화 ODA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문화 ODA 사업의 추진 형태와 추진 내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기반하여 새로운 문화 ODA 사업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전략연구소(2012),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가봉, 적도기니.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전략연구소(2013),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가봉.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3),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적도기니.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2013),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도미니카공화국.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2014),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가봉.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신용보증기금, 삼정,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가나.
- 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 코트라(2016), 2015 KSP 산업·무역 정책자문사업: 태평양 도서국.
- 관계부처합동(2022),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관계부처합동(2023),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2021), 캄보디아 예술교육플랫폼 구축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2), 필리핀 영화진흥교육센터 건립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2), 인도네시아 문화인재 양성사업 컨설팅 및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 한국예술종합학교(2023), 한국예술종합학교 2023 AMA+ 장학생 선발 입시요강.
- 2023 KPSC 수요조사서.
- 2024 KPSC 수요조사서.
- 2025 KPSC 수요조사서.
- ODA KOREA 홈페이지(<https://www.odakorea.go.kr/>)
- KSP 홈페이지(<https://www.ksp.go.kr/pageView/organization>)
- 고용노동부(2018), 「2018년 재정(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2018. 3. 22.),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한 2018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보도자료).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2018),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김효정(2013),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권율·윤정환·이은석·이주영·유애라·김성혜(2021),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2020. 1.),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_\_\_\_\_ (2021. 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_\_\_\_\_ (2021. .1), ODA 증점협력국 재선정.  
\_\_\_\_\_ (2021. 1.),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_\_\_\_\_ (2022. 1.),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_\_\_\_\_ (2022. 6.),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  
\_\_\_\_\_ (2023. 2.),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이수원(2021), 문화 ODA의 관점에서 본 프랑스의 캄보디아 영화시청각 분야 지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제114집.
- 이진상(2022), 국제정치 및 경제 환경 변화와 국제개발협력 방향, 「국제개발협력동향」, no. 1.
- 장용규·김계리·김수원·박지민(2022),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Creative Industry in Afric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KIEP Research Paper, 세계지역전략연구 (GR), 22-05.
- 정지원·정지선·이주영·송지혜·유애라·최현양(2020),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호윤(2022), 독일의 '개발을 위한 스포츠(SFD)'를 통한 평화구축 노력: 대(對)콜롬비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EU연구, 2022년 제61호.
- 조진구(2023. 1.),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의 의미와 내용 평가, 한반도 포커스 2023-0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국제협력단(2018. 11.)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프레아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2차 사업) 심층기획조사 결과보고서.  
\_\_\_\_\_ (2020. 2.)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조성 지원사업 집행계획.  
\_\_\_\_\_ (2021. 2.) 부탄 체육, 보건 및 가치교육을 통한 청소년개발 지원사업 집행계획.
- 한국국제협력단(2022),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 사업개요서.

### 〈기사〉

- KBS(2020. 10. 14.), 한아세안 뮤직페스티벌 〈ROUND 2020〉.  
[https://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393720&section\\_id=9378](https://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393720&section_id=9378)
- FLY News(2023. 6. 12.), [http://www.filmleadersincubator.asia/homepage/fly/page/subLocation.do?menu\\_no=10040501](http://www.filmleadersincubator.asia/homepage/fly/page/subLocation.do?menu_no=10040501)
- ASEAN EXPRESS(2020. 8. 3.), “내 꿈은 봉준호” 부영위는 아세안 명감독 산실, 박명기, [https://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_print.html?no=4663](https://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_print.html?no=4663)

### 〈외국 문헌〉

- Branks, Hal and Francis J Gavin(2020), COVID-19 and World Order, Baltimore, Maryland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ARE(2018), Doing Nexus Differently: How ca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ctors link or integrate humanitarian action, development, and peace?, CARE Research Paper(September), 1-35.
- Cheeseman, Nic(2020), The Coronavirus Could Toppl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Foreign Policy, March 31.
- Graham Allison, Kevin Klyman, Karina Barbesino, Hugo Yen(2021), The Great Tech Rivalry: China vs the U.S., Cambridg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 Gibson, G., O’Faircheallaigh, C. & MacDonald, A.(2008), Integrat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to Development Planning,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Workshop, Fargo, ND: IAIA.
- IAIA(2009), What is impact assessment?, Fargo, ND: IAIA.
- JICA(2022),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NUAL REPORT.
- Kissinger, Henry(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Will Forever Alter the World Order, The Wall Street Journal, April 3.
-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2009), Status report and information circular: develop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Yellowknife, Canada: Mackenzie Valley Review Board.
- Medinilla, Alfonso(2019), Think local. Governance, humanitarian aid,

development and peacebuilding in Somalia, ecdpm no. 236.

- Schmitz Guinote, Filipa(2019), Q&A: The ICRC and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discussion,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101 no. 912, 1051-1066.
- OCHA(2017), 새로운 업무 방식 New Way of Working,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번역 및 발간.
- OECD(2020),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0 : Learning from Crises, Building Resilience, Paris: OECD.
- OECD(2021), Climate-rela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2021: A snapshot, OECD.
- OECD(2022),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Interim Progress Review, Paris: OECD.
- OECD(2023),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23 Debating the Aid System, Paris: OECD Publishing.
- OXFAM(2019), The 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What does it mean for multi-mandated organizations?, OXFAM Discussion Paper, 1-52.
- UN(2021), Realizing the Triple Nexus: Experiences from implementing the human security approach, New York: UN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
- UN DESA(2020), COVID-19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UN/DESA Policy Brief, no. 66.
- UNDP(2020), COVID-19 and Human Development: Assessing the Crisis, Envisioning the Recovery, UNDP: New York.
-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2, UNDP: New York.
- United Nations, World Bank(2018), 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ashington, DC: World Bank.

---

# ABSTRACT

## **A Study of Complexation for Cultural ODA Projects**

**Sung-Woo Lee**

The main goal of the research is to improve the Cultural ODA of South Korea through the Complexation of Cultural ODA. The complexation of Cultural ODA is the cultural project connected with general ODA issues to improve ODA's effects. Details of Cultural ODA Project Linked general issues of ODA will be choice project items based on the needs of the recipient country. We expect the Complexation of Cultural ODA to be essential to the Korean ODA model.

The cultural ODA of South Korea has to contribute to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the cultural standard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complexation of Cultural ODA is material to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cultural middle of the recipient country besides the general purposes of ODA Projects.

### **Keywords**

Cultural ODA, Complexation, ODA Packages, Project Links



## 집필 내역

---

### 연구 책임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연구 총괄

### 공동 연구

윤지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2장 제1절~제3절 일부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장 제1절~제2절 일부

### 연구 참여

이영유 국립외교원 연구원 제3장 제1절~제2절 일부

##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3년 11월 17일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77-2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7>

이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이성우·윤지연·최규빈(2023), 문화 ODA 사업 복합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7>

